

미사일

1961年 12月 20日 發
1961年 12月 31日 發

1962

1 月 號

特輯 年輪의 溪谷에 서서

〈送舊迎新〉

◇ 1962 年에 期待한다 ◇ 1961 年을 돌아보다.

座談會 생각나는 대로...



第 9 卷

2年の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4日 本部講堂에서는 本部 全
員이 參席한 가운데 始務式이 舉
行되었다. →



金參謀總長은 지난 1月 1日 本部
參謀 및 在京部隊長을 帶同하고 國
軍墓地를 參拜하였다. ←

지난 12月 19日 本部 第一會議室
에서는 金參謀總長主率下에 團隊長
會議가 開催되었다. 同會議에서는
去年度 業務全般에 걸친 分析 評價
와 新年度 部隊運營計劃이 論議되
었다. →



지난해 12月 23日 本部講堂에서
X마스 祝賀 音樂禮拜가 舉행되
었다. 寫眞은 同禮拜에서 祝辭
를 讀한 金參謀總長 ←



지난 12月 28日 金參謀總長은 本部參謀를 帶同하고 백령도를 巡視하고 慰問品을 傳達하였다. 寫眞은 基地에서 將兵을 激勵하는 金參謀總長.



金參謀總長은 지난 12月 21日 空軍病院을 訪問하고 朴正熙最高會議 議長이 보내주신 래디오와 담배 등의 慰問品을 傳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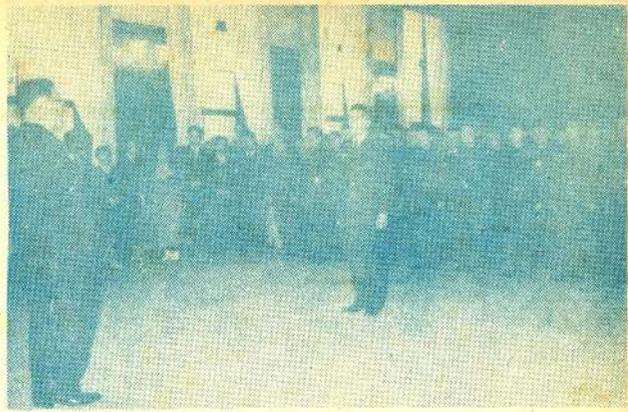
慰問品傳達後 入院中인 將兵을 慰撫 激勵하는 金參謀總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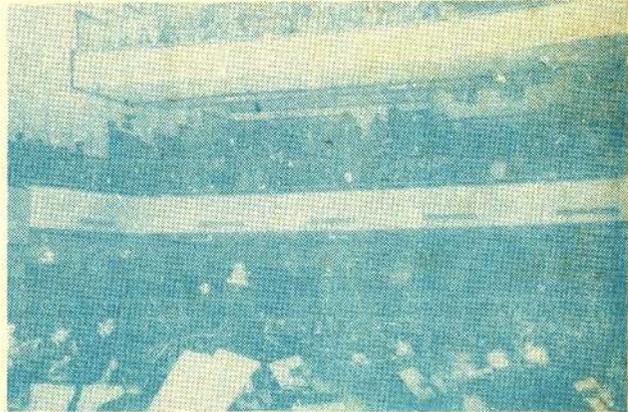
本部에서는 지난 12月 29日을 기하여 全局監室 및 營內士兵에 對한 內務查閱을 實施하였다.

寫眞은 同查閱光景.

空軍將校婦人會에서는 지난 12月 14日 市民會館에서 空軍無依託士兵에 對한 家族結緣 및 慰安行事을 開催하였는데 寫眞은 同行事後 青瓦臺로 尹大統領을 禮訪한 光景.



空軍 交響樂團에서는 지난 12月 15日 國民會堂에서 年末과 X마스를 앞두고 祖國再建과 革命課業完遂를 爲해 健闘하는 市民을 慰安하고 아울러 軍民親善을 더욱 굳게 하기 爲한 市民慰安演奏會를 盛大히 舉行하였다.



柳達永 再建國民運動本部長은 지난 12月 23日 空軍病院으로 入院 중인 將兵을 慰問하고 慰問品을 傳達하였다.



空軍將校婦人會에서는 지난 12月 23日 X마스를 맞이하여 僻高地 將兵에게 보내는 慰問品을 金參謀 總長에게 傳達하였다.



미사일

1 월 호

제 9 호

<送舊迎新號>

紙門扉 閱 시 秘 원

<目次>

年頭辭

◇ 卷頭詩·希望과勝利의 새 아침

參謀總長 吳相厚

信

特 輯

1962年에 期待한다 (6)

- △道義.....鄭斗石
- △經濟.....崔致岩
- △社會.....趙亨源
- △外交.....金基洙
- △生活.....聖在談

1961年을 돌아보다 (16)

- △경제.....金孝禎
- △문화.....白鐵
- △교육.....鄭泰時
- △사회.....尹宗鉉
- △외교.....文哲淳

送舊迎新 座談會 手術臺에 오른 舊惡

감투論...趙豐衍... 一 桴 論...成白謙
공자論...鄭飛石... 一 曠 論...李寧熙

◇ 日 記
◇ 俗談春秋..... 崔要安 (吾)
孤客子 (吾)

一 再 建 論 壇
民族性的 改造와 國家再建... 金成植 (元)
公衆道義와 個人의 自覺... 權純永 (크)
서어비스 精神과 社會生活... 朴術晉 (吳)

世界新聞이야기 東獨篇... 金基漸 (필)
防空救國三個月 ④..... 外誌에서 (吳)
世界的 驚異를 찾아서 ⑥..... 하리바튼 (查)

수필
세 해에 살려진 마음..... 趙敬姬 (六)
하늘..... 鄭然喜 (六)
新作路에서 만난 제트機..... 朴洪根 (查)

詩·希望에 대하여... 李永純 (六)
畫·文인세 해... 白榮洙 (望)
空軍美術展을 보고... 朴世元 (五)
◇ 後 記..... (交)

辭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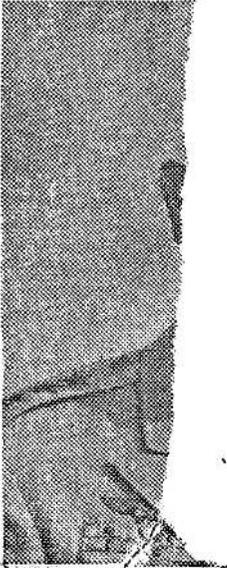
信

民衆의 活路를 찾은 「革命의 해」一九六一年을 보내고, 果敢히 前進과 成功이 約束된 一九六二年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本官은 親愛하는 空軍將兵 여러분들의 建康과 幸福을 衷心으로 祈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全國民이 혼연히 몸과 마음을 바쳐 燦爛한 歷史 創造의 役軍됨을 더욱 굳게 다짐하는, 이 嚴肅한 時點에서, 本官은 將兵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負荷된 偉大한 歷史的 使命과 姿勢를 再確認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空軍이 지난 一年 基本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 K×基地의 建設 航空廠의 擴張 作戰司令部의 創設 그리고, 新裝備 導入의 推進等 劃期的인 事業들을, 모든 難關과 苦難속에서도 豫定대로 成就할 수 있었을, 모든 難關과 苦難속에서도 豫定대로 成就할 수 있었을, 그리고, 나아가 革命課業을 遂行支援함에 旺盛한 意慾과 實踐躬行으로 臨할 수 있었음은 實로, 將兵 여러분의 愛國의 心과 忠誠心의 結晶이라고 本官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努力의 裏面에는 아까운 우리들의 戰友들의 犧牲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痛恨한 마음으로 回想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將兵 여러분들 自身이 痛切히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祖國의 現實은 過去 어느 때 보다도 우리들에게 더
따서 滅私의 奉仕와 犧牲을 要求하고 있는 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者를 돕는다는 天理를 刻骨銘心해서,
自己를 다스려 나아가갈 때만이 우리는 子孫萬代의 指斥을 免할 수 있을 것이며, 眞正한 生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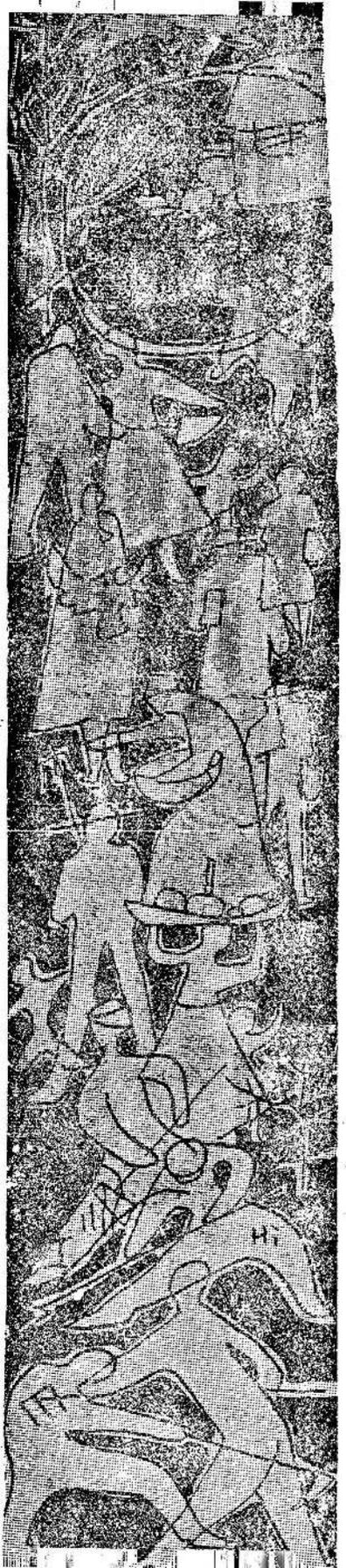
이러한 粉骨碎身의 覺悟와 果敢한 實踐만이 우리 空軍으로서 이해 안으로 成就시켜야 할 航空廠의 完成이나
明年으로 다아은 新銳 導入 等 軍內의 諸般 年次目標을 突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우리의 臨戰態勢를 盤石위
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새해는 國土建設을 비롯한 經濟 五個年計劃의 着手 等 許多한 建設과 實踐의 課題로 充滿되어 있는, 革
命 第三段階의 始發이 되는 重大한 해입니다. 우리는 革命初期段階에서 보아주었던 果敢한 決斷과 勇氣를 無限한 忍
耐와 實踐의 情熱로 轉換시켜, 祖國과 民族이 우리에게 賦與한 先鋒者의 役割을 더욱 名譽롭게 遂行하여야 하겠음
니다.

또한 全世界 赤化의 野望을 품고 不斷히 繼續되는 斷末魔的 共產主義의 跳梁을 바로 目前에 두고 있는 우리는
當面의 精神의 姿勢로서 크게 自覺된 生活矜持를 堅持하여 奢侈와 浪費를 一掃하고 모든 精神과 努力과 創意가
總和를 이룬 가운데 國家再建과 勝共統一의 진로 總蹶起해야 하겠으며, 더우기 우리 軍人은 莫重한 任務를 遂行
함에 있어 指揮官된 사람들의 自己를 超脫한 率先垂範과 部下된 사람들의 自發的 行動具現으로 그 實을 겨누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家再建을 爲한 建設과 實踐의 課題는 漠然한 期待로 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
루어진다라는 事實을 알아야 하겠으며, 祖國을 爲한 血汗 하나하나에 우리의 戰力과 祖國의 將來가 매여 있음을 크
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또 오늘보다 來日을 위해서 힘차게 내어디던 우리의 課業이 이 한해로 하여 過去 그 어느 때
보다 보람찬 날로 民族史에 아로 새겨질 수 있겠음, 將兵 모두가 渾然一致 不屈의 鬪志와 忍耐로써 이해의 課業
을 完遂할 것을 促求하면서, 將兵 여러분의 建國를 믿는다.



希望과 勝利에의 새 아침

— 壬寅年의 새 아침에 부쳐 —

吳 相 淳

보라.
東方의 찬란한 새아침,
너의 넘실한 어깨 너머로
아. 希望에 넘친 勝利에의 저 圓光을…….

회오리 치는 용솟음이며.

그것은 너, 힘찬 進軍.

이 작렬하는 눈부신 속에는

怨恨의 피의 땅과

그蒼空을

품고 가는

저 北쪽 피발은

품고 가는

너 보라, 새 눈초리와

눈물겨운 옛이야기가 될터이다.

아. 다지는 피의 山河로 化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理由도 封鎖해야 할…….

우리 슬픈
北窓의 消息이여
그 안타까운 메아리어.

다시 한번 밝아 오는
이 새 아침에,

너여,
한 없이 푸르른 希望의 너여.
저 봄비는 勝利의 旗人발을 보는가.

두 어깨로 잇닿은

너와 나와의 끝없는 하늘,
그 하늘에 수없이 번져가는

決意의 푸르PELL라,
푸르PELL라의,
아. 壯嚴한 震動이여.

너와 나와의 永遠한 의침이여.

東方의 찬란한 새 아침,

너와 나와의 어깨너머로 대다 보이는
平和의 하늘에 圓舞하는 비들기떼를
보라.

보라.

이것은 하늘을 찌르는

너와 나의 夢寐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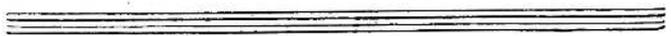
블러보고 싶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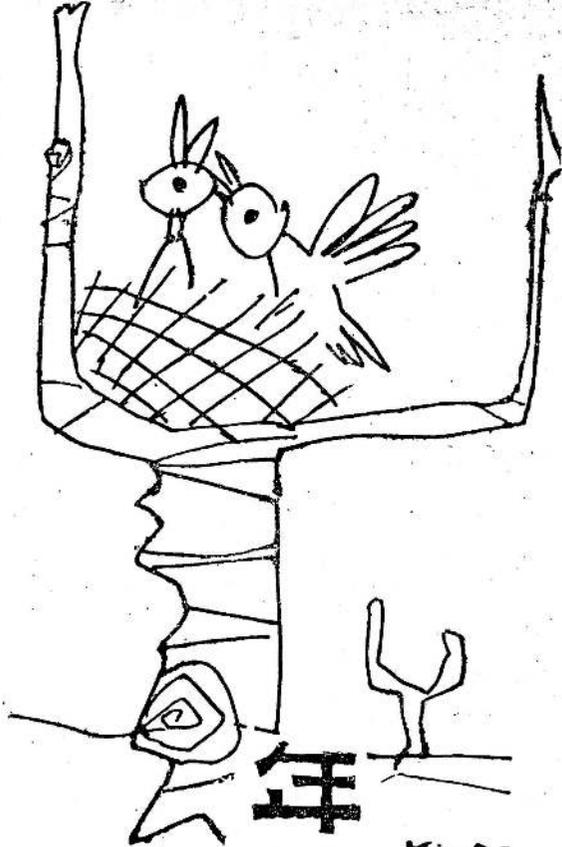
아. 東方의 새 아침.

한없이, 한없이 부르짖은

우렁찬 너 노래의 아우성!

그 우람함이여!





年輪의溪谷에서

-KimDaS

1962년에期待한다

- △道義▽……獻身精神기르자
- △經濟▽……잘살수있는기반
- △社會▽……自助정신의展開
- △生活▽……計劃性있는살림
- △外交▽……國際的地位의確立

1961년을돌아보다

- △經濟▽……飛躍의土臺를마련
- △社會▽……새世代歷史의第一章
- △文化▽……劃期的整理와改編
- △教育▽……果敢한再整備
- △外交▽……積極外交를指向

獻身精神 기르자

鄭斗石

一九六二年은 한마디로 해서 諸般革命課業을 本格的으로 實踐해 나가야 할 해라고 본다.

國家再建最高會議 朴正熙議長의 特別聲明에서 聲明에 接하고 一九六二年이야말로 諸般體制의 改革 및 育成段階이며 또한 五個年經濟計劃의 第一次의 施行段階이라고 하는 데 더우기 重大視되고 있는 것이다.

五·一六革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不可避한 原因이 여러가지 있었을 것이나 어떤 理由가 重大한 理由였다고 가리켜 指摘하기는 어려우나 革命直前의 政治·經濟·社會·文化·教育 등 全般的인 分野에서 不正과 腐敗 등의 諸惡이 盛行되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한 諸惡中에서도 特別 筆者의 생각한바로서는 道義의 墮落과 道德心의 支離滅裂이 가장 根本的인 理由가 아니었던 가하고 보게되는 것이다.

人間의 天性的의 拘束과 制限을 싫어한다는 것은 本能이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原始 森林속에서 제멋대로 살수 있었던 時代라던 물라도 共同生活를 해야만 되고 오늘날 文明國家에서 제마음 내키는대로 산다는 것은 想像도 못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五·一六軍事革命直前까지에는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部類의 集團이나 個人이 얼마든지 橫行하였던 것이 事實이었던 것이다. 一般國民—善良한 市民—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싫어했고 무엇보다도 미

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착하고 어진 國民들은 그들의 온갖 橫暴에 억눌려서 말한바 못하고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五·一六軍事革命은 모든 惡業에 鐵槌를 加하여 果敢히 이를 掃蕩하였음은 우리들이 그동안 보아온 바이다.

革命政府가 舊政治機構의 完全改革을 끝내고는 재빨리 道義改革에着手한 것은 時機적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民主主義와 道德의 確立이야말로 韓國의 國家再建의 根本指標가 되어야 하겠다 함은 筆者가 平素부터 생각해오던 터인지라 더욱 切實한 바이다.

古今東西를 莫論하고 道德은 民族의 歷史가 어떠한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기까지의 所謂 民主主義의 歷史가 어떠한가를 健全한 道德의 確立없이 이나라의 政治가 참된 民主主義의 發達을 바란거나 產業經濟의 發達이나 教育·宗教의 堅實한 隆盛을 바란다는 것이야말로 絲木求魚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韓國의 國家再建은 반드시 成就되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成就될 것으로 確信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의 再建이 몇몇 特定人이나 一部分의 國民이 努力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國民全體가 이에 同一步調를 취하고一致團結하지 않으면 그 巨大한 課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結局 나의 主張은 精神의 革命이 道義의 確立없이 心田의 開發없이 國家와 民族의 隆盛發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한마디로 要約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心田의 開發 道義의 確立 精神의 革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決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個人이 自己의 職分을 다하고 남에게 弊를 끼치지 않으려고 操心性있게 言行만 한다면 어려움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만 端의으로 우리를 再建途上에 있는 韓國國民이 最低 지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적어

보면

첫째로 우리는 獻身하는 또 獻身할아는 國民이 되어야 하겠다. 獻身이라는 데는 여러가지分野가 있을 것이다. 國家와 君民을 爲하여 自己한 몸을 받치는 獻身도 있을 것이고 德을 爲하여 自己를 바치는 獻身, 教를 爲하여 自己를 바치는 獻身 등 여러가지 있을 것이나 于先은 福祉國家를 이룩하는데 最善을 다하여 獻身하는 國民氣風이 醸成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自衛를 가지고 모든 惡의 要素에 挑戰하여 이긴다는 것은 關志滿滿한 國民이 되어야 하겠다. 不正과 妥協하는 일이 우리日常生活의 가끔 發見할 수 있거니와 自我와 크게 關聯없는 일이면 말하기도 귀찮고 또는 報復이 두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大體로 默殺해 버리는 傾向이濃厚하다. 惡의 循環을 遮斷하는 데 果敢하여야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道義心顯揚이 果敢히 鬪爭하여야 하겠다.

不正과 싸우고 이긴다는 것은 우리들 個人을 지키고, 家庭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國家를 지키고 社會를 지키는 데 絕對 必要한 것인바 不正과 腐敗를 보고 默認하거나 妥協하지 말고 이를 摘發하고 矯正하는 데 最善을 다해야 하겠다.

셋째로 團結하는 國民이 되어야 하겠다. 個人이 家庭이건 國家이건간에 分裂은 破滅외에 아무所用없다 함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

家庭이 分裂하면 그 집안은 家破人亡하고 있었는가. 職場이 分裂하면 紛爭이 생기고 그 職場은 亡해 버리지 않았는가. 宗教가 分裂하면 참다운 信仰은 제쳐놓고 邪教로 변이질 뿐만 아니라 그 宗教는 信徒層의 信望을 잃고 滅亡해 버린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團結을 싫어하고 分裂을 助長한 民族치고 發展한 民族이 어디 있었던가. 舍友한 民族이고 깨지면 亡한다는 것은 하나의 原理이요 天理이 아닌가.

또 우리는 分裂의 原因을 直視하고 그 原因을 究明하여 이를 是正하는 데 果敢해야 하겠다. 只今까지의 分裂의 原因을 보면 各自의 마음속

에 自高心과 貪慾과 憎惡心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씩 分裂되어 끝내는 派爭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一九六二年은 앞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革命課業을 遂行하는데 가장 基礎的인요 第一次의 施行段階이니만큼은 國民은 革命精神에 立脚하여 最善의 努力을 해야 될 래인 줄로 確信한다.

(筆者·東國大學校總長)

끈기와 忍耐로 잘

살 수 있는 기본을

崔 致 崙

<經濟>

急速한 經濟發展을 爲한 綜合的이며 長期的인 開發計劃의 問題는 오늘날 全世界 特別히 後進國家들이 한결같이 當面하고 있는 深刻한 問題이다. 所謂 貧困의 惡循環을 克服하기 爲하여는 重要한 經濟活動을 具體的으로 模型化하고 可用資源의 合理的인 配分을 通하여 投資効率의 極大化를 期한다. 是「프로브렐」이 무엇보다도 緊要한 것이다. 特別히 우리나라의 經濟는 後進의 一般的인 屬性을 脫皮하지 못하였고 社會的으로는 半封建的인 體制를 아직도 지니고 있으며 零細한 家族的인 經營下에 있는 小農을 爲主로한 原始産業中心의 經濟基盤을 지니며 資源의 開發과 自給度에 對比하여 過剩한 人口를 가지고 있는 現狀이다. 이러한 構造의 後進性은 企業의 活動을 가로막고 「프라이스 맥카니즘」의 作用을 麻痺시키고 貨幣的인 流通機能을 阻害하고 있다. 이러한 惡條件으로 生産力

擴大의 不可缺한 要素인 生産, 資本, 流通, 市場 등의 諸般條件이 硬化狀態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後進的인 特質에다가 雪上加霜으로 經濟第一主義를 標榜하고 政權을 擔當했던 舊自由, 民主兩黨政府는 政權의 爭奪과 延長에만 汲及한 結果 重要點의 經濟的 後進의 與件인 資本形成의 原始的 産業構造의 不均衡, 可用資源의 退藏, 人口의 幾何級數的인 壓力과 失業等에 對하여는 何等의 效果의 인 措置를 講究하고 施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無爲 無能하고 腐敗한 爲政者들의 橫暴로 國民들은 鐵鍊線上에서 彷徨하게 되었으며 民生은 나날이 塗炭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百尺竿頭의 危機에 達着하게 되었은 것이다. 이와같은 慘狀을 座視할수 없어 蹶起한 軍事革命은 絶望과 鐵血에서 허덕이는 民生苦를 時急히 解決한다는 理念下에 當面한 六個項目의 緊急經濟 施策을 發表한바 있다. 前記한 六個經濟施策을 概要하면 緊急失業者對策, 財政金融의 圓滑化, 單一換率의 維持, 外資導入促進方案, 稅務行政의 改善, 經濟活動의 自由勞働氣造成等인데 財政金融面에서는 豫算의 科學的인 編成, 脫稅의 未然防止, 認定課稅의 廢止, 奢侈生活의 抑制, 物價의 上昇防止, 金融의 正常化等에 強硬한 措置를 取하였다. 基幹産業의 建設面에서는 動力資源의 開發, 電業三社의 統合, 農林漁業面에서는 農漁村 高利債整理, 營農資金放出, 農銀과 農協의 統合 漁業政策의 革新, 合理的인 行政機構改編의 斷行等이라고 中小企業育成面에서는 中小企業銀行의 設立과 庶民金庫를 專擔한 國民銀行의 發足準備, 外資導入促進을 爲한 官民混合經濟使節團의 海外 派遣等 廣範圈한 分野에 걸쳐 果敢한 施策은 國民들에게 清新한 希望과 企業意慾을 注入시켜주는 「네오」強心劑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는 主體的인 慾求와 이에 附隨되는 客觀的인 諸般條件의 具備되어야 하므로 政府는 同施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는 許多한 難關과 隘路에 達着할 것을 覺悟해야 될 것이다. 要컨대 重大한 難關이란 緊急施策에 所要되는 財源

의 調達方法과 運營과 組織面에 있어서의 行政的인 機能等에 細心한 配慮와 끈기있는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政府는 既定된 緊急施策이 圓滑히 實施되지 못하였을 境遇에 招來된 經濟, 社會, 文化等 全域에 波及된 影響을 考慮할수 있는 識見도 必要한 것이다. 이 施策의 實効를 獲得하기 爲한 前題로서 韓國經濟의 歷史의 이며 社會的인 後進性과 現實的인 制約을 좀더 嚴密히 分析하는 가운데 施策與件의 基本的인 課題의 當爲와 方向인 經濟活動의 正常化와 緊急失業者 對策을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特別히 失業의 相對的인 概念이라고 할수 있는 雇傭問題가 近代經濟의 中心課題이며 窮民의 目標이므로 革命政府는 過去의 自由, 民主兩黨政府가 卽興의 으로 實施한바 있으나 國土建設事業等은 一種의 救濟事業에 不過였으므로 이러한 外節的인 方法을 斷乎히 止揚하고 恒久的인고도 持續的인 生産部門에 定着性的인 雇傭增大를 圖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오는 六二年年을 起點으로 六六年年까지의 向後五個年을 期間으로 하는 經濟開發計劃은 落後된 우리나라의 經濟를 向上發展시키는 「바로 메너」가 된다는 데서 國內外的 至大한 關心事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前記한 經濟開發의 遠大計劃이 緊急 施策과 併行하여 果敢한 程度까지 所期の 目標을 達成할 수 있을지의 與否는 現在 革命政府가 全力量을 傾注하여 이 計劃을 完遂하도록 萬全의 對策을 講究中에 있으므로 順調하게 進陟되리라 觀測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同計劃의 遂行을 爲한 核心的인 「키」는 所要資金의 調達與否에 있으므로 果然한 總投資額(지나 五五年度의 不變價格) 二兆五千六百五十餘億圓을 如何히 調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勿論如斯한 總投資額이 最終的으로 確定된 것이 아니라 看做하더라도 前記한 數字와 大同小異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再建」의 우렁찬 노래와 더불어 밝아오는 「새해」는 五個年經濟開發의 基調 政府가 資金調達의 一環策으로 經濟外交의 強

化外 過去의 無定見하고 「캐시브」한 受接態勢를 止揚하고 巨視的인 見地에서 美國을 비롯하여 「유럽」 諸國에서 無償援助와 借款의 獲得에 置重하여 「外資導入센터」를 設置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外資投資活動의 案內年 投資機會를 海外에 宣傳하고 있다. 한편 韓日經濟協定을 비롯하여 泰國 越南 馬來亞의 貿易協定の 締結을 促進하고 中國 國庫의 通商交易擴大를 試圖하고 있음은 適宜한 方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十月부터 再開된 韓日會談은 十年 동안 遲遲不振한 狀態에 놓여 있던 兩國間의 懸案問題가 「朴·池田」의 頂上會談을 契機로 劃期的인 妥協의 氣運이 造成되어가고 있어 늦어도 來年初에는 韓日國交가 正常化될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이 會談의 成功을 雙方이 熱望하고 있고 우리 歷史의 轉換點이 될 五個年經濟開發計劃의 始發年度인 六二年度의 事業資金需給에도 圓滑油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可及의 이면 早速한 時日內에 解決되어야 한다. 그러나 昨年 日本의 動靜을 보면 日本 外務省의 伊關亞細亞局長은 自民黨의 「韓·日問題懇談會」에서 「池田」會談의 內容을 說明하는 가운데 對日 賠償請求權은 法律上 根據가 確實한 것에 限하여 拂込을 合意를 본바 있다고 말하고 그 額數가 五千萬弗線의 內外일 것이라고 示唆한 바 있다고 한다. 勿論 如斯한 報道가 我田引水만을 爲한 「고우물식」 「에드·바문」 功勢임에는 틀림없으나 外交에 는 信義와 良識이 앞서야 하는 데 適當히 彩色된 發言을 일삼는 吝嗇한 處事는 自重해야 될 것이다. 如何든 六二年은 우리 政府와 全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子孫萬代의 繁榮을 爲하고 貧困으로부터의 脫皮를 爲하여 過去의 傍觀의 이고 無氣力한 習性에서 벗어나 自助精神에 立脚한 創意와 忍耐 그리고 勤勉으로 經濟再建의 盤石이 되는 五個年 長期經濟開發計劃의 第一次年度를 結實해야 된다. 그리고 政府는 經濟再建의 進路를 明示하는 完全無缺한 計劃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過去의 羅列的인 統計와 非現實的인 桌上式 所要資金의 抽出方法은 止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金調達에 있어서 첫째로 美國의 無償 및 有償 援助獲得에 置重해야 된다. 이면 朴議長의 訪美로 韓·美間의 紐帶가 加一層 密接해졌으며 「케네디」大統領은 革命政府의 緊急經濟施策을 높이 評價하고 「美國은 事情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對韓援助를 繼續한 것이며 革命政府가 積極推進中에 있는 五個年經濟開發計劃도 훌륭한 着想」이라고 言明한 바 있다. 그러나 新年度의 對韓援助規模가 今年度의 一億八千萬弗線에서 三千萬弗이 削減되리라고 傳해지고 있는 反面에 借款問題에 關係하는 아지도 아무런 示唆가 없다는 것은 甚히 遺憾한 일이다. 또한 民間外資의 導入을 爲해 波美中에 있는 民間經濟使節團이 活潑한 交涉中에 있으나 이렇다할만한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可及의 이면 外資導入의 促進을 爲한 方法을 좀더 緻密하게 分析하고 再檢討하여 新年度의 開發計劃에 踴躍을 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細心한 配慮가 있어야 한다. 「바이·아메리칸」 政策 같은 것도 「액티브」하게 「워싱턴」 援助當局과 修正交涉를 進行해야 된다. 美國商品購買政策이 美國의 國際收支의 均衡을 爲한 一環으로서 肯定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反共의 堡壘로 自由世界의 前哨基地로서 過重한 負擔이 되고 있는 六十萬大軍의 維持等은 參酌한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더우기 韓國 歷史의 劃期的인 轉換點이 될 五個年經濟開發計劃을 成功裡에 遂行하기 爲하여는 同 필리시」가 遂行되어야 한다. (筆者·産業經濟新報社 經濟部長)

自助 정신으로 생활 환경 改善

<社 會>

趙 孝 源

(1)

第二次世界大戰이 美國을 爲始한 聯合國의 勝利로 그 終焉을 告하거 植民地의 오랜 生活에서 主體性을 喪失했던 大部分의 弱小國家는 저마다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幻覺을 수 없는 歡喜에서同胞의 따뜻한 情을 祝盃로서 나누기에 餘念이 없었다. 마치 國家의 繁榮이一時에 그늘 눈앞에 다 아온 것 처럼..... 그러나 極히 순간적인 화려한 激動에서 깨어났을 때 그렇게도 낙관했던 祖國의 앞날에 난파와도 같은 것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經濟的 壓力이 先導的 役割을 하던

植民地時代의 政治的 壓力에 代身하여 登場한 것이다. 따라서 貧困과 疾病等이 차츰 平均化해 가고 英產主義의 毒素가 틀물히 蔓延해 가기 시작하자 드디어 國內問題의 범주를 벗어나 先進的인 自由陣營國家들의 重大하고도 時急한 當面問題로 「크로즈인」하게 되었으며 後進國 또는 低開發國家라는 어색한 代名詞이 매 가지가지 그 克服策이 講究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한편 이들 後進國의 不幸한 最大公約數로는 人口의 過多 無知 貧困 失業의 범람 疾病의 만연, 生産技術과 生産性的의 低劣, 資本形成의 未熟, 交通 및 通信機關의 未備等이 指摘되고 있는바 이러한 點을 비추어 보면 우리 韓國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범주속에 끼여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韓國과 같이 人口의 八割以上이 農村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다 都市와 農村의 奇形的인 不均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是政府의 關心 또한 農村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農村住民들에게 人間以下의 生活狀態를 脫皮하게 하고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을 爲해서 過去가 가지가지 對農村振興事業이 分散的으로 試圖되어 왔으나 어느 것하

나도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農村地域社會에 潛在하고 있는 諸要因들의 多角的 相互關聯性을 充分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綜合的 試圖으로서의 地域社會開發事業이 多目的의인 事業으로서 效率의인 農村振興을爲한 最後의 守護者로 登場하게된 事 必然의인 意義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2)

아무튼 地域社會開發事業이란 一定한 地域內의 住民이 그들의 生活의 改善과 向上을 爲해서 個別的 또는 集團의 計劃을 樹立하고 또 이것을 實踐遂行하는 社會에 發展事業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一定한 部落內의 住民 스스로가 外部의인 關與없이 獨自의 生活環境을 改善하여 보다健全한 變化를 가져 오게 하고자 하는 民主主義의인 自立自助精神의 한 表現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事業의 根本原理는 어디까지나 部落民의 積極的인 共同參與로써 그들의 共通慾求에 基한 多數者의 활발한 意見交換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다. 過去의 農村復興事業이 農民의 自助精神을 培養하지 못하고 따라서 農村地域社會의 具體的 運載者인 그들이 아니라 先導位置에서 물러나 오히려 被動的인 傍觀者의 役割을 담당케 함으로써 豫算과 時間浪費만을 계재했던 事實을 想到할때 本事業의 탄생이 그들 農民들에게 일마나 希望의이고 鼓舞의인 意慾을 진작시켰는가 하는 것은 本事業이 지닌 精神의 基礎와 그 民主의 原理에서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地域社會開發事業이 지나치게 政府만을 믿고 依存하면 지남날의 頹廢의인 惰性을 代身하여 自助精神과 創意力을 길러 部落의 問題를 部落民 스스로가 賢明하고도 健全한 判斷을 내릴 수 있게 하는 民主主義의인 社會改革이라는 確信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地域社會開發事業은 後進諸國에 있어서 는 主로 美國의 財政的 援助를 中心하여 거의 流行의 으로 채택 實施하고 있으며 特別히 亞細亞 및

中東諸國의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國家的 事業으로 크게 展開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올빈」이나 「인도」같은 나라는 大統領 또는 首相의 直屬機關으로서 政府의 強力한 뒷받침을 받아 豫算面에 있어서의 比重도 大端인 實情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 事業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一九五七年六月의 韓美共同經濟委員會의 建議을 받아 設置되고 이것을 母體로 하여 必要한 諸設備을 갖추어 다음해인 一九五八年 九月二日 大統領令 一、三八四號로 「地域社會開發委員會 規程」이公布되므로써 具體的인 實現을 보게된바 그 現況을 略述하면, 一九五八年十一月에 韓國最初의 示範部落으로서 京畿道 廣州郡, 忠南 燕岐郡, 慶南 蔚山郡과 濟州道의 南濟州 및 北濟州郡의 五個郡 二部落을 選定하여 이른바 示範事業에 着手하였다. 사업의 成果는 尙外로 큰바 이에 勇氣를 얻은 地域社會開發 中央委員會는 一九五九年에 全國 九個道 二十個郡 一一一部落으로 擴張하였으며 또한 一九六〇年度에 今年末까지는 八五個郡 八四部落으로 大幅 擴張하게 이르렀다. 한편 이 從事하는 指導員은 그동안 五期에 걸쳐 四五六名이 五個月以上の 現地實習을 包含한 教科課程을 履修하여 그들이 習得한바 理論과 實際를 部落民과 더불어 起居를 함께하면서 現實의 으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滿三年 남짓한 期間에 걸친 實績을 一覽한다면 農產物生産加工事業으로 搨精工工場, 澱粉工場, 干果工場, 藥品施設其他 家內手工工業施設等이며 開墾事業, 山林事業, 果樹栽培과 文化館, 産業會館等的의 建設事業 其他 各種 營生事業, 水産事業, 保健衛生事業等 그야말로 多角的의인 多目的의인 事業이 이루어진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注意할 것은 이들 事業遂行을 爲하여 部落民의 自體負擔이 事業總額의 五〇% 이상을 超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地域社會開發事業은 部落의 利用할 수 있는 人的 및 物

의인 모든 可用資源을 總動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外部의인 援助는 이들 事業에 活力을 주기 爲한 一種의 補助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地域社會開發事業도 이미 國際的인 關心을 모으기에 無色하지 않을 段階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具體的인 例로서 今年五月六일부터 十二日에 걸쳐 서울에서 ICA와 우리나라 共同主催로 地域社會開發 國際會議을 開催하여 우리 事業 紹介는 勿論 當面한 諸般問題에 對해서 廣範圍한 討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外國무대에도 進出하게 되어 筆者는 今年九月 韓國을 代表하여 ECAF E 地域社會開發 國際會議에 參席한 榮光을 얻게되어 그 자리에서 韓國의 地域社會開發에 對해서 좀더 깊은 理解를 주었으며 그 밖에도 全般的인 「제미나」도 잤었다.

이리하여 韓國의 地域社會開發事業도 事實上今年 五月의 國際會議을 고비로하여 示範段階를 脫皮하여 이제는 展開過程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自信을 얻게되었다. 다만 이 事業의 成功的인 遂行을 爲해서는 그 推進體인 事業機構가 政府各機關의 強力한 支援를 可能하게 할 수 있는 確固한 基礎를 잡아야 그 安全성과 永久性을 維持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機構自體가 不斷한 流轉의 過程을 밟았다는 것은 多少 유감된바 없지않으나 이것 亦是 發展을 爲한 한 과도期의 現象으로 自慰할 수 없다. 그러나 現在 革命政府의 主要 施策에 발맞추어 本機構가 農林部의 한 內局으로 되었으며 事業의 展望은 至極히 希望的이라 할 것이다.

어떻게 展開過程에 들어선 地域社會開發事業이 더구나 革命政府의 一九六二年度부터 始作되는 第一次五個年計劃에 어깨를 같이 한다는 意味에서도 좀더 意慾의이고 野心的인 計劃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地域社會開發五個年計劃이 具體的인 뒷받침이라 하겠다.

(3)

開過程 突入 第一階段로서 그리고 全國三萬二千餘의 自然部落을 全部「카바」하기 爲한 一端으로서 示範部落의 大幅의인 擴張과 指導員의 確保이다. 따라서 來年度에는 七八二個部落의 新設 또는 擴張과 指導員 五〇〇名을 訓練養成算 計劃이다. 이렇게 되면 示範部落數는 都合 一、五八六個가 되고 指導員은 九五六名이 되는 셈이다.

둘째, 地方分權乃至는 地方自治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여 部落自治指導者의 大幅의인 充實한 養成이다. 따라서 次단계로 一九五八年度에 充實되었던 十二個示範部落을 部落自治指導者를 中心으로 하여 그야말로 部落民 스스로가 部落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주의깊은 검토를 할 것이다.

셋째, 이 事業에 從事하는 指導員의 採用, 敎科目, 訓練(現職訓練包含) 및 指導活動等 全般에 亘해서 效果의인 再檢討를 實施할 것이다.

넷째, 地域社會開發事業의 方法을 都市地域社會에 어떻게 適用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果然 可能한가 한데 대하여 細密한 研究를 할 것이다. 今年에는 그에 對한 한갓側面的인 試圖로서 歸農定居事業에 指導員을 從事토록 하고 있다.

다섯째, 政府補助金의 交付에있어 그 對象事業種目에「푸라이오리타」(Priority)를 設定한가 한다. 勿論이에 對해서는 一定한 限에 止한것을 염려하여 회의적인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事業體의 運營 및 管理를 비롯해서 生産性 증가에 主力을 두기 爲한 技術的인 문제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여섯째 農村地域社會의 發展을 爲해서 그 社會構造에 대한 좀더 깊고 體系의인 研究는 勿論 우리 事業에 農村地域社會에 미친 영향을 냉정한 立場에서 批判的인 調査評價를 우리 職員을 비롯하여 斯界의 權威者와 共同으로 試圖할 생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事業의 보다 뚜렷한 進路가 파악될 것이다.

일곱째, 冬季農漁民計劃을 具體的으로 實施한 것이다. 특히 文盲退治에는 再建國民運動本部和 共

同한 協助下에 저어도 示範部落만큼은 來後年の 宗姓가에 或是나도 실시될지 모를 記名投票에도 損色없도록 格外 留意하여 示範부락으로서의 地位를 과시할 것이다.

여덟째, 地域社會開發關係國과의 긴밀한 유대를 圖謀할 것이다. 특히 亞細亞, 阿佛利加, 中東諸國의 中立國과의 相互 긴밀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外交活動에도 커다란 寄與가 되지않을 수 없다. 이것은 지난 五月 서울에서 열린 國際會議에서 그 좋은 例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地域社會開發事業을 主要國策의 하나로 하게 하는 문제다. 이것은 二十世紀의 行政國家, 福祉國家, 文化國家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여 이 事業이 一種의 汎國民運動으로 展開되도록 事業機構의 效率의인 統合強化가 要請되는바 이는 長久한 時日을 두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4)

民主政治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政治를 意味한다면 被治者인 國民 한사람 한사람이 政府를 不信한다면 是는 重大한 問題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어떻게 하는지 이 被治者인 大衆에 그 부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國民의 大多數가 農民이고 보면 이들 農民의 健全한 不滿을 解決할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部落民의 共同참여로서 그들의 問題를 그들 스스로가 成就하고자 하는 自立自助의 創意性이 要求되는 地域社會開發事業이며 事業을 通하므로써 저지나진 政府存의인 不合理한 情性이 解消될 것이며, 한편 政府는 신뢰할 統治者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成果로서 性急한 判斷을 내릴 것이 아니라 樹木의 成長과도 같이 不屈의 끈기와 忍耐로서 조심스레 가꾸어 나갈때 自立經濟의 確立 또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筆者 · 農林部 地域社會局長)

國際社會에의 積極的參與를

金 基 洙

<外 交>

過去 自由黨政權十餘年の 韓國의 外交의 基調는 美國과의 協調에 五치고 그의 外交形式으로 나타난 것이 韓美相互防衛條約과 韓美通商條約이다. 그러나 韓國은 主權國家로서 亞細亞의 立場과 國際社會의 立場에서 우리의 外交의 基調를 마련해야 한다. 今番 革命政權이 自由世界의 紐帶를 爲하여 大陸各國에 親善使節團을 派遣하였고 또한 韓國과 直接關係國인 日本과 美國에 朴議長一行이 訪問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韓國의 外交의 基調를 爲하여 劃期的 方法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一九五七年十一月五日 美英首腦會談을 하기 爲하여 「와싱턴」으로 急行한 「메이칸」英首相이 美國下院에서 聲明報告한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蘇聯이 「스푸트니크」第一號 發射直後의 會談이었는데 그는 下院에서 「나는 遲疑逡巡하지 않다」 「로서아」 및 蘇聯共産主義의 威脅이 오늘날과 같이 큰적은 없었다. 여기에 對해서 各國은 團結할 必要가 오늘날같이 切迫한적도 없다고 나는 믿는다」고 聲明하고 또한 「美國人은 自國과 같은 大國도 同盟國과一體가 되지않으면 이 세계는 그의 生存을 確保할 수 없으며 結局 그의 擁護하는 理想을 堅持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報告하였다. 이와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主權國家의 自主

獨立、自給自足이라는 思考方式는 時代錯誤이고 自由世界의 各國은 協力과 힘의 分擔과 任務를 가질 必要가 있다. 韓國의 至今까지의 外交基調는 이러한 意味에서 너무나 消極的이었고 孤立的이었고 美國 依主義였다고 본다. 우리는 後進國으로 弱少國으로 自處할 것임이, 自由世界의 分擔을 가지며 그의 任務를 完遂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積極的인 外交施策이 必要하다.

二

韓國의 平和達成은 對內的으로 共產侵略의 威脅의 制止와 經濟五個年計劃의 遂行에 있다. 對外的으로는 韓國의 國際的地位의 向上에 있다. 兩者는 相互有關하며 對內的의 平和의 達成은 對外的 國際的地位의 向上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情勢와 國內事情으로 보아 對內的의 平和의 達成은 韓國의 獨自의 方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形便이며 그것은 自由世界의 紐帶에서만 可能하다. 오늘날 平和라는 것은 世界的 平和라는 理想論에서 아니고 「노벨」平和賞의 受賞者「레스터·피어슨」이 指摘한 것과 같이 各其自國의 方法으로 이루어진 自國自身을 爲한 「平和」이다. 韓國의 平和는 韓國의 立場에서 考察해야 하며 그의 利益의 方針을 發見해야 한다.

韓國의 對外的 施策으로서 考慮되는 것은 自由世界의 各國과의 行動의 協調 亞細亞의 自由諸國과의 防共形成 및 經濟的調整 日本과의 正常의 國交開始 美國의 自給自足의 經濟的 援助의 助成等이다.

韓國은 約三千萬의 人口를 가지며 歷史的 傳統의 主權國家이다. 至今 自由世界의 各國에 比較해서 三分之二以上의 存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韓國은 오늘날 自由世界에 있어서 그의 國威와 發言權이 劣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韓國이 過去 十餘年 동안에 있어서 自由世界와 接觸이 缺如했다는 原因이 있다. 이제 韓國은 좀더 積極的으로 自由世界의 各國과 接觸하여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行動路線을 取할 必要가 있다.

다. 自由世界의 各國과의 共同的 戰線을 取함으로써 韓國의 國際的地位水準을 높여야 한다. 그의 方法으로서 自由世界의 各國과의 正式外交關係의 樹立과 國際聯合의 加入과 自由世界의 各種 國際會議의 積極的參與가 要請된다.

亞細亞地域에 있어서 오늘날 共產國은 어느 때보다도 軍事的 攻勢와 經濟的 攻勢를 敢行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에서 그의 攻勢를 制止한다는 것은 亞細亞各自由國의 共同的 使命이며 그것은 決코 어떤 當面國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다. 그의 直接間接의 攻勢는 亞細亞諸國의 集團의 自衛와 共同的 經濟圈의 形成에서 制止될 수 있다.

그의 方法으로서 韓國이 東亞亞細亞條約機構(SEATO)에 加入하는가 또는 亞細亞自由諸國과의 別個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는 것이다. 그리고 共產國의 經濟的 攻勢를 制止하기 위하여 또는 亞細亞自由諸國의 經濟的 確立을 爲하여 歐洲共同市場과 같은 地域的 經濟協力體를 亞細亞自由諸國에서 가지려는 것이다. 우리는 英國이 今番 自己의 自治領과 諒別하고 歐洲共同市場에 加入하였다는 事實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日本은 亞細亞에서 先進國이며, 우리의 隣邦國이며 韓國과의 歷史的 關係國이다. 이러한 日本이 自由路線을 가지는 限해서 韓國은 그와 正常의 國交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對等的 立場에서 相互協調하는 方向이다. 우리指導者들은 過去의 經驗에서 綿密한 判斷力에서 日本과의 關係를 가진 必要가 있다. 日本과의 國交調整은 韓國의 五個年經濟計劃의 漸次的 成功과 平行하여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고 본다.

美國은 韓國의 現狀의 軍事的 經濟的 立場을 充分히 考慮하여 좀더 積極的인 協調가 要請된다. 韓國의 自由世界에 있어서의 分擔과 任務를 再認識하고 革命以後의 韓國의 意慾을 다시 檢討하여 共產侵略의 威脅을 制止하기에 充分한 軍事的 協力과 經濟五個年計劃의 遂行에 充分한 經濟的 協力이 要請된다. 우리는 그의 協力を 얻기 위하여 對美政策을 敢行해야 한다.

三

一九五七年 美國「아이젠하워」大統領의 年頭一般敎書에서 「共產帝國主義政權은 最近 漸次로 直接武力에 依賴하여 擴張코저 하는 企圖에서는 큰 挫折을 보았다. 그의 結果로 그들은 政治的 支配의 前提로써 特히 새로 開發途上에 있는 諸國의 經濟的 浸透에 크나큰 集中을 開始하였다. 그의 非軍事的 活動을 過少評價하면 그것은 우리의 軍事力에 不拘하고 自由世界는 敗北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의 大部分이 이것을 認定치 않고 或은 認識코지 하지 않는다. 그것의 自衛를 위하여 그의 危險은 漸次로 強化되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우리는 이 敎書를 다시 想起하여 銘心해야 한다. 소聯의 經濟的 攻勢를 制止하기 위하여서는 自由世界의 代表인 美國이 低開發自由國을 積極援助해야 하며 同時에 低開發自由國의 自衛와 相互連結이 必要하다. 英國의 소聯問題通인 「하리·윌슨」은 그의 近著「第三次世界大戰」에서 「새로운 戰場은 貿易과 産業」이라는 別題를 부치고 있는。 소聯의 새로운 經濟宣戰을 指摘하고 있다. 그는 第三次戰을 貿易과 産業의 戰場으로 보고 있다. 이 戰場에서 敗北하면 그의 國家는 經濟적으로 滅亡한다. 이 점에서 代表國은 日本과 英國이다. 그것은 社會主義制度가 資本主義制度를 壓倒하는 것을 意味한다.

美國은 現在 軍事同盟機構를 經濟協調機構로 轉換하고 있는데(NATO SEATO等) 그것을 足하지 않고 自由世界全體의 經濟的 協調를 爲하여 自由世界의 一體의 貿易對策과 産業對策을 確立할 必要가 있다. 自由世界의 軍事的 紐帶에서 經濟的 紐帶로의 轉換은 緊急하다. 韓國도 이 點을 認識하고 于先 五個年經濟計劃을 遂行하며 自由世界의 諸國과의 貿易對策을 構想할 必要가 있다. 韓國의 經濟成長은 決코 自給自足에 있지 않을 것이며 友邦과의 經濟的 協調를 等閑할 수 없다. 우리는 이 點에 있어서 英國과 日本의 過去와 現在의 經濟成長과 貿易對策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

四

現在 韓國은 軍事的으로 美國과 防衛條約을 하
나가지고 通商的으로 美國 比律賓等과의 條約을
가질뿐이고 獨極의인 經濟協調條約은 거의 없다.
이와같은 貧弱한 外交의 基調로서 어떻게 主權國
의 行勢를 할수 있으랴.

于先 韓國은 現狀을 打開하고 國際的地位를 確立
하기 爲하여 自由世界의 各國과 通商友好條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美國이 NATO, SEATO
等에서 取한것과 같이 韓美相互防衛條約中에 經
濟協力에 關한 確固한 規定을 插入하는 것을 勸
告하고 싶다. 또한 上述된바와 같이 亞細亞 自由
諸國과의 全體的 또는 個別的 相互防衛條約을 締
結할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韓國의 國際的協力
이 露呈되며 眞正한 意味에서 韓國의 主權國으로

計劃있는 生活로

오붓한 살림을

梁 在 謨

<生 活>

人間生活中에는 食生活, 衣住生活, 性生活, 社
會生活, 經濟生活, 文化生活, 宗教信仰生活等여
러가지가 있는데, 家族計劃은 이 모든 生活과 不
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가졌다. 이처럼 家族計劃
이 우리 生活의 合理化와 向上을 爲하여 重大한
問題였음에도 불구하고 過去의 政府가 이에 對하
여 無關心 또는 無責任하였기 때문에 國民들의 欲
求는 默殺되어 왔었다. 그러던중 지난 十月十九

日 行勢가 可能하다.

韓國은 三次의 政權을 가졌으며 過去의 無秩序
와 無能腐敗의 政權에서 爲營된 不幸을 가졌었다.
이제 韓國은 再建에 着手하였다. 韓國과 韓民族
의 繁榮의 特惠는 이제 다시 없었다.

今日에 韓國이 要求되는 것은 政府뿐만 아니라
모든 階層의 韓國民이 그의 洞察力과 祖國愛를 徹
底히 가지는 것이다. 政府側으로서 斷乎한 決
意와 圓熟한 外交가 要請되며 또한 國民으로서
勇氣와 責任과 團結이 必要하다. 모든 國家와 國
民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렇게 苦行을
견고 있다는 經驗과 理知의 缺如에 있느냐 責任
과 團結이 없는 까닭이다. 韓國의 平和와 榮光을
爲하여 우리는 다같이 努力할 때가 왔다고 본다.

(筆者 · 東國大學校教授)

國家再建最高會議 朴議長의 家族計劃에 對한
公式聲明을 계기로 지금껏 막아 두었던 水門이 터
진듯 그야말로 三千里江山이 家族計劃의 洪水로
뒤덮히고 말았다. 우리는 軍事革命政府指導者로
에게 感謝하는 同時에 이 水門이 트일때까지 여
러들은 功勞者가 있음을 잊지 않거나 여기에서 特
記할 事實은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कै틀리
主敎團에서 家族計劃을 誤解한 나머지 反對聲明
을 新聞地上에 發表한 것을 除外하고는 어느 한
분도 反對하는 이가 없고 오히려 晩時之嘆으로 모
두다 積極贊成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작 水
門이 터지고 보나 家族計劃에 對한 需要의 洪水
가 大端함에는 새삼스리 놀랄 程度다. 昨年 이맘
때에 國際家族計劃聯盟(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會長과 特別使節 Cadb-
ury氏 內外가 다녀간後 몇 차례의 發起會合을
가진後 今年 봄에 大韓 家族計劃協會(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의 創立總會를
열었을 적만 하여도 參席한 會員은 五十名에 未
達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家族計劃의 一
大旋風이 불었으니 Cadbury氏 內外가 다시와

면 아마 놀랄 것이다.

1, 一九六二년은 重要한 해다.

一九六一年 중에 우리는 家族計劃事業의 터진
단을 잡아 놓았다. 이 터전에 이면 집을 設計하고
세우는나는 純全히 一九六二年에 달렸다. 한편 지
은 집을 마음 안는다고 뜰이 고치기란 힘든는 일
이다. 政府가 어느 程度의 豫算規模로 이 事業에
投資하는나도 一九六二年부터 定해지는 것이고,
政府는 어느 程度로 나서고 民間團體가 어느 程
度로 參與하는나도 一九六二年에 달렸고 앞으로
이 事業의 成否를 左右하는 分水嶺도 一九六二
년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一九六二年에 期待도
크지만은 한편 相當히 조심이 된다. 萬若에 손실
같은 家族計劃의 激流가 그릇된 方向으로 밀쳐나
갈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다.

2, 올바른 家族計劃의 目的과 定義를

日本이 지난 二次大戰 前까지 그 國民들 보고
多産多殖을 鼓吹하다가 終戰後부터는 百八度轉
換하여 人工妊娠中絶까지 包含한 産兒制限을 勸
奨하는 自家撞着에 빠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主
唱하는 家族計劃은 時代條件에 따라 展望정방하
는 것이 아니고 永遠不變하는 目的과 定義를 가져
야 한다. 特히

(가), 家族計劃은 오직 國家의 人口政策이나 經
濟政策을 爲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民
主主義國家에서 國民이 國家目的의 手段이다. 그
러므로 家族計劃도 國民 個人과 各家庭의 福祉
向上을 爲하여 있을진대 國家의 人口政策이나 經
濟政策을 爲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多幸
히도 家族計劃으로 말미암은 個人의 利害와 國家
의 利害는 一致된다. 따라서 어느 便을 爲해서 하
나 利益은 兩便에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는 個人과 家庭을 爲한 것으로 家族計劃을 標榜
했을 때와 國家目的을 爲한 家族計劃으로 標榜했
을 때 間에는 이 事業成否와 否에 顯著한 差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指導者들끼리 모여서 國家政

策을 論할 때를 除外하고 一般 國民大衆에게 對하여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人口密度, 낮은 國民所得, 零細화된 農家の 大家族, 多産少死의 生産性이 낮은 人口型, 3%의 高率의 自然增加가 招來하는 國家資本造成의 遲滯, 社會不安의 增加等에 關한 論議는 될 수 있는데도 避하고 個人家庭의 幸不幸과 家族計劃을 連結시켜서 說明하는 것이 效果의 이다.

(나) 家族計劃은 産兒制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家族計劃과 産兒制限이란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混同은 많은 地域 特別 亞細亞後進地域에서는 實地 父母들의 健康과 經濟能力 및 養育責任能力에 比해서 過分한 많은 子女을 두는 弊端이 甚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近世에 들어서 死亡率의 急激한 低下로 世界人口가 爆發的으로 增加함에 따라서 人口增加의 抑制을 强調한 나머지 産兒制限이란 消極的인 用語가 될 리 퍼지고 말았으나 말은 아주 偏狹하고도 誤解받기 쉬운 用語니 人口政策을 다룰 때 以外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쓰는 게 좋겠다.

其實 우리가 말하는 家族計劃이란 父母各自의 健康狀態와 經濟能力 및 産後의 養育責任等에 알맞게 計劃的으로 家族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計劃事業 內容中에는 結婚問題, 始作의 初産의 時期, 不妊症의 指導 및 治療, 出産의 間隔과 回數, 妊娠의 理想的인 季節, 妊娠中의 營養과 注意, 産兒의 養育等의 母子保健問題가 包含되는 것이지 男여를 一律的으로 子女 몇 명 이상은 낳지 말자든가 아들 몇 명에 딸 몇 명이 좋든가 하는 따위의 産兒制限과는 全然 다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家族計劃은 生活運動이요, 公衆保健運動이라 할 수 있다.

(다) 家族計劃은 人工妊娠中絶(流産)을 避하는 方法으로 未然에 防止하려는 것이다. 家族計劃이 人工妊娠中絶을 手段方法으로 勸誘하는 것처럼 誤解는 誤解가 아니면 中傷謀略이다. 이미 受胎로써 생겨난 生命體를 墮胎시킨다는 일이 道義的으로

좋지 못한은 勿論이요, 母體의 健康을 爲하여서도 有害無得하기 때문에 家族計劃에서는 避妊法으로 願치 않는 妊娠을 未然에 防止하고 그 대신에 一旦 생겨난 生命을 이를 尊重하는 것이다.

一部에서는 이 避妊法使用에 對하여서도 論難이 없지 않다. 그 論難의 첫째는 化學的 또는 機械的인 避妊法을 使用하여 精子나 卵子 같은 生命體를 죽인다는 것은 人工妊娠中絶이나 마찬가지로 罪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精子와 卵子로서 結合되어야 비로써 生命體를 이룩하고 그前에는 生命體가 될 可能性만 가지고 있지 아직 生命體는 아니다. 또 男子가 한번 射精할 時만 하여도 五億에 가까운 많은 精子가 射出되는 것이니 이 無數한 精子를 다 살릴 道理도 없거니와 實地 오랜 禁欲으로 射精하지 않고 둔다 할지라도 그 精子들은 性器內에서 破壞吸收되는 것이다.

둘째의 論難은 性交는 受胎를 爲한 것인데 避妊으로 性享樂만 함은 自然的인 攝理에 背馳된다는 것인데, 이 論難은 人間을 動物의 境遇와 混同한 때문이다. 動物에 있어서는 알 것이 受胎하여야 하지만 人間은 發精(안내)하지 않으며 또 그때가 아니면 交尾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人間에 있어서는 夫婦間의 性交는 반드시 妊娠에만 先行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論難은 避妊法의 普及으로 性道德의 紊亂을 招來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찍이 『페니실링』이 처음으로 導入되었을 적에 그 性病治療에 對한 卓越한 效果는 좋으나 그 結果 性道德이 紊亂해질 것을 憂慮하였으나 오늘날 그것이 杞憂였음이 알려졌다. 間或 食刀를 強盜가 殺人脅迫用으로 誤用한다 해서 모든 부엌에서 食刀를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마찬가지로 性關係는 別途로 다루어질 문제이다. 設或 不義의 性關係에 避妊法이 惡用된다 하더라도 避妊하지 않아서 妊娠된 것을 墮胎시킨으로써 惡이 惡을 낳는 不幸보다도 낫지 않을 까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人工流産도 公公然히 해도 좋은 듯이 錯覺하는 일이 絶對로 없어야 하겠

나한 母體의 健康 또는 社會經濟的 理由로 人工으로라도 그 妊娠을 中絶시킬 妥當性이 認定되는 境遇에는 患者側이나 醫師側이 아니라 다행이 할 수 있도록 陽性化해할 必要가 있다.

3. 官이 直接 一線에 나서는 것은 고려할 문제이다.

家族計劃이야말로 官權이나 命令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特別의 官에 對한 責任이 두렵지 않은 境遇에는 官이 나서면 오히려 反撥의 으로나 을 憂慮도 있다. 現在 우리나라 官이 未聞인 것이 아니라 過去의 官이 未聞이었기 때문이다. 그 餘波가 아직 大衆의 腦裏에서 完全히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의 成果를 爲하여 一線에 나가는 民間團體를 내어세워서 自發的인 民間運動으로서 이 事業을 推進하고 官은 幕後에서 財政的으로 또는 其他方法으로 이를 助하여 주어야 하며, 外國에서도 그렇게 한 나라가 成功하였 고 官이 直接 나서도 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成果를 見우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保健所에서는 極貧救護對象層에 對하여 無償補給 및 指導의 責任을 지고 餘他 國民에 對하여는 民間의 資源과 人材를 動員 參與시키지 않고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4. 좋은 避妊法이 補給되어야 하겠다.

可能하면 國産品을 愛用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그 品質이 優秀하지 못하면 모처럼 家族計劃하려 든 사람이 國産品을 使用하다가 失敗하는 境遇에는 家族計劃全體에 禍가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檢定을 嚴格히 하여야 하며 國産品의 質을 向上시키는 方策으로서도 外來品輸入을 調節해가면서 許容하여야지 無制限 許容도 不可하고 全的禁輸도 不可한을 안다. 只今 日本에서는 呑呑은 初入口는 若干 呑呑구식 卽 尖端 쪽은 直徑이 넓은 成型으로 明年부터 製作해 내는 모양이고, 發泡性避妊錠劑도 루우루(가라지)型으로 된 것을 勸奨하고 있다.

5. 國民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여자로 물먹일 수는 없다. 大家族을 가지게 되는 文化人類學的 要因에는, 多男多福의 思想, 過去 經驗한 社會不安과 高率의 嬰兒死亡率, 아직 도 子女를 낳고 老後의 生活를 保障하려는 所謂 自家保障制度, 自生自足의 人 農村社會經濟生活體制, 너무도 낮은 生活水準과, 教育水準, 宗教 倫理 習慣 等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文化的 因子들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限, 아무리 「당신은 이미 말이다 싶으나」 있는 데 무엇하러 또 더 낳을려고 하는 나? 해도 所用이 없다. 그런데 文化的 改變이란 쉬운 일이 아니요, 一朝一夕에 되는 일도 아니다. 오랫동안 지내온 文化的 特質이란 비록 그것이 남아서 所用되는 것이라도 버리기 아까워 하는 愛着을 가지는 것이 人情이다. 그러므로 指導자들은 國民大衆이 세상에 對한 半信半疑의 躊躇하는 態度를 涼解하고 變更에 對한 苦痛이 있으리라는 것을 理解하는 雅量을 갖고 國民을 對해야 한다.

6. 指導에는 研究와 慎重을 期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겐은 各其 社會經濟 文化的 環境에 따라 무엇이 가장 歡迎반는 避姪法인지 모르고 있다. 만 나라이에서 成功한 方法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歡迎반를 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指導要員도 日本에서 助産員으로서 六三 時間의 資格認定講習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 이들의講習만 받아서 지고 결과 오히려 指導한 能力이 있다고 보겠다는 자疑然이다. 그러므로 研究와 指導는 緊要한 일이다.

『남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은 罪다』 이는 印度의 잔디翁의 말이다. 우리는 一九二二年이 우리 國民들로부터 民主主義 國民으로서 責任을 지는 新生活로서 이 家族計劃을 推進하여 福되고 明朗하고 潤澤한 家庭生活를 이룩할 것을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筆者 · 醫學博士 延大教授)

空軍美術展을 보고 박世元

지난 가을 中央公報館에서 發表된 空軍美術展은 建軍以來로 처음 試圖된 조그마한 展覽會였으나 比較的 質의 優秀한 作品들이 觀衆의 注意를 引은 點心을 놓아 三ヶ 成功하였다. 軍에 直接의 關係로 士兵의 美術活動을 支援育成하고 있다는 點에서 事實은 空軍 밖에도 屢次에 걸친 海兵隊의 美術展의 의의가 實證되고 있는 바이다. 回數가 거듭되고 實證되고 있는 바이다. 技巧方面에 있어서 슬기롭게 向上하는 過程을 볼 때 마다 있는 感銘을 받게 되었다.

多事 製作한 軍務의 餘暇를 틈타서 보람 있는 作品들이 製作되고 同時에 그것이 對外的으로 公開되어 수다한 觀客의 心眼을 갖기 刺戟해 줄 수 있었다. 만 그 기쁨은 唯獨 軍自體만의 慶事로서 그 性質의 純은 아닌 것이다. 하나의 作品을 造型할 境遇 第三者의 立場에서 傍觀한다면 매우 容易할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을 것 처럼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상 作品을 創作하고 다루는 作家에게는 恒時적 지양은 奧惱 苦悶 그리고 忍耐과 努力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陳腐의 過程을 남달리 많이 겪은 作品일수록 觀者는 그것에 對하여 더욱 親密感을 가진 수 있고 또 거기서 發散하는 作家의 個性과 人格까지 感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空軍美術展의 한결같이 위대한 諸惡條件을 무릅써 克服하고 刷新한 무엇이든 對하여 적지 않게 摸索한 자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予 先示揚의 功에서 東洋諸事政 金元世君은 墨梅 黑竹에 爛然하며서도 自由奔放한 運筆을 驅使하여 溫和하게 마련된 空氣를 透한 美을 巧하게 醜成해 놓았다. 이미 入隊하기 直前美大學生展에 出品하여 榮譽의 大學院長賞을 獲得한 바 있는 金君의 이번 作品에서는 過去의 平凡한 技法을 果敢하게 脫皮하려는 意欲이 엿보인다. 특히 墨梅에서 水墨만이 가질 수 있는 鐵鎚法을 要領이게 料理한 솜씨가 率直廣大에서 더욱 좋다. 다만 感이 좀더 作者自身이 지니는 程度로 陶醉의 技巧方面에 價廉한 點이라

할가, 자칫하면 傲慢해지기 쉬운 技術本位의 官能의 陷穽에 빠지지 않도록 留意해 주었으면 한다. 展示 作品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水彩畫에서는 大體로 三人이 特長을 驅使하여 있기 때문에 뚜렷한 作家의 個性을 찾아보기 어렵다. 水彩本然의 生命인 筆致의 妙味를 作品마다 適切하게 써서 新奇한 效果를 얻어내는 하였으나 不透明한 水彩의 色調訓練이 缺乏되어 2 컬러, 3 컬러, 4 컬러로 統一性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보라 強烈한 作家의 個性이 表現될 수 있도록 可能하다면 陳腐한 色갈은 除去하거나 避해 보면 된다.

조희도君的의 油畫「극로개밭지」는 既成作家의 技能을 充分히 演習하고도 남음이 있을 作品이다. 去年 韓國美術家協會 公募展에 應募하여 特賞을 차지한 조君은 이번 作品에서 力의 活潑하고 沈着性 있는 色의 調和와 터치를 驅使하여 成功하고 있다. G. A. S. 然 構成을 試圖한다는 것은 平凡한 努力만으로 成사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寫實과 抽象 사이에 介在하는 半抽象이란 異質의 問題를 다루는 技藝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似而非의 인 作品이 나오기 알맞은 緣故이다.

조君은 特別히 點에 注意하여 製作에 더욱 苦悶하고 思索하며 밀고 나가는 자기가 바란다. 면으로서의 宣傳力을 誇示한 作品이다. 어떤 密하게 連結시킨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그것은 단들 아닌 宣傳의 強大한 威力를 띠고 있다. 문란 아니라 軍의 規律 權威을 더욱 能率的이고 効果있게 宣揚시킬 수 있는 하나의 武器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의 展示된 金君의 포스터는 아직 未熟한 陳腐의 作品이라고는 하나 그것의 軍軍의 先驅의 役割을 하고 있다는 데 그 뜻을 通해가 있어 한결간 觀衆 亦是 이 또 認識하였. 그리고 믿는다.

(筆者 · 東洋畫家)

飛躍의 土臺를 마련



<經濟界>

金 孝 祿

多事多難하였던 辛丑年도 거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過去一年間의 우리나라 政治界의 急激한 變革에 對하여는 別般言及코자 하지 않는바이나 政治的 變革에 따라 생기게된 經濟界의 變動도 決코저지 않다. 些少한 것은 제쳐놓고 國民들의 耳目을 集中케한 큰 事實 몇가지만 들추어 보진대 첫째로 財主黨政府가 有耶無耶로 물러가고하던 不正當財者에 對한 處理問題는 軍事革命政府에 依하여 電光石火의 으로 調查處理가 終結되었으며 말세만 일으키고 있던 電力三社의 統合도 完成되어 韓國電力會社는 誕生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韓國經濟의 絕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農民들의 生活安定과 購買力增進을 위한 方策으로서 農漁村의 高利債整理, 營農資金의 放出米穀買上策等은 順調로 進行되어 窮乏生活를 免치 못하던 農民들에게도 안락의 布望을 주는 좋은 刺戟劑가 되게 되었다. 셋째로는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을 制定實施함으로써 至今까지 서울을 爲始한 各都市에서 氾濫하던 PX商品乃至 密輸入品은 거의 完璧에 가까울 정도로

掃하게 되었으며 이와 예를 같이 하여 放出된 中小企業資金은 우리나라 中小企業으로 하여금 活路를 開拓케 하는 淸涼劑가 되게 되었다. 네째는 大規模의 國土建設事業의 果敢한 實踐은 수많은 浮動勞務者들에게 一時的이나마 일터를 供給함으로써 生活安定을 圖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었다. 이 밖에 革命政府에 依하여 過去半個年 동안 實踐되었으며 많은 成果를 올린 經濟政策은 決코 저지 않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國民들의 많은 關心과 期待를 갖게하는 經濟政策중의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第一次五個年經濟開發을 위한 計劃案의 完成일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當局으로서 는 이 計劃의 完全한 成功을 기우기 위하여 必死的인 努力을 하고 있으며 民間企業家들도 政府의 이와같은 計劃에 積極協力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丁商工部長官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使節團을 歐羅巴 自由陣營各國에 派遣하여 外資獲得에 熱中하고 있으며 民間經濟使節團도 同時에 派遣되어 政府의 努力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朴正熙 最高會議議長은 自身이 直接美 凱네디 大統領과 日本池田首相의 招請을 受諾하고 그를 兩巨頭會談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經濟援助에 關한 多大한 成果를 거두게 되었다고 新聞에 報道하고 있다.

위에서 적은 몇가지의 事實만 보더라도 革命政府가 比較的의 短時日임에도 不拘하고 經濟發展을 위하여 傾注한 努力과 그 成果가 決코 저지않은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經濟에 關한 政策을 決定하며 그것을 實踐하는 것은 다른 것 과 달라서 그 效果가 一朝一夕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여러가지 副作用으로 말미암은 混亂을惹起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自立經濟의 確立은 우리民族의 至上課題로 되어 있으며 이 宿願을 達成하기 위한 第一次五個年經濟開發計劃은 明年一月을 期하여 實踐段階에 突入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重大한 局面에 當到하고 있는만큼 虛心坦懷 및 마디의 私見을 開陳함으로써 目標達成의 一助가 되어 불기 바란다.

첫째로 經濟計劃이란 容易한 일이지 아니지마는 더군다나 長期에 걸친 計劃에 있어 所期의 成果를 거두기 위하여는 그 計劃의 科學的 基礎위에 서立案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科學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數字에 根據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인데 過去의 經驗을 미루어 보진대 大體로 우리나라 國民들은 數字에 對한 觀念이 文明諸國의 國民들에 비하여 매우 薄弱한 듯하다. 普通 우리나라에는 「適當의」라는 말이 適用되고 있으나 적어도 어떤 計劃을 樹立하는 데 있어 適當主義를 採擇한다고 하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不聞可知的 事實이다. 過去 우리 政府나 民間企業家들이 가장 疎忽히 하여 온 것중에 하나는 調查資料의 蒐集인데 이와같은 事實은 우리나라의 經濟를 이모양 이꼴로 만든 甚한 重要한 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명한 計劃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初年度의 豫算에 있어서 는 調查費의 項目이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될까 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爲政者들이나 企業家의 大部分은 先資本 後經營의 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나 資本과 經營은 併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오히려 先經營 後資本이 아니라 된다.

過去 우리나라의 實情이 赤裸裸하게 表現하면 韓國은 獨立以後二十年이 經過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自立하여 보겠다는 生機보다는 오히려 美國의 援助가 不足하였다고 타하는 것이 事實

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西獨에 있어서는 이와 正反對의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即 西獨에 있어서는 歐戰以後 廢墟化된 國土를 再建復興함에 있어 外國援助 期待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資本家나 勞動者는 合心하여 荒廢한 工場敷地를 整理하는 利便한 方法을 講究하며 이것으로써 商品生産에着手하고 製品的 販路開拓을 꾀하는 데 全力을 傾注하였다. 이러한 販路開拓을 註文이 漸次 많아짐에 따라 工場의 規模도 漸次擴大되는 同時에 새로운 機械도 이와 步調를 같이 하여 設備된 것이다. 資本의 浪費란 찾아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必要한 資本도 他人資本에 依存하지 아니 보다는 自己資本에 맡기는 資本으로 始作하고 거기에서 蓄積되는 資本으로 工場規模의 擴大를 圖謀하였을 뿐 아니라 政府도 資本蓄積에 對하여는 免稅等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오늘의 復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現實은 어떠한가. 言必稱 資本의 不足이며 外援의 懇請, 借款의 交涉이 政府의 對外經濟政策의 大部分이며, I.C.A.F의 拂下, 銀行으로부터의 巨額貸付를 받는 것이 企業家들의 唯一한 經營方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機械設備을 完了하고도 稼動하지 못하는 工場의 數를 增加시켰고 巨額의 銀行貸付를 받은 企業體일수록 그 經營이 不健全하여 貸付를 繼續支給치 않으니 그 運營이 困難한 地境에 이르러진 것이다. 建國以後 美國으로부터 받은 援助만 하더라도 無慮三十億弗이라고 하는데 現在自己 資本만으로 能히 經營을 繼續하여 나아갈 수 있는 企業體의 數는 果然 몇 개인 되는가. 우리나라 大企業體의 資本構成에 있어 自己資本이 平均 〇·九%에 不過하다고 하니 어찌고서야 어찌 産業의 發達을 期待할 수 있으리오. 年前 우리

이런가를 살펴볼때에 한마디로 설명해서 改編期였다고 말할 수 있다.



<文化界>

白鐵

劃期的 整理와 改編

五·一六의 革命을 하나의 基準으로 삼고 그 뒤의 進行된 文化界의 動態가 무엇

나라를 訪問하고 간 西獨經濟相 일할트教授는 外 援을 바라는 나라에는 經濟復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于先 必要한 것은 資本도 資本이 아니라 이보다 더욱 必要한 것은 經營을 合理化하여 적은 額數라도 蓄積을 함으로써 自己資本을 形成하는데 官民은 合心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 글로 한마디 할 것은 資金政策에 對한 問題이다. 우리나라의 爲政當局者나 企業家들의 傳統的인 思考方式은 어떻게 하면 縱業員들의 資金을 減下시킬 것인지, 生産費를 낮추어 볼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思考方式은 結果의 爲 生産의 能率을 低下시킬 뿐 아니라 産業發展을 阻害하는 데 큰 原動力이 된다는 것을 忘却하여서는 아니 된다. 資本家의 樣式의 生産에 있어서는 物 品生産 그 自體에 目標이 있는 것이 아니라 生 産된 物品을 商品化하여 市場에 供給하며 供給된 商品이 消費者의 所有인 貨幣와 交換되어 生 産者의 手中에 還元함으로써 再生産은 可能한

同時에 生産의 擴大도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發展에 있어 가장 큰 原動力이 되는 것은 一般消費者들의 購買力이며 豊富한 消費者들의 買力을 土臺로 하지 않고 産業의 發展만 을 期待하는 것은 結局 緣木求魚에 不過한 것이 다. 西獨의 復興이며 美國의 繁榮은 決코 偶然한 것이 아니라 爲政當局者들이나 企業家들이 이와 같은 眞理를 理解하고 適切한 資金政策을 採擇함으로써 一般縱業員들의 購買力을 豊富케 하였을 뿐 아니라 勞務者들의 能率을 極大限으로 向上케 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赤字 經營을 繼續하면서까지 高資金을 支拂할 必要는 없었으나 黑字 經營이 可能한 企業體에까지 低資金의 支拂을 強要하는 것은 決코 賢明한 政 策이라고는 할 수 없다. 頭緒없는 말을 橫說野說하여 大端罪悚하나 우리나라 自立經濟를 樹立하는데 있어 多少 參考가 되던 多幸이겠다. (筆者·高大教授)

그 改編을 何한 方向이라던가 進度에 대하여는 결국 革命 뒤의 政府當局이 내놓은 革命公約 과 그 實踐計劃으로서 建設의 五個年計劃의 發表 그 實績의 成績등과 전주에서 理解되고 計 算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런 關係에 서 볼때에 그동안 實際의 建設의 方面에서는 벌써 注目되는 成績이 數字의 方面에서는 눈에 띄이는데 그 實際의 成績表와 비교하여 文化界의 進度에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보아서 遜 色이 있다고 느껴진다. 文化界의 움직임이 實際 的인 方面의 ம்ப포를 占할 수 없는 데는 實은 兩者의 性質의 큰 差異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 進 度에 距離가 생겨서는 不得已한 사실이기 도 하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相互理解하는데 힘 써야 할 것이다. 即 文化藝術이라고 하면 그것 이 다른 實際性的인 行政分野와 달라서 가령 같은 行政性으로써 그 施策에 응용한다 하더라도

새 世代歷史의 第一章

尹宗鉉



<사 회>

一九六一年의 사회
도 세월의 바다속으로 흘러간다. 신념이나 「메모」를 간추려 지난 일을 더듬어 보

는 동안 「카렌다」의 끝장이라도 남겨두고 쓴 것을 가눌 수 없는 한해였다. 울어도 시원스럽지 않았던 五·一六전의 안타까움이나 불안, 혼미 그리고 十五년간의 모든 때와 악과 폐를 벗는다고 보던 혁명후의 정열의 유적 등상등..... 이런 잠적속에 어느덧 사람과 제도가 달라져 가고 세대대역사의 제1장은 넘어갔다. 혼미수에서 질서와 방향을 찾아 새사회건설의 초지(素地)를 닦아놓고—

이제 혁명의 고동과 재건의 맥박소리를 똑똑히 들으면서 새해 일주에 다아서서 역사의 호흡을 느낀다.

X X X
조하루날 지면(紙面)부터 「메모」폭력에 관한 뉴스가 실렸다. 청원(淸原)에서 四十七명의 부랑(浮浪)나 변학자가 그곳 요양소를 습격,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요양소를 점령키 위해서였다. 진주(全州)에선 三백명의 신민당원이 도지사선거 부정구탄 「메모」를 일으켰다. 두 사건은 모두 지난해 그믐날 하오의 일이다. 그후잔은 「메모」는 새해 四일부터 민선지사취임거부운동 「메모」로 발전, 『올해에도 또 메모만

분分野에서 처럼 手段과 尺度를 機械的으로 서는 그것이 本質的으로 合理的으로 改編成長 되는 일과 矛盾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는 예산에 넘으면서 항상 文化藝術이란 그 自體의 本性과 過去의 秩序를 더 존중해서 그 自身의 自發의 文化藝術運動을 推進시키는 方法論的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今年度 文化界의 동태를 그런 施策面과 관련해 볼때에 方法論的인 意味에서 理解도 弱하고 尺度도 좀 어긋나서 도리혀 混亂과 沈滯같은 것의 副作用을 일으킨 傾向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現象도 눈에 띄는 것이다.

그 文化界라는 범위를 더 擴大해서 가령 文化 施策과 大學敎育制度의 改編같은 것을 한 例로 취해 본다면 먼저 文敎當局이 한 施策의 意圖는 同方面의 종래의 不正 不合理을 除去克服하는 데서 극히 正當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大學에 對한 이야기 보다는 文化的인 것, 그 중에서 文學藝術의 分野에서 그 動態를 概觀하는 것이 더 主要部分을 차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우선 그 行政施策面에서 보면 이번 革命政府이 軍公報部를 두고 文化宣傳局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今年 文化界에 대한 커다란 布石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으로서 革命政府은 過去의 政府들과 달라져 文化育成과 그 宣傳에 커다란 意思表示를 한 것이 되며 또 公報當局에서도 이런 文化行政機關을 통하여 특히 우리 文化藝術의 海外宣傳에 主力한다는 發言을 하기도 한 것이다.

또 그 限에서는 벌써 一部 成績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지난 世界詩人大會에 韓國代表가 나갈때에 韓國現代詩英譯集을 만들어 가지고 참석을 하여 우리 現代詩의 海外宣傳을 한 점, 또는 이번 年을 벌써에서 韓國短篇小說英譯集을 刊行하게 되어 近間에 海外의 主要한 文化機關으로 配布를 하게 된 것 등이다. 이런 民間的인 것들이 文化機關의 作品翻譯의 出版이 可能하게 된 것은 결국 文化宣傳局들이 생겨져서 그런 出

版의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今年度の 成果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 施策面에서 文化界를 向하여 크게 던진 指示는 이 機會에 文化藝術界를 우선 外形機構上에서 統合시켜 본다는 試圖였다. 고 본다. 이 試圖도 基本的으로 重大하기도 하기도 그다지 過去의 不正한 側面을 除去하는 뜻도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서는 먼저 말한바 文化藝術界의 미묘한 特質과 사정이 介在되어 하루아침에 急한 變態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公報部가 中心이 되어 二次나 文化藝術의 各分野人을 招請하고 그 자리에 政府의 責任者까지 參席을 하여 民間人들과 歡談하는 機會을 마련한 것들은 文化藝術界의 統合의 인 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契機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政府當局이 文化藝術界의 사람들을 待遇한다는 일이 커다란 心理的인 感情的인 親和感을 이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今年度 下半期의 文化界의 動態를 본다면 以上과 같은 일들이 契機로 되어 그들이 統合의 實績과 나타나고 그 方向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잊지 않은가 느껴진다. 가령 音樂人들이 全國의 人 統合을 보아 그 協會가 新生된 것도 한 例가 되고 또 文學界로서도 아직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主要한 사람들의 發意로서 온갖 既成文學團體를 解散하고 全國의 文學團體를 구성하려는 動議가 再請과 滿場一致를 기다리고 있는 待機狀態가 아닌가 보는 것이다. 그 主要한 흔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十一月中旬에 全國文學人의 이 유으로서 소련의 核實驗에 대한 反對聲明을 낸 사실이다. 결국 文學人, 藝術人의 統合이란 것은 어떤 口頭形式으로 규약이 되는 것보다 좀더 文化的인 意味를 띤 行動性을 통하는 것이 本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서 文化界의 동태와 결산을 보다는 것은 결국 文學藝術의 作品의 인 行爲를 계산하는 일

하러는 것 같다.」는 「그 점을 주었다. 시민들의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넘어와 정초부터 모든 것이 무관심하라는 경향이 있다. 이때문에 구랍二十九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과 자도지사 선거는 투표율이 불과 삼十八·二%, 그중에서도 서울은二〇·七% 밖에 안되는 오점을 찍고 말았다. 확실히 영하十六도의 날씨와 함께 싸늘한 가슴그리고 나라살림에 무관심하라는 등 四월혁명의 기백을 잊고 제 二공화국 새살림의 의무마저 식힌 채 제각각의 중소리들을 거처온 새해였다.

그런데도 당시자들은 「레모」에 열중이다. 대중과 호응을 같이 못하는 「레모」에 「레모」하는 사람들을 커리만 흥분하는 「레모」가 五월十六일 상오순사형면위원회 포고 제一호로써 유내의 모든 집회가 임금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四월혁명 후 과정(過政) 때부터 五·一六까지 一년 二十일간에 정란, 노련(勞聯), 학교, 종교문화 및 교원 기타 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시위수는 一천九백四十四 참가인원 一백삼만八천六十三명에 달했으니 우리는 하루평균 다섯번 정도의 「레모」나 집회속에 묻혀 살았던 것이다.

이러니 「레모」를 규정하는 일이다. 시민생활의 한 「스케틀」이었다. 꽃을, 동심, 연화 「지그자그」 레모의 예 나체(裸體) 레모 (一월七日) 서울신업자협회원들이 기도(小년레모)(三월三日) 七세부터 十五세 소년들이 부산서 삼삼내리라고) 등.....

지반선 거부정신을 규탄하면 대이여 「레모」의 꼬리를 질러준 것은 물가파동의 위기 때문이었다. 보릿고개 정란기에 부닥쳐 출회량이 부족할 때다가 관영요금인상과 환율변경(一월一일) 一천대, 二월二일) 一천三백파)로 단말화(의)의 작구으로 一월중순부터 쌀값과 팔라값 일용품값의 뛰어 살안가마의 二단환을 훔가(賈)라고 되었다. 쌀을 달라, 직장을 달라, 쌀값을 내게를 달라고 치는 「레모」가 대구 서울 부산에서 고개를 들었고 二월초부터는 철강문제에 심각하게 사외면의 「트르츠」인 된 되었다. 그러나 이런 함수림의 호

아 될터인데 우선 今年는 政府의 施策과 아울러 外貌의 變化는 컸다고 보는 대신 作品의 成果로서 二實績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現實의 安定이 되지않은 사실과 대조할 때에 作品의 成績이 例年보다 특이 低下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가령 文藝分野에서만 해도 「現代文學」「自由文學」의 文藝誌 또는 「思想界와 同誌에서 내는 文藝特輯의 別冊이나 오는 등 文壇지널리즘도 비교적 活氣를 지수한 편이며 거기 따르는 作品의 量도 상당히 높도 作品의 質에서도 특이 新人들의 中篇中에서 注目 作品들이 저지양계 產出된 것으로 보이다. 또 하나는 지난 國展의 作品實績인데 내 개인으로서는 不幸히 國展을 보는 機會를 놓쳐 버렸으나 一般輿論이나 時評을 通해보면 既成의

소나 고원들의 보진수당, 八군노무자의 행정법 정제법 및 노임인상, 전업(電業)종업원의 三사 통합 반대 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이 순한 편이었다. 이런 「레모」기세를 이용하여 二월하순 대구, 부산 등지에서 터져서 시작된 정란반대 「레모」와 二대법(반공법, 레모규제법) 제정반대 「레모」는 완전히 정치성을 띠고 서술이 틀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레모」는 곧 경찰과 총을 야기 하기도 한 반사적으로 용공규탄 「레모」를 유발 시키고 말았다. 「레모」만능관 「레모」대 「레모」의 대결(對決)이 일어난다는 살벌한 적전 감각도 했다. 그중 三월二十二일 혁신계 정란 단체가 서울에서 열린 二대법 반대 대성도대의 연장 「레모」는 지난 해의 가장 난동스러운 「레모」였다.

「레모」로 용기일부 청년들은 해산선언을 들지 않고 당시의 국무총리실으로 발자리를 옮겨가 되돌고 말았다. 「레모」는 「레모」로 정란 四十一명부상, 민간차대 파손의 예 「레모」대 「레모」九명이 그날 저녁으로 집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레도 관공들은 방관한 파벌이었다. 그후

作品과 前衛派의 作品들이 각각 좋은 水準을 보이고 對照도 있어서 今年 國展의 成果는 評判이 컸다고 알고 있다. 이런 예등은 今年의 文化藝術界가 外部의 變動期였음에不拘하고 作品의 活動도 弱화되지않은 사실이 反證된 것이라 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本質의 今年度의 文化界를 回顧 評價한다면 처음 말한바와 같이 하나의 改編期 또는 하나의 轉換期인데 이것은 今後 새로운 現實이 더 進行되고 政治가 더 安定性을 얻으며 經濟의 建設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條件과 함께 참된 作品의 實績은 이제 부러가 注目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今年度 下半年의 일을 가지고 文化界의 동태를 速隨하지 말고 今後에 오는 움직임에 더 期待할 것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말이다.

〈筆者 · 文學評論家〉

꼭같은 성격의 「레모」가 二十四·五일 대구 부산의 소리와 함께 세칭 「四월위기의」 서곡같은 감이 들게도 했다.

四월위기의 근거는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었다. 소문으로는 「三·四월위기의 실」 「四월 폭동 실」이라고도 떠돌아 二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아」드바론 「같이」도 했고 四월혁명 「주」변을 탓으며 있어 혁명 뒷수습을 잘 못한 까닭의 불평이 라고도 사외의 혼란이 성장되어 또 반정 폭동이 라고도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구실과 추후 이 글이 저 떠돌은 것 같았다. 「레모」나 빈곤의 의도 위기실의 배경이 된 사회사라는 이 지리라는 대로 지적받은 것이었다.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요구하는 파업도 찾아졌다. 철도(鐵道)의 통신판 「시간 파업」(一월二七日) 「부부노조」(一월十六일 부산), 부산지구 등 은 七개점포 은행노조의 첫 파업(三월三日) 단체 계약 체결 요구, 석탄노조(五월五日) 「스트」등 은 六·二五사변 이후 처음 보는 큰 규모였다.

果敢한 再整備

鄭 泰 時



<教育界>

▲吳文敎의 遇福

一九六〇년 九월 日 주당 내각의 문교장관으로 吳天錫 박사가 취임하였을 때 당시 국 내의 교육계는 쌍수를 들이 환영하였었다. 그가 정당인이 아니므로 교육의 중립성을 전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가 교육전문가이므로 교육 우선의 정책을 확립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임 九개월 동안, 퇴임직전에 「향토학교」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어 걸었음은 이렇다할 문교시책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면초가 속의 처형명령을 피할 안일하고 정쟁상대의 尹宅重 정부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吳文敎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민주당 내각의 약체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국회의 분열 대립과 기형적인 정부차관제도는 吳文敎의 수족을 완전한 절박하여 놓고 말았다. 그의 우유부단한 문교시책이 어떻고 그의 교원노조대책이 어떻고 그를 요기서 지적할 만할 나위가 없다. 문교행정면의 있어서도 현행은 오지 않을 수 없는 막대한 골부채의 적면하고 있었었던 것이다.

▲革命文敎政綱 五·一六근사현행은 무우와 부패의 심본이던 장면내각의 문교행정에도 일파를 일으키고 있다. 文照與 문교장관인 최인직 후료현행문교정책을 명백히 제시하는 데 이것은

문교행정의 현명공약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 오장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간접 장학의 분배
 - 가, 방공 및 구강교육의 철저
 - 나, 학원의 부패를 일소한다
 - 다, 학원의 분규를 근절한다
- 二, 인간 개조
 - 가, 정신 혁명
 - 나, 교육 혁명
 - 다, 교육행정의 혁신
- 三, 빈곤 타파
 - 가, 생산 기술 과학 교육의 강화
 - 나, 향토 및의 무교유의 실질적 강화
 - 다, 교육제도 도입의 강화
- 四, 문화 혁신
 - 가,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 나, 새로운 문화기구
 - 다, 국제문화 교류의 강화
- ▲國家考査制 七月 十五일 문교부는 획기적인 각급학교의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즉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 一, 국가 공동체제도를 명백히 국민학교와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 二, 학생 거주지 관할의 특별시 또는 도내의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케 하여 지방학교의 유성을 촉진하고
 - 三, 필답교사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전과
 - 四, 전체 전과를 숙신하고
 - 五,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체능검사를 점수화 하여 체위향상을 기한다는 것이다.
- 대학에 있어서도 국가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원자의 한하여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고 그 수자는 대학전원의 一〇〇%로 한정하고 대학의 질적 향상과 학원보리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중학교 입시회 있어서 八·一%가 찬성을 하고 있어

학원의 분규는 공사립을 막론고 그칠 줄 모르 고 치안력의 약화를 틈타 장려법과 폭력배들이 백조에도 날뛰었다. 정초十一일만에 서울 시내에서 三十七건의 장려법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잡은 것은 十一건 뿐이었다. 四월형명우 한파의 속했던 양담배를, 관용차 사용(私用), 맨스바 람도 되살아나 四월二十三일밤 서울 시내 일부 「카바페」와 「아르바이트·맨스홀」에서 주부 一四四名을 포함한 총마담우 二, 五二四名이 처박 되었었다. 사이비인문기관이 골무마다 간판을 대걸고 정향자처 행패를 부려 「공관기자 불타 가라」 「페도」까지 일어났고 결사의 자유를 얻 어 생긴 二六六개의 정당 사회단체 중 활동보고 를 한 것은 二二三% 정도였다.

정부의 부패상도 자유당내에 진배없을 정도 같았다. 「중서 부정부탁판대계약사건을 둘러싼 「코릿손」 수취설과 여당국회의원들 커피의 인색들은 이맛살이 찌푸러진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에도 정치자금과 부정대부를 장유했다느니 돈보파리와 「메」으로 인사가 파우른다느니 추 문이 연거부 터져 나간다. 「그놈이 그놈」이란 실 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리도 도도도 사회정의의 도이제는 교과서에서 나 볼 수 있는 구절(句節)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四월형명우 주도했던 학생들은 초비 판적인 눈을 갖게 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레지스틴스」를 보였다. 『가성세대는 물러가라』

결망과 부패— 그속에 허덕이는 사회 환경은 치 안력의 약화와 더불어 四월형명우의 고개는 혁신 및 응용세력을 무성케 팽창시켰다. 六·二五파 부패으로 처단된자의 유족들이 오히려 양 민을 학살했다 『교 자에서 별뿔처럼 들끓고 인 의 있다. 四·一九사 五·一六까지 一년간에 혁신 및 응용세력은 「페도」 二二七회, 집회 六八一 회, 불순파 二二三, 七七五장, 피라 一, 五一八, 八〇〇장을 내들이는 활동상을 보였다. 집회나

대학입시에 있어서는 七四·三%가 찬성하고 있다. 실지로 중학교 입학원서마감의 결과로서 올시에 있어서 중대와 같은 일류교실층의 경향이 완화된 것 같아 가장 높은 학교가 一·八대이며 정원 미달교도 六八개교에 달하고 있어서 새로운 제도가 입학지역해소에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에서는 五년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그의 뒷받침으로 국민학교 유급교장의 제정 교원순환근무제도의 이행등 학교자를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다.

▲臨時特例法 九月二日 문교부는 교유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공포하고 교유제의 저지않은 중점을 주었다. 全文(二二조) 및 부칙으로 된 이 특별법은 국민교유의 정상화 질서를 확립하고 유급교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유법 및 교유규정(원본)과 기타의 법령의 대한 특별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문교부장관위원회의 설치
- 二, 학교학과 정원등의 정비
- 三, 학교의 換置
- 四, 의무교육시설 예정지의 확보
- 五, 학종장 및 교수 임명에 있어서의 교수회(인준)의 설치
- 六,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적 행동의 금지
- 七, 교원 정년의 인하(六五세로부터 六十세로)
- 八, 교장제의 정비
- 九,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
- 〇, 학사학위의 국가판리제

▲大學敎育의 整備 九月五日 문교부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의 정비절차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면 서울 공주 대구 교육대학원을 설치하고 서울 문리과학대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의 각 사립대학은 가정과 체

육과 생물과 사회생활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폐지하게 되었다. 기타 대학의 폐합도 광범하게 취급이 되었다. 또한 이보다 두달 늦게 一一월 一八일 사립대학 정비안이 발표되었다.

▲停年六〇歲로 限下 임시특별에 의하여 九月三〇일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四一五명 대학교에서 九四명이라는 다수의 원로 교유자가 일제히 교단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일간 자신들에서는 정년의 인하가 반드시 혁명문교의 도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우한 교유자의 말로 동정하였으며 문교부에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敎育行政機構改編 정부조직개혁에 따라 문교부의 직제가 학부 학교관리문의 체육의 四局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구도 대폭 개편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의 교육국 군의 교육과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가 부활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대의 교육위원회의 구상을 회상할 때에 이러한 정도는 행정기구가 나뉘어진 것은 혁명정부가 교유의 자주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激動하는 敎員團體 四·一九 이후 무법천지가 되면 교원노조는 간부 다수가 구속 되고 또는 해임됨으로서 완전하게 해체되고 말았다. 교원노조와 대항해서 민주주의 교유를 추호하지 못한 대한교원은 사회단체법원의 한 동족을 완료하였으므로 교육전문지「새한신문」, 청소년을 위한「아미네」주간지를 세로이 발족시켰으며 세계교유연합회의 아시아상임이사국으로서 민간의교를 통한 한국 유엔가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筆者) 大韓敎聯事務局長

사회의 기회를 포착해선「영세 중립동일」과「남부교류」를 선포하고 일부 감수성이 예리한 학생층에 침투하여 五月五日 민족통일학생연맹(가칭)의 이름으로 남부학생회담을 五月중 관문집에서 열것을 제창해 하였었다.

구토동일방안으로서 영세중립과 남부교류를 내세운 혁신 및 융화계열은 그후 왕중지대내 우체국설치, 남북 서신교환, 경제 및 문화교류, 언론인 문화예술인의 상호방문, 남북혼합체육팀의 구성등 분별없는 선전선동운 계속하였고 일부 지식인과 보수적계열을 포함한 정계 일각에서도 사선(私線)으로 이런 사조를 따르며 사회의 총체과 불안을 조장했다.

그들 주장대로 하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때문의 六·二五때 싸웠는지 반공전의 윤리와 참전 유방에 대한 신의는 불타 버려지고 이따가가는 용공동일의 합정질을 절충적 같은 근심들이 들었다. 전체조직이 성숙되지 못한 남북교류는 신용(勝共) 불신을 가져오기 일쑤다. 편한 사실은 곧 이 무실하고 정무나 자유민이 반대하는 남북회담을「강행이라」 하겠다는 강경한 동향—그속에 간첩침략의 마수가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 이물속에「뉴크」를 하는 것같은 공포와 불안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길은 어디로 가게 되려는지— 자유민의 사회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사회는 혼미(混迷)속에 방향을 잃었었다.

학생들의 피를 흘리며서 혁명을 해준지 一년도 되지전부터 이런 현실의 부대들이 이유는 四원현병의 광활을 잃은 까닭에서 연장되는 것 같다. 학생들의 적수공권으로 투쟁정권이 무너졌으니 혁명주체와 적수공권을 말아줄 주체는 다름이 없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① 불씨는 이따가 임명된 과징(過政)이 뒷수습을 했고

② 제 二공화국의 헌법을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모순된 처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과징의 선거 판리민의 七·二九 총선을 치르고 5대

국회가 소집되어 민주당 정부는 설치된 일부터 유당계의 세력도 진출하여 三·一五 부정선거 관련자나 발포사건 관련자 부정축재자들의 처리는 지지 부진하였다. 이에 분개한 일부 군중이 국회에 뛰어드는 사태가 발생되므로 비로소 특별법이 제정되던 六一년 一월 특채와 특정이 발족되었으나 공소 시효일인 二月二十八일까지 五九三건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도합(二十四건)三十一명만을 특채에 회부요「四·一九」一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四월十五일과 十七일에 잔실히 첫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공민권제한문제는 자동「케이 스」해당자 六三〇명 정도를 처리하고 심사「케이 스」는 결말을 못본 채 五·一六 혁명을 맞게 되었다.

특채에 항거했던 四월혁명의 뒷처리라 이처럼 모순되고 부실하였던 역사적 과오에서 부패와 무능이 그대로 연장되어 정치정계의 방향과 함께 사회도 전진의 지표를 잃게 된 것은 아닐지!

五月十六일 새벽 영문모를 총성에 곤한 눈을 뜨니 어는 멧친하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압도적인 위력이 밀어닥쳐 서울의 시가 요소소스를 점령해 갔다. 「올것이 왔구나」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도장장이 웅담스리는 표정들이었다. 아침 五시 중앙방송국에서 혁명공약의 처음으로부터 도되면서부터 시민들의 마음은 차츰 가라앉아 갔다.

초여름의 짙은 안개가 밝아지면서부터 우렁찬 행진부의 방송 사이사이에 끼어 혁명공약과 군사혁명의 동기 및 이념을 설명하는 부로가 되풀이 되고 광복 광복에 모인 시민들은 다육소식을 부랄라 거다리고 있었다. 九시 비상 제엄령이 퍼지고 야간행행과 유대의 집회금지, 유언비어 단속등의 관한 또 명령 제호가 나옴에 뒤이어 「국민운동결정」으로 은연중이 관의면적부터 혁

명은문 사람들을게도 바싹 다가서 왔다. 혁명위원회의가 정권을 장악한 후 사회는 「덫포」로 개혁되고 다듬어져 갔다. 소란스러웠던 「페모」집회, 학원불규의 기열은 서러맞은 호박인처럼 싸서 들어 들었다. 五·一六선에서 동맹된 물가는 十七일부부터 더 떨어지고 하부동맹 선언된 학교도 이날부터는 문을 열었다. 동맹되었던 예금이 풀리고 서울 부산 대구 지구 국민자애전 특배 소식이 전해졌다. 혁명은 대중에게 영합되어 갔었다.

지난 十五년 동안 어진 백성들의 희생에서 조장되어 오면 부패 퇴폐 구악이 이런것을 밀어 버리는 조칙이 시책이 과장하게 집행되었다. 장패가 먼저 걸려 들었다. 혁명 이를제인 十七일까지만도 一, 五四六명의 장패가 옮겨미속에 들어 「속죄행진」을 했고 三十九명의 시내 장패부목들이 모두 구속되었다. 十二월 초순까지는 一五, 七〇명이 잡혔고 재판용 거처가 장면적지형된 것도 장패 두목이었다.

유용가, 교동구회위원장 멘스광동 자중법판자는 죄물이나 사정(私情)에 이끌림이 없이 단속되어 혁명 두말동안의 만도 봉급위반자 一九, 九八三명을 비롯하여 교동구회 위반자 一三, 九八七명 비밀 「멘스홀」단속 二七〇여건 부하가 전속단속 七九〇건의 기록을 냈다. 구악의 「압제사리」는 손 닿는 데서부터 계속 쫓겨져 대역처럼 보류차량 한 천 백여대가 회수되었고 四월 혁명후 남한 사람이 비인론기관이나 공산전자들이 주리리루를 밟아갔다. 전국에서 일간신문은 一五종중 七六종이, 그리고 일간통신 三二六종중 九九七%에 해당되는 三〇五종이 등록취소되고 주간지는 四八五종에서 三三종만을 남기고 九四%를 정리하였다. 자치방 제엄사령부 관하에서 「공안기자」들이 불블라 되고 十년 정언을 받은 판결까지 내렸고 그의 수습개신론의 인본인들이 밀화사건으로 재판용 받기도 했다.

구악의 무리를 따라 양탄배와 키되는 어느를

에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었다. 그중에서도 해방 후 十六년 동안 중독증에 걸렸던 양탄배는 뒷구멍 거래도 없을 정도이고 구산담배 애연으로 연달까지 三十여환의 전배 이익금이 불을 계산이었다. 투정의 때품의 수입 면태와 밑수품단속이 엄해져 밀수범에게 회고 二十년 징역형이 언도(七月十二일 경남)될 정도였다. 「멘스홀」유용가와 요청도 시제가 없어져 갔다. 「멘스홀」사정같은 뒤서리를 맞았고 무수장(莊) 무슨 각(關)은 대중식사 점으로 전하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곤 했다. 당자들의 지과와 함께 부정대부, 부정축재, 정실인사, 증수의, 횡령, 독점등 부패정기가 후퇴된 것도 그 큰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내자 사부처에서 발표된 바 구정권(자유·민주)의 대민부채二十九萬三천만환중 유용비만도 一억四천十七만여환이었고 이것이 모두 호멜과 요청에서 소비되었다는 지날날과는 판이한 대조같다.

많은 공무원이 정리되었다. 판기 확립과 농를 향상을 위해 병역기피자 六, 七〇〇명 축적공무원 一, 三八五명 병역 미필공무원 九, 二九一명이 해면 조처된 데에 무능력자 정치배정으로 투채된 자 교정자들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정부기업체 요원으로 부패 물러났고 공무원들의 요청출입 관용차사용(私用)은 엄중단속 되었다. 특히 병역기피공무원에 대한 과단한 정리는 八二년 병역법의 시행후 두 지금까지 요미조리 진술이 마할것 같은 중적자를 주었다. 그래서 六월二十일부터 三十일까지 선처리된 자수기간중 정직기피자 二四〇, 八三五명 파소집기피자 一六四, 一四七명이 자진선교를 하게되어 병사행정 十년간의 체중이 떨어 집과 동시에 많은 장정들이 양지를 찾게 되었다.

五·一六후부터 발생된 공무원비위행위는 더욱 엄중하다 스테졌다. 부정축재 제 一조사단 전 원과 동지리법 및 처리요강 일인관제자 二十七

명이 투정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피하고 수회했다는 혐의로 공소되었고 군수품 부정처분으로 진상계고등판재에서는 중형 1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九월 1일) 영남군재에서도 그후도 특정한 보초병과 민간인 두명을 사형 판결했고 공무원이 배만환이상 수회했을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특칙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전정권의 부패상도 살살이 폭로되었다. 앞서 말한 중석위판판대 가계약계절사건을 중심으로 함백산불의 「코밋선」 주문을 비롯하여 국고손실액 六十억원, 기업인들로부터 수탈한 정치자금 四十五억원, 정치인이나 고관들이 주동된 二十권의 중추회내막, 十五차례에 걸친 부정이권차지동 1백종목을 넘었다. 그 외에도 부채부담특진 영전등 정실이나 부정에 이끌린 인사 처단건수가 二, 三, 三, 三건이고 시중은행의 부정대출도 一억 三천여만원에 달하였다. 어느 장관의 경우 자기선거구만 八十명을 추락고용원임시직원등의 명목으로 채용배치한 일도 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심의회도 먼저 국회의원을에게 교제비를 써야 심의했다는 사실등...

심제결과나 검찰위 검찰에서 또 많은 비위사실이 탄로났다. 심재원이 발표했던 것만도 대한중석, 시교육위원에서 지난 수년동안 남비한 금액이 각기 수십대를 넘었고 한은등 一 一八개소중 요기관을 설계한 결과 二년 六개월만에 五三一전, 八五四억원의 비위사실이 들어났는데 「군부대안」등이 그 이유라는 것이었다. 구황실 재산관리장등은 엉망이어서 六백점의 유물을 망실했고 장손이 七억 六천만원, 거기다 나라의 전매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소금은 고사하고 담배 제조판매까지 三억원의 출혈을 냈다고 검찰위서 밝혔다.

七月 五日 합동수사본부와 최고회의 공보실은 전국 부총리 이하 十명의 민주당 정권요원들의 용역정체 진상이 틀어나 진원수속한다고 발표했다.

積極外交를 指向

文哲淳



<外 交>

一九六二년의 韓國 外交는 이를 二期로 區分하여 觀察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作한다. 一九六〇年 四月 十九日의 革命에 依하여 誕生한 張勉政權의 外交政策으로서 今年 一月부터 五·一六革命까지를 今年度 前半期外交로 그리고 軍事革命으로 樹立된 現政府의 外交活動 및 政策을 後半期外交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今年度 前半期外交

今年度 前半期外交라고 하면 簡單히 今年初부터 六月頃까지의 韓國外交를 總括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前半期外交는 民主黨政權의 執權當時부터 始作된 外交政策으로서 今年도에 들어서도 五·一六軍事革命때까지 그대로 繼續되었다. 그러면 前半期에 屬하는 民主黨政權의 外交目標을 살펴보면 第一로 韓日間의 諸懸案問題妥協과 韓日 國交正常化 第二로 對中立國積極外交의 展開, 그리고 第三으로 對U.N外交의 強化를 外交政策의 基盤으로 삼았다. 民主黨政權의 外交政策의 樹立은 過去 十餘年間 孤立的이고 枯息의 外交政策을 取하여 온 自由黨을 構想하여 樹立한 것이므로 自由黨時代에는 念頭에도 내지 않았던 對中立國外交가 包含되었

던 것이다. 韓日問題 解決이나 對U.N外交政策은 自由黨이나 民主黨이나 今年 後半期의 革命政府에서도 大同小異한 外交政策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推進과 結果에 있어서는 天壤之差異가 있다. 그러면 前半期의 세가지 外交目標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기로 하자.

一、韓日間의 諸懸案問題 解決 및 韓日國交正常化問題

韓日間의 諸懸案問題 解決은 韓日兩國에서 十餘年間 討議를 進行시켜 왔으나 未解決된 채로 民主黨政權이 이를 이어 받았다. 그리하여 一九六〇年 十月 下旬부터 第五次 韓日會談豫備會 開始하여 代表團을 構成 派遣하여 五·一六革命前까지 八個月이던 時日을 消費하면서 討議를 進行시켰다. 또 이와 併行하여 民主黨政府의 財政的 困難을 請求權 乃至 日本의 經濟援助로서 解決코자 生覺하고 正當한 確定額數 要求와 그 有關한 會談은 第二次의 으로 하고 裏面工作을 通하여 請求權의 必要한 額數 返還을 交涉하는 同時 資本導入과 經濟借款을 秘藏裡에 進行시켰던 것이다. 韓日會談 自體뿐만 아니라 裏面工作도 實質의 成果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民主黨政權이 終末을 보았던 것이나 이러한 無成果의 理由로서는 韓日間 諸懸案問題에서 가장 重要視되고 있는 基本的 問題例컨대 請求權問題와 平和線問題等에 對하여 確固한 政策을 樹立하여 두지 않았고 恒常 重要 段階에 가서는 動搖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民主黨政權 自體의 優柔不斷性, 弱體性 때문에 野黨 및 社會團體의 壓力과 干渉을 받아 恒時 消極性을 免할 수 없었음이 主要 原因이었다.

二、對中立國外交

自由黨時代와 달리 對中立外交를 唱導한 民主黨政府는 對中立外交를 事實上 推進하여 보려고 對中立國外交排斥을 止揚하고 積極政策을 採擇하여 中立諸國에 親善使節派遣을 計劃하였다. 그러나 東南亞地域은 事情에 依하여 이를 中止하

표- 세상을 잡꼭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과거를 배경으로 많은 인물들이 혁명 심판에 올라섰다. 부정과 부패를 이나라 사회에서 근절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역사적인 이 심판을 하기위해 七月十二일 혁정과 혁제가 발족되었다. 심판대에서 가려진 범칙은 「특수법 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조항중 ① 선거에 관한 살인상해 방화 ② 특수밀수 ③ 구사 또는 군사 목적 ④ 반혁명행위 ⑤ 특수 반국가행위 ⑥ 단 제적 폭력행위죄 외에 규정된 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과 「부정축재 처벌법」 위반죄등이다. 혁정은 공소시효일인 十二月十一일까지 도합 二六〇건 六九九명의 피의자를 기소하였는데 그중에는 혁재 혁정 조직범 부치에 一〇九건 三九二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혁명후에 생긴 반국가 반혁명행위등 특수법과 부정축재 혐의 자들이다.

공소제가 사건중 十二月十三일까지 一심판결을 끝마친 기결진수는 一五八건(四五二명)심리중인 것이 四三건(一一四명)이다. 불기소된 것은 二三八건(六四一명)이고 그의 三十六건(一〇四명)의 민재이송분이 포함되었다. 혁정에서 실행을 구형한 二七〇명의 피고중 三三三명의 사형을 구형당했고 그중 一심에서 판결을 받은 자는 나미미 이슬로 사사진 七명을 포함하여 十四명이었다.

四월 혁명의 동기를 만든 三·一五 부정선거 관련 四대사건(피고 二六名) 구부위원, 자유당 기획위원, 내부부장부, 국책은행장부)를 합쳐 중앙발포사건, 사회당사건 민족일보사건등 十六대 사건되고 七十三명의 현재판결은 十二月二十일 최고회의의장의 최종확인까지 완전히 내렸다. 민족주의 이름으로 내리지는 심판은 「죄와 벌」만은 아니었다. 반국가행위 같은 중죄단 중형의 상당히 내렸지만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처벌된 승사리페나 개천의 정이 엿보이는 피의자

고阿弗利加地域 諸國과 「이탈」獨立記念日 慶祝을契機로 中近東地域에 前 UN 大使인 林昌榮 大使를 團長으로 親善 使節團을 派遣한 바 있었다.

中立國積極外交展開의 問題點은 韓國問題를 中立國에 어떻게 認識시키느냐 하는 데 있으며 北韓傀儡에서도 中立國에 對하여서는 大韓民國 못지않게 우리와 同等的한 待遇를 받을 것을企圖하여 中立國開國하고 大使館 또는 領事館設置 推進을 積極展開하고 있다. 民主黨政府는 國外뿐만이 아니라 國內에서도 二個의 韓國概念에 對하여 政府의 確固不動한 立場을 樹立치 않았음으로 民主黨의 親善使節團이 數個 中立國을 訪問接觸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具體的인 成果는 하나도 올리지 못한 結果가 되어 口號에만 그 對 中立國 外交가 되고 말았다.

三、對UN 外交

對UN 外交에 있어서는 李政權時代의 武力 統一 政策을 止揚하고 UN이 決議하는 南北韓 總選舉에 依한 平和統一 政策을 採擇하여 이를 對UN 外交의 基本方針으로 삼았다는 것이 特記한 變動이며 實際的인 對UN 活動에 있어서는 韓國問題討議에 보다 많은 多數支持票獲得을 目的으로 友邦諸國은 勿論 中立國에 對하여서도 積極的 活動을 하였으나 當時 UN에서 가장 微妙한 움직임을 나타낸 「亞阿 블리」의 說得工作의 不振과 美國側 「스티븐슨」案의 採擇으로 因하여 北傀代表의 UN 參加를 條件附로 受諾하게 됨으로서 UN에서는 從前보다 一步 後退한 結果를 招來하고 말았다. 그러나 UN에서 韓國問題 討議는 처음豫定으로는 十二月 中旬頃 討議될 것이었으나 翌年인 即今年 一月中旬頃으로 延期되었다가 끝내 討議가 되지 않았음으로 北傀와 實際的으로 同席하지는 않았으나 今年度에도 同一한 問題가 提起될 것으로 生覺된다.

今年度 後半期 外交

後半期 外交는 軍事革命後 오늘날까지의 革命 政府의 外交政策等을 總稱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期間이 겨우 半年程度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外交의 交渉과 成果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눈부신바 있었으며 韓國 外交史를 裝飾할만한 事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革命政府에서 내세운 外交目標는 첫째로 合理的인 韓日 諸懸問題의 解決, 둘째로 對中立國 極外交의 展開, 셋째로 對共態勢의 強化, 넷째로 對UN 積極外交의 推進, 다섯째로 經濟外交의 積極展開 등이 있는데 革命後에 即時 外交 活動을 開始한 것은 革命政府에 對한 理解와 支持獲得을 爲한 外交活動이었으며 美國을 爲始한 自由友邦諸國과의 紐帶는 더욱 強化되었다. 現政府의 外交目標를 民主黨政府의 外交目標와 比較하여 보면 對共態勢의 強化와 經濟外交의 積極推進을 除外하고는 적어도 抽象的으로는 基本 外交政策에 別樣 差異가 없는 것이며 外交의 一貫性이라는 觀點에서 判斷할 때에는 當然 之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外交目標의 實現化에 있어서는 民主黨 政權의 一餘년에 巨한 外交는 革命政府의 約半年 未滿의 外交와는 그 成果에 天壤之差異가 있다. 革命政府의 外交를 抵面關係上 이를 세가지로 나누어 檢討하여 보겠다.

一、親善使節團의 派遣

親善使節團의 派遣은 前述한바와 같이 民主黨 政府에서도 計劃實踐한 바 있으나 革命政府에서 派遣한 것과는 派遣目的의 本質 懸隔한 差異가 있었으며 勿論 그 規模나 訪問對象國의 數는 두말할 것이 안된다. 이 使節團 派遣의 目的은 革命 政府의 積極的인 理解와 支持, UN에서의 韓國 支持 그리고 中立國과의 外交關係 樹立等을 主要的으로 하여 世界全地域에 걸친 八〇餘個國에 걸쳐 五個地域으로 區分하여 派遣되었다. 이

예전 「외와 온정」도 배설하였다. 서울역 앞 발포정판이나 마산 「부산지구 발포정판 수명」이 혁명의 공소취하로 석방된 신헌를 비롯하여 八월十四일부터 十一월十日까지 사이에도 부정선거 관련혐의자 반혁명혐의장성 용공혐의의 학생, 부정축재 또는 반혁명 행위혐의의 구정권요인들이 전후 약 십차에 걸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고 건국부흥회의 연금도 해제되었다.

이런 관용정책은 五·一六 혁명 직후부터 여러 번 배설되었다. 혁명과정(洞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직결처분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총살처분 같은 일은 한번도 없었으며 五·一六은 이 점에 면의성을 지니고 있다.

혁명 초기에 걸리는 부양자나 강대들도 주모자를 제의하고는 후방(誨放)되었고 그중 四백여 명에겐 대관령 두메마을서 개최사업에 종사하도록 처세의 권이 열렸었다. 「펜스」의 용공위반죄로 실형을 받았던 일부 죄수들에게 혁명 二十일 후인 六월六일 현충일을 기념 특사가 내렸었고 七·一七 제헌절엔 용공혐의 예비검속자 一, 二, 九, 三명이 석방되어 앞서 나온 一, 二차분 석방자들과 합쳐 二, 五六〇명의 탈하였다. 五·一六 전의 선거사법 七十七명도 동시에 풀려나왔고 그후 광복절에는 또다시 특사 五, 六三〇명, 광복자 九, 三二五명이나 되는 큰 은전이 배설이 있었다.

부정축재자는 조사 대상자 一一〇명중 공무원인 약 二〇명만이 송치되었고 일반 실업인들은 구속이 풀려 모두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사결과 허물이 들었던 실업인은 통고된 부정축재죄 중 결정형을 국가에 환상도록 처리되었다. 기업주 二十七명(四七七의향)과 공무원 三十四명(七二二의향)에게 이면 통고가 내렸으며 부정축재 처리위원회는 그후에도 처리법을 완화하와 축재자중 공장 전립자에게는 특별해부주고 공의 제공에는 축재액에서 제외하였다.

한정영안 사보건의 「메모」와 변경된 자취는

의派遣도 革命後 二個月도 지나지 않았던 七月初旬에 韓國을 出發하여 前述한 目的에 따라 우리의 友邦國家는 勿論 中立諸國과도 積極의 交涉를 展開하여 常駐大使館의 設置를 合意한 것이 十餘個國 其他 兼任大使派遣, 領事交換關係 樹立等 中立國을 包含한 三十餘個國과 合意를 이루었으며 革命政府에 對한 支持獲得은 既히 新聞紙上에 報道된 대로 豫想以上の 多大의 成果를 거두었다.

二, 韓日諸懸案問題解決과 韓日會談

韓日問題에 關하여서는 自由黨이나 民主黨 때와는 달리 合理的이며 現實的인 妥協策을 講究하여 諸懸案問題를 解決코자 切實히 日本政府當局과 日本國民, 그리고 自由及邦諸國에 對하여 國際情勢下 兩國의 紐帶가 時急히 이루어져야 할 緊要한 問題인을 認識시키는데 努力하는 同時 우리側로서는 지난날의 國民感情을 可能한 限 버리고 大局의 見地에서 韓日問題를 解決하기를 企圖하여 지난 十月二〇일부터 第六次 韓日會談을 開始하였다. 勿論 會談開催에 앞서서는 當時의 崔德新大使를 團長으로 하여 日本에 初期的 親善使節團을 派遣하고 二後 經濟企劃院 金裕澤院長이 日本을 訪問하여 會談開催에 必要한 雰囲気造成을 하는 同時 韓日問題解決의 關鍵인 請求權問題와 平和協問題에 對하여서는 事前에 我側에 確固한 基本方針을 세워 會談에 臨하였다. 故로 어느때의 會談보다도 今般 第六次 韓日會談에 있어서는 그 出發에서부터 雙方間이 早速한 問題解決에 前例였던 努力을 하고

안으로 어느 程度의 汗餘曲折은 免치 못할 것이

그 외에도 거창한 것이 많다. 생가나 는 때로 적어도 능이촌고미재신고, 사회단체해산, 「메스」 및 이발요금인하, 공무원 봉급인상, 구도건설 사업추진, 실업자실배조사, 귀농회장자, 二, 二八세대의 정착사업, 서울사건전도로 건설, 취

머 또한 앞으로의 展望에 對하여 樂觀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머지않은 將來에 成功的인 展望이 보일 것이 期待된다.

三, 朴議長의 訪日과 訪美

今年度 後半期 外交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 外交史에서 一大事라고 할 수 있는 것은 朴正熙議長의 訪日과 訪美로 이루어진 池田首相과의 頂上會談 그리고 美國 「케네디」 大統領과의 兩巨頭會談이다. 朴議長과 池田首相과의 會談은 韓日會談 및 韓日國交正常問題와 關聯하여 韓日問題 妥決의 根本的인 契機를 마련하는 同時 日本의 朝野各界에서도 革命政府만이 政權의 強力性으로 인하여 韓日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政府일 것이라는 觀測을 자아내게 하였다. 朴議長의 訪日 成果를 일인히 例언하느니 보다 韓日兩國의 國民들이 朴議長에게 記하느니 今期待를 걸었느냐 하는 것만 斟酌하여도 過히 그 成果를 推測할 수 있을 것 같다.

朴議長의 訪美 成果에 關하여서는 韓國政府와 國民이 오늘날처럼 美國政府와 國民과 사이에 強한 紐帶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斷言한 美國의 一官吏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 成果를 判斷할 수 있을 것 같다. 紙面關係上 革命政府의 對中立國外交의 成果에 關하여 論한 餘裕가 없을 것 같다. 前述한 一九六一年度 後半期의 外交가 短時日內에 이루어진 外交 成果라고 생략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効果的이고 華麗한 外交를 推進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筆者 · 外務部 政務局長)

업자의 증가, 여교원조산비의 저를, 표준시간제 정, 전기 3사 통합, 남원 열우지구 홍수피해, 장충동측대부파사건, 일본은행과의 스포츠교환, 「유음의 재」(증가)(1천배)와 소련의 대혁명특별항의 「메모」, 차대부락정연의 증가, 일부특별법 법외의 대상자의 도피 등..... 「전진과 계승의

연속」이었다고만 붙여 놓는다.

그런면 박은 철서를 고쳐가는 데는 인연권은 판
권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철명의 진동과 반작
용이 사회에 미치는 것도 허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야 많은 스승들이 직장에서 도태되고 혁명주의
반혁명 운동사건도 있었고 그 때에다 그 비참수
단에 의한(당시 사정)으로 부부들이 혁명이었던
관용(관용)사람들이 시초부터 직접 참여를 못하
였던 소련(蘇聯)의(蘇聯)도 보며 저 한때는 각자
정신과 비평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의 행진은 그림이 없다. 사소한
잠음이 있어도 큰 줄거리의 방향을 찾고 진전화
(進進化)해가고 있다. 첫째로 사람을 깨조하려
는 인간혁명—정신혁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난날 몇번이고 정권이 갈라져만 부패 무
능은 의전하였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인간성의 광복이 사회중흥의 요체로 즈음 처
럼 강조된 일은 해방후 없었다. 반공이념화도
정신한 기풍도 신생활체제의 구비도 모두 인간
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혁명후 어느 부분보다도 교육 행정면에 개혁
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새 세대의 정신을 지도하
려는 데서 온 것으로 안다.七月一日부터 대학생
들이「유니폼」을 입고 나섰다. 임시제도가 변경되
어 중·고교는 공동교육체제로, 대학은 국가고시제
로 변했고 대학출입원 학사고시제가 생겼다. 사
람학을 둘러싼 추분과 영리대학자를 없애도록 하
자는 조치였을 것이다.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
정비도 단행되어 새해부터는 국립대학교의五个
단과대학이 폐지되고 四个 대학이 병합되며 사
립은 주간二十五교 야간八교로 줄었다. 모집정
원도 九十二학과 一六, 六九一명으로 제한되었
다. 九四년도에「교육과정 개정의해」로 결정된 초
중·고교의 교과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로 국민학교교과를 없앴으며 중·고등학교
교과 교과과목교과도 수업을 담당토록 되었다.

교육행정책임자들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단행
되었고 교육장우원의 정년은 五십이 나 줄었다.
학교 주변의 유흥장 교내 판매소 철거 등, 모두가
새해대새 나라 주인들의 사명감을 참(眞)하게
감소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학교 교육의 개혁과 함께 재건운동은 통한 일
반의 정신 혁명과 생활 간소화도 줄기차게 의차
져가고 있다. 일하는 것보다 「메모」를 해서 생활
교를 풀이 보려는 생각이 나 새 정부가 서면 앉아
있어도 머미 삼려 주어야 된다는 따위의 지난날
의 풍조는 생각도 못할 일 되었다. 내일생활
의 여행, 구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덕의 앙양, 국민회향상, 유흥
중립사상의 배제, 정서관념의 순화 등 제 방향을
찾아서 사회는 새로워져 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
에 반듯이 관공상제 차림이 간소화 되고 가고
죽선제, 산아제한, 퇴임문제 등이 처리되었
오늘의 과제로 「비유」하였다.

사회개혁전진의 둘째면 연대는 법질서가 잡히
고 장래 발전을 보장하는 법령이 불발만큼 정비
제정되어 사회의 기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비롯하여 농어촌고리
제정(55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반공법,

(P 55에서)
것을 예로 하여 보는 것도 無意味한 것은 아니
라고 본다.
이 事件報道는 東獨이나 西獨에서 모두 大々
의 事件取扱하였다.
即이 事件의 主人公인 「디크」란 氏는 東獨
人民議會의 議長이기는 하나 國際共產黨員은 아
니요 東獨 統一黨의 黨員도 아닌 同氏가 西獨
「달부르크」大學生인 크라우스, 호른學生과 同
志들의 講演招請으로 同市인 大學校에 나타났
을 때 不祥事가 發生하였던 것이다 한다.
同氏招請으로 共產東獨의 政治에 對한 辛辣한
批判을 加해 오고 있는 호른學生은 다만 東獨
人民議會議長인 同氏의 統一獨逸에 關한 意見을
들어보려는 것이었다고는 것이다.

북정법외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 농산물가격
유지법, 유흥행위방지법, 물가조절에 관한 임
시조치법, 범죄자의更生보호법 등은 모두 사회
정화(淨化)와 부지향상에 관련이 깊은 법률이
다. 그중에서도 농어촌고리제정법은 인구의
七할을 넘는 농민들이 여러세대에 걸쳐 칠체속
에서 영위해는 가난한 살림을 구제한다는 데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후 헌정이 배후이진지 十四년동안 지지부
진했던 이런 사회부지법의 제정은 혁명정부서
마련한 정치, 경제, 문화면 관계 六十여종의 새
법령, 그리고 명년 一월 二十일까지 단행하겠다
는 구법(舊法) 및 미군정하 법령(五백여종의
정비와 아울러 五, 一六 혁명의 이념과 성과를
엮는 문헌이 될 것이다. 법령신약의 힘을 입으
품의, 돈보지나 「백」에 의해 선악의 혼돈되고
정의가 죽어 버리면 우리 사회의 「그레 샴법칙」도
지양되어가고 있다. 구약과 부패를 쫓고 질서가
잡힐 때까지이다.

이런 진전이 경제부문의 재건 五개년 계획과
더불어 새 사회진실을 지향하는 희망의 토대로
지난해의 성과인 것 같다.

— 제야의 종을 넣은 그 위에서 진전을 신희한다 —
(筆者·韓國日報 社會部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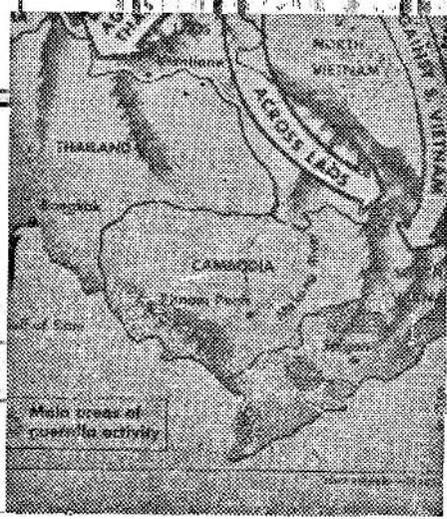
그런데 이 講演會場附近에서는 同氏反對의 「메
모」가 일어나, 아담법칙을 이루었으며 講演中
投石도 되어 몇번이고 講演은 中斷되었었다.
이것은 同年 一月十五日 밤 일대 「노」에 스
도이 워란트 紙는 翌十五日부터 最大限의 煽動宣
傳으로써 없는 말까지 虛構捏造하는 一個學生의
의 反對에 對한 同氏 事件을 誇張하여 그 背後
에서는 自由西獨의 政治家들의 凶策이라고까지
하여 惡宣傳資料로써 大書特書했다는 事實을 들
때 이까지다. 公明正大한 社會의 公器로서 鄭
重히 同氏事件을 다루고 있는 西獨의 有名한 「디
벨트」紙와는 너무나 對照的인 것이었다고 할 것
이다.
(筆者·空軍中領·空本公報課長)

東南亞 事態와 美國의 位置

뉴스위크 誌
東南亞特派員
로버트·S·엘레간트

美國이 東南亞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中共과의 戰爭도 不辭한 다는 確固한 態度를 갖는다면 東南亞는 계속하여 西方陣營에 남아 있을 것이다.

毛澤東과 越盟의 胡志明은 지난 十一月에 重要한 戰略的인 會談을 갖었으며 그들은 一九六二年을 通하여 東南亞에 있어서의 게리타 壓力을 強化할 것을 決定했음이 明白하다. 더구나 不幸히도 오늘날 共



産侵略을 받고 있는 越南과 인접 侵略을 받들지 모르는 泰國 및 캄보디아 가 戰意를 상실하고 있으며 美國의 援助없이는 對共戰에 勝利할 수 있는 政治的 基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一月 筆者는 비엔티엔으로부터 폰몬에 이르는 길벗고 전진한 北部라오스를 旅行하였으며 美軍이 라오스戰에 直接 武力介入을 하지 않는 限 라오스는 赤化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北部라오스에는 叛亂軍의 공대 大尉가 指揮하는 部隊을 추격하는 親西方軍의 쿠프라시스 아베이 大領의 司令部가 있다. 湄江진너의 高地 帶에는 叛亂軍이 占據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機關銃을 裝備한 親西方軍이 渡江을 하지 못하고 폰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前進을 하지 못하는 理由를 쿠프라시스 大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前進을 阻止하는 것은 江진너의 險惡한

地形인 것이다.」

事實上 八百名の 同 大隊의 前進을 叛亂軍은 不過 三十名程度의 저격兵으로 阻止하고 있는 것이다.

공대 大尉는 戰鬪도 하지 않고 자래 平野를 確保함으로써 親西方 王政軍의 軍事的 優位에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攻擊의 焦點을 越南으로 옮겼다. 그러나 共產게리타의 壓力이 잠증하고 있는 越南의 고딘 디엠 大統領의 政府는 高 大統領의 政策固執으로 말미암아 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高 大統領은 美國의 忠告에 冷淡하며 特히 라오스에서의 美國의 態度를 보고 나서 는 더하다. 筆者가 마지막으로서 그를 訪問했을때 地圖상의 共產게리타 동 地域을 指摘하며 흥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라오스 休戰以後 어져서 美國이 共產파테트라오로 하여금 南部 라오스의 체몬을 占據케 했는지 알 수 없다. 체몬은 現在 越南으로 침투하는 共產게리타의 據點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東南亞에서의 美國의 미지근한 態度를 非難하는 것은 고딘 디엠 大統領만이 아닌 것이다. 泰國의 사뎀타 나탈 元帥도 美國의 態度를 「강경한 말

과 퇴미한 行動」이라고 非難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十一月 泰國의 外交 政策을 決定하는 세 사람中의 한 사람이 「아세아의 적은 나라들은 共產위협에 對해서 束手無策의 狀態이며 東南亞條約機構 亦是 美國이 指導力을 상실하므로써 有名無實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東南亞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萬若 美國이 強硬한 態度를 取하면 同盟國들은 이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不然이면 우리는 모두 滅亡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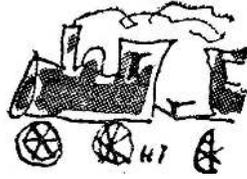
이제 美國이 萬若 東南亞를 防衛하기 爲하여 直接 武力介入을 한다면 中共은 어떠한 態度로 나올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中共의 經濟가 大規模의 軍事行動을 지탱할 能力이 없으므로 中共과의 全面戰爭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核戰爭을 不辭하면서 蘇聯이 中共을 支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萬若 美國의 強硬한 行動이 지연된다면 中共은 自體의 核武器를 保有하게 될 것이고 中共의 經濟는 現代經濟體制를 갖추게 될 지도 모른다. 美國은 그들의 미지근한 態度를 가지고서는 東南亞를 守護할 수 없음을 하루속히 認識해야 할 것이다.

民族性的改造와 國家再建

—아침하는 승성을 침산하자—

金 成 植



지금으로부터 約四〇年前 春園이 民族改造論을 開闢誌上에 실렀다가 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았고 또 개벽社 社長도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어떤 날 밤 한 시경에 唐珠洞에 있는 春園의 집 大門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몇날 전에 누가 와서 사회의 여론이 나쁘니 春園이 몸조심하라고 일러준 터이라 春園이 나가는 것보다 그夫人되는 許女史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할 형편이 었다. 그러나 春園은 許女史를 제겨놓고 自身이 직접 大門을 열어 주었다.

그때에 青年三人이 보자기에 찬 뚜껑(그것은 아마 무기를 넣은 것이다)을 절그형 거러며 춘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氣를 띤 인논조리를 하면서 보자기를 방바닥에 놓았다. 다음 순간 許女史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中 한 青年은 許女史더러

물을 달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許女史는 이 사람들이 춘원을 해치려고 온 사람인 줄 직感하고 좀처럼 춘원의 걸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春園은 泰然自若하고 許女史더러 왜 물을 떠오지 않느냐고 語聲을 높이면서 속히 떠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許女史를 보는 춘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許女史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허둥지둥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다. 그때 방바닥에 있던 보자기 문지는 없어지고 春園과 青年사이에는 確乎不動의 信念을 청년들은 느끼고 돌아간 모양이다.

그때부터 四〇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軍事革命을 맞고 人間改造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인간 개조란 말은 우리 民族性을 개조하자는 意味의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암만해도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해야

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은 亡할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남들은 모두 自立獨行하고 있는데 하필 우리 민족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歷史적으로

얼은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못사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한때 春園을 비난하면 이사회는 지금 春園을 先見之明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고 지금은 春園의 民族改造論이 다시 某雜誌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民族性을 改造하여야 되겠는가?

二

일찌기 배나드·쇼는 人인간이란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건전한 國民은 자기 民族에 대해서 無關心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 反對의 意味도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卽 弱한 사람일수록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건전치 못한 國民일수록 자기 民族의 장래에 대해서 근심함이 많다는 뜻도 된다.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은 지금 병들어 있어서 內外人을 막론하고 이 民族이 起死回生할 수 있는 민족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의 병을 고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막 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뼈髄에 깊이 든 병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잘 살도록 침태두리만 다스리고 있었다. 외양만 회절한 무덤같이 번드르하게 꾸며 놓고 民主制度라 文化民族이라 하면서 自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革命을 계기로 하고 根本的인 수술을 통하여 民族再建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民族의 病을 고치려는 것은 根本적으로 보면 民族性의 나쁜 點을 改造한다는 뜻이다. 필성부분은 나무는 뿌리부터 알아본다고 하였거니와 아름다운 民族性을 가져야 그 민족은 번영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民族性을 改造한 뒤에 우리 國家의 興隆과 繁榮도 기대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民族性에서 改造되어야 할 요소가 非一非再이나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내고 볼 수 있는 性格은 아첨(阿附根性)하는 버릇이다. 이 아첨하는 버릇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第二의 天性和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모든 게으른 것 거칠 것 말 잘하는 것 시기하는 것 등의 대개가 이와 같은 根性에서 由來된다고 하겠다. 거기에는 깊은 歷史的 緣由가 있다.

벌리는 고사하고 가까이 李朝 五百年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아도 우리 民族의 支配者는 변함이 없는 것은 정치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生活에도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李朝 시대에는 權門 勢家, 日帝 때에는 총독, 自由黨 때에는 大統領이, 모든 支配者는 우리 민족과 국민을 압박하였고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權勢있는 사람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 왔다. 그리하여 민족의 生活이란 도란에 빠진 생활이었다. 生活의 最低線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生活이었다.

그리하여 (生不如死)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自由보다도 權勢의 周邊에서 살아 왔고 따라서 자기를 날로 새롭게 하는 자유란 꿈에도 맛을 보지 못했고 다만 權勢에 복종하고 그것을 잡은 사람을 섬기는 남의 人間으로 살아온 것이다.

원래 우리 나라가 國際的으로 보아도 남의 나라의 바람받이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再建論壇

는 中國의 정치 變동에 따라 움직이었고 事大하기를

예사로 하였으며 日本의 帝國主義에 대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밖으로는 우리 民族은 남의 민족을 섬겼고 안으로는 權門 勢家를 섬겨 온 것이다. 아첨하는 습성은 이와 같은 內外事情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아첨과 權勢와는 서로 正比例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니 權勢가 강하면 아첨도 많아지고 또 아첨이 많아질수록 權勢는 濫用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생기면서부터 權勢는 濫用되고 아첨도 늘어 갔다. 李朝 五百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權門 勢家의 橫暴와 그들 門下에서 아첨하는 무리들의 行狀의 기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첨이란 본시 있었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다만 執權者의 勢道가 너무 크니까 그 밑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고 말할 수가 있다. 원래 中間階級이 없는 우리 社會는 兩班과 庶民으로 구별되어서 양반은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庶民은 被支配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계급사이에는 매꿀 수 없는 넓은 도랑이 있다. 그런 도랑을 매꿀 수 있는 계급은 中産 계급인데 그만 封鎖된 사회속에서는 그와 같은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中産 계급은 英國에서 例를 들어 보면 그 성격이 윗 계급에 아첨하지 않고 아랫 계급에 대하여 強暴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위와 아래에 통할 수 있는 계급이다. 따라서 윗 계급의 압박도 받지 않고 아랫 계급의 아첨을 받는 정도도 권세를 당용할 수도 없는 處地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계급이 成長하였더라면 오늘날의 課題인 민주주의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우리의 지금의 사정이다. 그와 반대로 上部와 下部의 간격이 넓

어 있었으니 上部는 지배하는 것 權勢를 부리는 것으로 그 存在性이 규정되어 있고 下部는 上部의 權勢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天性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階級の 交流도 없었다. 兩班이 몰락하여 市民 계급이 된다고 가 庶民이 致富하여 市民 계급이 될 수도 있고 商工業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또 大地主들도 日帝 시대를 거쳐 그대로 있다가 대부분 몰락한 형편에 이르렀고 日帝 시대에 商工業 市民 계급으로 전환된 兩班이나 地主도 極少數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兩班觀念과 庶民 관념은 그대로 오늘날 까지 계속되어서 派·地·門閥의 싸움이 또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封鎖된 社會에서 支配와 被支配 두 계급이 형성되었다. 또 두 계급이 형성된 과 동시에 사회는 개방적이 되지 못하고 더욱 봉쇄적이 되는 수 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權勢를 잡은 자는 더욱 被支配者의 해방의 길을 막아 놓게 되고 그것을 막는 것으로 支配者의 에네르지는 방진되게 되는 것이오 그 반면에 被支配者는 그들의 지배자의 桎梏으로부터 도망갈 길을 잃어 버리고 말게 된다. 나면서 죽기까지 庶民 계급은 양반 계급의 지배를 면서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양에서는 中世시대 農奴들이 領主의 압박을 피하여 自治都市로 도망가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고 都市의 空氣는 自由를 만든다라는 俗談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이나 그러나 무렵, 나라는 압박받는 庶民 계급을 해방시킬만한 都市도 李朝 시대에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代代 孫孫이 庶民은 兩班의 橫暴를 견디며 살아야 되었다. 여기서부터 아첨

아생기게 되었으니 같은 被支配者라도 上典에 아침을 잘 하면 그대로 苛酷한 압박은 면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橫暴한 權門勢家에 아침하는 무리는 日增月加하였다. 地方監司로 내려가면 다음껏 착취하였고 여기에 아침하는 官屬들이 監司의 창고에서 흘러 나오는 부스럭지를 먹고 살게 된다. 힘은 노력보다 上典에 아침하는 것이 쉽게 편안히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에 가혹한 압박에 못이겨 시작한 아침하는 버릇이 차차 常習化해지고 그것을 安逸하게 살아가는 한 方便으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비열한 노릇, 거짓말, 虛禮虛式, 그리고 부패등은 갖가지 못한 버릇이다.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아침하는 버릇이 度가 넘치게 되면 자기의 出世를 위하여 자기 보다는 相對方을 모함에 빠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잔인한 行爲까지 나타나게 된다. 내가 잘해서 出世한다는 생각이 아침해서 出世하는 버릇으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남을 모함에 넣는 버릇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李朝의 黨派 싸움에 나타난 것이었으며 日帝 시대의 親日派 속에 再現 되었다가 大韓民國이 되면서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表面化해졌던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죽은 이의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고 하는 것은 마음아픈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一部가 어느 정도로 아침하여 出世하기를 좋아 하는나의 본 보기를 위하여 내가 들은 말을 하나 하겠다. 이 말은 故 晚松에 관한 것인데 晚松은 副統領候補로서 前 閣에서부터 完全한 廢人이었다. 열하여 다녔고 類面神經이 마비되어 말을 입에 넣어도 한 열음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폐인이었

다. 이런 사람을 가두어 놓고 李博士보다 나 이 젊다는 핑계로 부통령을 세워서 萬代의 榮華를 누리 보려던 것이 自由黨의 重要간부가 아니었던가? 기막힌 말이다. 방귀를 뀌어서 시원 하겠다? 말의 類가 아닌 정도로 숨막히는 이야기이다. 이러니 李朝 시대에 얼마나 많은 義士가 남의 모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겠으며 日帝 시대에 日本人에 아침하는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였겠으며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愛國 愛族하는 국민이 社會로부터 은퇴하고 있었겠는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上典에 아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 자기의 無能은 은폐하기 위하여 上官에 아부하는 것도 萬의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어찌해서 자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上典에 아침하며 모함할 수가 있었는가 말이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妥協과 協調가 없는 싸움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또한 오늘들의 모든 不義와 不正이 이 아침하는 버릇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 하여야 되겠다.

三

民族性을 改造하자! 그것으로 國家 再建을 完遂하자! 오늘의 革命 政府에도 上官에 아침하는 무리들은 없는가? 黨패를 잡아도 좋고 不正 選舉人, 反革命分子 등등 모두 法으로 다스려도 좋다. 그러나 아침하는 部下가 있을 때 이것을 묵인하여 둔다면 李朝와 自由黨의 再版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를지나 上官이나 爲政者는 눈에 보이는 犯法者를 처단 하기에 앞서서 눈에 띄지 않는 아침하는 무리를 엄벌 하여야 될 것이다. 생선가게는 팔루기가 찢긴다는 말이 있는데 實로 李朝나 自由黨시

俗談春秋

孤客子



二八, 죽기는 살기보다 어렵다

不條理의 哲學을 다룬 까유는 어지간히 殺風景한 말을 했었다. 「人間은 마땅히 自殺자이다. 살아야 할 理由란 하나도 없다.」고!

不條理 그 自體가 곧 條理일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살아야 할 理由가 없어서 죽을 수 밖에 없다면 죽어야 할 理由는 살아야 할 「理由가 없다는 理由」이니 죽어야 할 理由는 더욱 없다구나 할까?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問題는 東西 哲人이 二千餘年 동안에 걸쳐 깨어들어 가도 아직 무리를 證見 못하고 있으니 「죽은 者엔 임이 없으니」 죽음의 證言을 求할 길이 없기 때문인가?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千萬가지 疑問은 하나도 證言할 수 없다 하더라도 單한가지 만은 百퍼어센트의 確率을 가지고 證言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이다. 이 世上의 모든 것을 못 믿어도 죽음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를 訪問해올지 모르는 不招之客이 또한 죽음이라는 손님이다. 아니, 그보다도 人間은 누구나 죽음을 포착해 내고 다니는 것이요 人間과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는 것이 죽음이다. 人間이 오지 않나 믿을 수 있는 側近者이다. 현재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고 이 百퍼어센트의 確率을 가진 죽음을 否定하기를 좋아한다.

대의 한국은 모두 이런 아첨하는 무리에게 하여亡亡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 하여야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글이 軍人社會의 雜誌에 실리게 되는 관계로 軍人社會에 대하여 특히 아첨하는 습성을 완전히 청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勿論 軍人社會는 訓練과 規律과 命令과 服從으로營爲되느니 만큼 아첨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軍人들도 우리 민족의 일부인 지라 감히 아첨하는 버릇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은 늘 자기의 약점을 반성 함으로써 失手없이 살아가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늘 도리켜 생각 하고 그것을 是正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軍人社會란 率直하고 單純하고 劃一的으로 되어 있으므로 上官은 命令할 수 있고 部下는 그것에 服從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上官이 部下를 압박한다든가 部下가 上官에 아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社會生活는 복잡하여서 簡便사회에서 아첨하는 버릇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른 簡便사회에서는 이를 공격하여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으나 軍人社會는 單純하여서 萬一에 아첨하는 버릇이 생긴다고 하면 軍紀는 문란하고 軍人精神은 부패하여 갈 수 밖에 없다. 아첨을 받아 들이기 좋아 하는 上官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再 建 論 壇

正義의 命令을 發할 것이요 部下는

一般社會나 軍人社會를 막론하고 上官이 權勢를 濫用하면 반드시 아첨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는 法이다. 또 아첨을 받기 싫어하는 上官도 가장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아첨을 막는 길은 上官은 正義의 命令을 發할 것이요 部下는

그것에 順服하는 習性을 기르는 데 있고 또 上官은 아첨하는 부하를 제거하여야 되고 部下도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아첨의 버릇을 고치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民主社會를 좋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는 아첨이란 것은 없고 오직 正堂堂만 있기 때문이다. 社會正義가 수립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에 있어서 아첨이 무슨 必要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첨을 없앤다는 것과 社會正義를 수립한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말이오 또 社會正義를 세운다는 것과 民主社會를 건설 한다는 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社會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民族性的의 痼疾이라고 볼 수 있는 아첨하는 습성을 이 기회에 청산 하여야 될 것이다. (筆者·高大教授)

(33頁에서)

고 있는 例가 많다. 西洋에서는 남이야 「아이 스케이크」를 구어면, 진뼉대로 이를 꾸지 않는 자기에게 被害가 없는 일에는 干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는 남의 私生活에는 關心을 갖지 말고 共同生活에 關心을 갖도록 學校에서 教育을 하고 國民運動으로 이를 해야만 참말로 民主主義國家를 再建할 수 있다고 본다.

봄에 산에서 꽃을 꺾어 가지고 오는 사람보고 「왜 꽃을 꺾으시오?」하면 「당신 산이요?」하고 反問한다. 「내 산도 당신 산도 아니고, 우리의 산이요.」그러니까 내가 꺾지 말라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道義라면 普通 어떻게 생각 하기가 쉽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社會의 一人으로 살아가는 데 氣分을 세게 살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規則이 즉 公衆道義인 것이다. 하나의 生活科學인 것이다. (筆者·서울地方法院 少年部支隊長)

人間이 가장 믿을 수 있고 人間에 가장 가깝다는 事實은 무엇이 意味하는 것일까?

人生은 죽음을 否定하려고 하지 않는 人間은 죽음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닐까? 죽음이란 人間의 屬性이 아니고 本質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죽음을 겁낸다는 것은 生을 否定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人間은 아무리 죽음을 싫어하고 否定하려 해도 이 嚴然한 事實을 어떻게 도 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의 길이었다면 죽음을 超越할 수 밖에는 없었다. 이때서 宗教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그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生死觀의 窮極點은 同一하다.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宗教의 힘이다.

三木清이라는 日本의 哲學者가 그의 哲學노오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二十代나 五十代대의 生死觀이 달라졌다. 죽음에 接하는 年齡이 되니 죽음에 대한 恐怖가 없어지고 은근 하게도 親近感을 가지기도 한다.」 이것은 事實일 것이다. 죽음이란 人間만이 아니라 「段階」요 날이 저물면 짐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가을이 되면 다음 친인 겨울의 準備을 한다. 죽음의 年齡에 接近하면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準備을 하게 된다. 이 같은 準備은 거의 無意識이다. 이 無意識의 인 것에 죽음에 關한 어떠한 意味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스무살을 前後할 어느 때라고 記憶된다. 滯甲을 지낸 祖父를 따라 山所에 갔을 때 參拜를 하고난 뒤 祖父는 父뎡이로 曾祖父의 墓所近傍에 續을 그으며 「여기가 나의 피터다. 내가 죽으면 꼭 여기에 이렇게 묻어 야 한다.」해서 座向까지 詳細히 說明하였다. 나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다. 「죽으면 고만 인데 自己 피터를 지정 하나니!」 그때의 祖父의 모습을 想起하면 理解되는 點이 없지 않다. 첫째 祖父는 그 피터에 至極히 貴重한 것이었으므로 체계였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는 本能과 함께 죽음을 當然한 것으로 여기는 本能도 가지고 있다.

公衆道義와 個人的自覺



權 純 永

내가 Y大學의 講師로 나가면 배다. 市內에 스 속에는 Y大學生들로 차있다. 내가 앉은 앞에 Y大學生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나는 命令調로 「學生 담배 꺼」그에게 말했다. 「왜 남의 일에 간섭 하십니까?」하고 그는 대답한다. 「그대의 담배를이 잘 못하여 내洋服에 떨어지면 내洋服이 타지 않나! 그리고 그대가 피는 담배 연기가 내코트들위 오지 않는가! 그러니 그대의 일이 아니고 내게 관한 일이며,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고 말해도 그學生은 담배를 끄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Y大學의 講師 K인데.....」하였더니 그제서야 「누구신지 몰라 피었읍니다」하더 담배를 꺼다.

우리뿐만 아니라 儒敎가 文化的 基本인 東洋의 社會에 있어서는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對하여서는 道義가 잘 지켜져서 禮儀之東邦이라 하는 稱號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인지 모르는 他人과의 對人關係에 있어서는 無禮하기 짝이 없다. 儒敎의 基本 原理는 言語에게는 忠誠을 하고 父母에게는 孝道를 하며 兄弟間에는 友愛가 있어야 하며 하는 따위의 좁

은 對人關係의 倫理規範이다. 現代의 最高敎育을 받은 大學生도 내가 自己의 스승이라고 할때야 겨우 市民으로서 지켜야 할 道義를 지킨다. 이것이 東洋 社會의 弱點이며 民主主義가 아니라에 잘 實踐안 되는 앞이기도 하다. 어떤 權威에 對해서는 服從을 하지만 個人과 個人의 人間의 面에서 平等한 立場에서 이루어지는 對人關係는 圓滿치가 못하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敎育은 이러한 面에 置重하여 人間을 改造하며 同時에 民族性을 고쳐야 하겠다.

數年前에 觀光客들을 타고 江華島에 갔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길에 車內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고 떠들기 시작한다. 乘客들이 그러는 것은 또 참을 수 있다. 그러나 旅行社側에서 擴聲器를 준비하여 指名하면 한사람씩 運轉臺에 나와서 獨唱할 것을 强要한다. 잘 부르는 노래이며 自願해서 하는 것이라면 娛樂우르라고 보겠는데 술이 취해 가지고 배지 무파는 소리를 하니 참고 듣기가 어려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술을 勸하는 것을 拒

그러면 요즘의 世代가 바뀐 것만은 事實이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겨를이 요즘의 우리에게 없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인가부터 알기에 바쁘다. 그래서 까뮤와 같은 殺風景한 結論이 나오기도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結論을 얻기 어려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에 미처 생각이 가지들 않는다. 그러나 이 結論은 죽음과 分離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는가도 여겨진다.

아무리 成功的으로 進行된 舞臺도 幕을 서둘러 내리면 모처럼의 前功도 송두리채 亡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이란 人生에 있어서 幕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죽음의 態度 如何가 그 사람의 生涯를 左右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아무렇게나 죽을 수는 없다. 빛나는 죽음을 빛나는 삶을 意味하게 되니까. 「몬테뉴」는 죽음을 배우는 것이 哲學이라고 했는데 「죽기는 살기보다 어렵다」라는 우리 俗談은 이러한 죽음의 問題를 골찬한마디로 묶은 表現이다.

二九、男子는 죽을때 戰場에서 죽어라

라는 말이 있다. 男子가 世上에 태어나서 싸움터에 한번 나가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초라한 生涯는 없다는 뜻이다. 戰場에서의 壯烈한 죽음이야말로 가장 男兒다운 죽음이 라고 우리 韓國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의 紅顔 저녁에 白髮이 되어 돌아오다 라는 문자도 있다. 죽음을 草芥視하는 것이 우리 武人의 死生觀이다.

생각하면 사람은 단 한번밖에 이 世上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生이란 비길데 없이 尊貴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도 生과 마찬가지로 단 한번밖에 는 죽을 수 없다. 두번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번 죽어볼 수는 없다. 죽음의 尊貴한는 삶의 尊貴함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世上 사람들은 내 남할 것 없이 살기가 바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問

繼하였더니 나보고 거만하다고 시비를 건다. 日曜日 休養次 觀光巴士를 탔다가 육을 특 특히 보고 그 후부터는 觀光巴士를 다시는 안 탄다.

불에 慶州 佛國寺에 갔었을 때 일이다. 名稱이 호일인데 沐浴불도 배워주지 않고, 眞房의 손님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麻雀을 하여 잠을 못 이루었다.

가을에 俗離山 法住寺에 갔었을 때의 일이다. 전날 齋를 못자서 푹 쉬려고 女僧尼의 조용한 房을 얻어 첫잠이 들어서 곧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밖에서 술취한 사람의 떠드는 목소리에 잠을 깨었다. 그 會話의 內容은 二道의 道廳員이 女僧尼보고 우리가 자고 있는 房을 自己들을 위하여 비워달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國內旅行의 貴重한 經驗을 쌓은 후부터는 不得已 國內旅行을 中止하게 되었다. 이렇게 國民의 公衆道義가 없어 가지고는 우리 나라에는 觀光事業이 發展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外國人이 비싼 旅費를 들여가면서 苦生하더 異域萬里 韓國을 訪問할 리가 없다.

一九五八年 가을 日本에 갔었을 때 大阪에서 東京까지 普通夜間列車三等을 타 보았다. 이것은 日本人의 公衆道義의 程度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다. 美國이나 歐羅巴에서 汽車旅行을 해보면 車內가 조용하다. 이야기가 옆의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 조용히 한다. 그런데 比하여 우리 나라의 晝間列車는 말한 것도 없이 寢臺列車도 소란하기가 술집 같다. 바쁜 世上에 時間을節約하기 위하여 寢臺列車을 利用하는

再 建 論 壇

것인데 남의야 잠을 자진 말진 내가

상관할 바가 있느냐는 식으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日本의 三等列車는 조용한 程度가 美國의 水準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참말로 놀랐다. 日本은 靑年東洋에서는 經濟뿐 아니라 文化面에서도 世界水準에 到達한 唯一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 나라의 寢臺列車에서 술마시며 떠드는 親舊도 飛行機(國際線)를 타면 떠들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外國人들이 消燈하고 조용히 들어누워 있는 것을 본받을 것이다. 나는 共同社會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 조용히 生活할 줄 아는 것이 文明人이라고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學校 教育은 再考할 點이 있다고 본다.

나는 中學三學年때에 金剛山修學旅行을 갔었다. 비로봉에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그곳에는 구메山莊이라는 旅館하나 밖에 없었다.

우리學生 一行이 묵고 있는 날 저녁 公교류 계도當時의 朝鮮總督府의 政務總監夫人, 道知事夫人等 日人 高官夫人들이 같은 旅館에 投宿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떠들고 놀았다. 高官夫人들은 참다 못하여 밤一時가 되어서 隨行은 警察署長을 통하여 學生들이 조용히 해주기를 付託해 왔다. 그때에 學生以外에 다른 손님도 없으니 그 손님들을 위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면 그交涉이 成功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警察署長은 政務次監閣下夫人이 投宿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付託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反抗期에 있는 우리學生들은 일부러 더 떠들었다. 再次 조용히 해달라는 要請이 들어

왔다. 이때에 우리를 引率하고 갔던 樋口先生(日人)은 高官夫人이면 第一이나? 學生을 理解하고 하루 저녁쯤 잠을 못자면 어쩌냐고

題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윈의 適者生存, 弱肉強食이라는 進化論의 法則이 한때 帝國主義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지만은 오늘의 世界가 共產主義라는 새로운 弱肉強食에 依해서 全人類가 또 다시 戰爭의 威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日常의 生活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살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라는 煙幕으로 둘러 싸우려 든다. 살기 위해서 하는 人間行爲는 嚴然한 限界가 있음에도 살기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人間社會가 文字 그대로 弱肉強食하는 金수(金)의 社會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三〇.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우리 俗談은 살기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思想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 俗談을 嚴格히 檢討하고 警戒해야 할 것이다.

「君子는 大路行」이라 했다. 君子는 大路를 떳떳히 活步하는 것이고 결코 어둠을 침범한 뒷말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君子之道이다.

서울은 마땅히 떳떳히 걸어갈 수 있는 公路를 걸어서 간 일이지 남불래 밤길을 걷거나 山길을 질러서 간다면 이는 결코 君子之道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三一. 길을 두고 뾰로깁다

는 俗談이 생겨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길을 두고 구며여 되길을 擇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分明히 길을 떳떳히 걸어갈 수 없는 罪人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公路로 가서는 어떠한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者임에 불림을 것이다.

五月革命前의 우리 社會는 매우 混亂의 고 어두운 世相이었다. 생각하면 世上 사람들이 모두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俗談을 그대로 實踐했기 때문이었다. 正正堂堂히 서울을 가려고 드

抗議를 하여 會談은 失敗로 돌아가고 우리는 밤새껏 떠돌았다.

그때 우리 一行은 樋口先生을 英雄視하고 尊敬하여 卒業때 까지 學生을 間에 人氣가 있었다. 지금 나이를 먹고 그때의 樋口先生의 態度를 생각해보면 그가 全部 贊했다고는 볼 수 없다. 恩春期 少年의 心理를 理解하고 學生을 爲하여 鬭爭해 준 것은 教育者로서 훌륭하다고 본다. 그러나 共同生活을 하는 데 他人에게 被害를 입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勿論 警察署長의 交涉方法도 좋았으나 反抗期에 있는 學生들에게 感情을 자극하는 言辭를 썼던點, 즉 交涉한 警察署長이 나이를 拒否한 先生이나 모두 民主主義에 對한 意識이 薄弱하였다. 學生이나 高官夫人이나 人間으로는 同等하다. 누구나 旅行을 할 自由가 있으며 돈을 내고 旅館施設을 利用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또 그 旅館을 많은 돈을 내고 獨占使用契約도 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被害가 없다. 그러나 한 旅館을 共同使用하는 데는 行動에 制限이 있으며 거기에는 當然히 公衆道義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에는 樋口先生의 態度는 教育者로서 再考할 點이 있다고 본다. 學生時代에 共同社會生活하는 데 個人으로서 지켜야 할 公衆道義를 無視하여도 좋다는 觀念을 넣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워싱턴에서 美國議會를 視察할 때 일이다. 길을 걷는 데 停止信號가 나는데도 不拘하고 나는 길을 걷느라고 하였다. 그때 우리 一行을 案内하던 「뉴저지」州의 議員이 나를 붙들면서 「貴下는 스페인 生命이 있습니까? 交通信號에는 判事도 國會議員도 없읍니다. 信號

를 違反하면 生命을 빼앗기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 하였다. 그 사람만대로 交通信號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爲해서가 아니며, 自己의 生命을 尊重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公衆道義를 지키는 것은 남을 爲해서가 아니라 自己를 爲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國民各자가 自覺한다면 우리 社會는 明朝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그後 美國 사람들이 얼마나 交通規則을 잘 지키나 보기를 위하여 새벽 三時, 四時에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호령에서 내려다 보았다. 사람이나 自動車가 하나도 없어도 自動車는 파란信號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市的 地下鐵停車場內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었다. 美國에 갔다고 韓國에서의 習慣이 되어 一夕에 쉽게 變更되지 않을 않는다. 地下鐵 停車場이 韓國의 汽車停車場같이 만 생각이 되어 담배를 곧잘 피우며 물었다. 그때마다 周圍의 西洋사람들이 나를 흘금 흘금 바라본다. 그러던 나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 또는 洋服에 무엇이 잘 못되어 있나 하고 나의 몸을 살펴 보아도 아무 異狀이 없음을 發見한 後에야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周圍를 돌아 보면 地下鐵을 기다리는 數百名中에 담배 피우는 것은 오직 「코리안」 gente만 인 나 뿐이다. 「注意 禁煙」 違反하면 二十五弗 罰金이라는 看板이 붙어 있다. 美國 사람이 나를 보기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二十五弗 罰金을 覺悟로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생각하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美國을 視察한 것이 아니고 내가 「君」을 보여 주려고 美國에 간 것 같다. 美國에서 파(BB)에 가 보면 참 조용하다. 혼자 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팔걸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山) 길을 걸어서 서울을 가려고 들었다. 모두들 도둑 길을 걸었던 것이다. 大路나 公路는 텅텅 비어 있는데 뒷팔목은 사람들이 짝 차서 비좁았다. 크리스도는

三三.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

라고 가르쳐 주었지마는 그러나 그門은 앞門이요 正門을 말한 것이 저걸요 뒷門은 아니었지만 뒷팔목만을 걸어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正門은 두드려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구비어 뒷門만을 두들겼다. 말걸이나 뒷팔목을 擇하고 뒷門이나 封窓만을 두들리는世相이었으니 어찌 社會가 混亂하고 秩序가 紊亂되지 않았으랴.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와 같은 社會現象을 國民만을 나무랄 수는 없다는 理由를 指摘치 않을 수 없다. 서울로 가는 公路를 가로 막은 者와 앞門은 굳게 閉鎖를 하고 뒷門이나 封窓만을 비스듬히 열 어둔 者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者는 果然 누구였는가?

五月軍事革命은 서울로 가는 公路를 원하게 되어 높았고 뒷門과 封窓을 막은 同時에 正門을 활짝 열어 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公路를 擇하지 않으면 서울에 到達할 수가 없게 되었고 正門을 擇하지 않으면 正樓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우리 社會에 「모르세도」가 두들리면 제일이 다」라는 時語가 流行하였다. 또 「모르 쓰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이 장두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 腐敗와 不正의 總本山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모든 舊惡과 腐敗를 一掃하고 國民道義와 民族正氣를 바로 잡는 國民運動이며 新生活運動이란 누구나 公路를 活步케 하는 運動이며 正門을 正堂堂한 姿勢로 두드리기게 하는 運動이 아니겠는가.

말이 아니던 들지를 말고 길이나 아니면 行지 않는 것이 君子之道다. 共產主義者들의 말들은 理致에 맞지 않고 그들의 진는 길은 모두가 地下道다. 그들은 世界 어느 곳에서나 大路를 끼러하며 寸속대로

하고 곧 親하게 되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심치 않게 술을 마시게 된다. 피아노가 있는 데 손님중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친다. 그러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初面不知의 사람을끼리 어울리어서 즐겁게는 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빠이는 殺氣가 흥만 하다. 절정하면 淸이 날르고 麥酒瓶이 날리고 한다. 그래서 빠이에 가려면 家族에게 遺言을 하든지 生命保險에 들고 비장한 자오를 하고 勇氣를 내서 決死的으로 가야 한다.

나의 明洞 어떤 빠이에서의 目擊談. 열 데 불에서 「상-페잉」을 터뜨렸다. 그것을 본 不知의 술마시던 親舊가 「근-사 한데」하였다. 「상-페잉」을 터뜨리면 親舊가 하는 말이 「남이야!」 「진방진 자식 같으니」 「우리는 祝賀하는 意味로 그랬는데 老兄이 그렇게 화내실 것 없지 않지요」 「누가 너보고 祝賀해 달랬어」 「怯이 많은 나는 外國의 終末도 求景 못하고 빠이에서 나와 버렸다.

이 光景을 보고 나는 빠이라는 制度는 우리 國民性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公開한 場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親할 수 있고 社交的이며 攻擊的이 아닌 西歐人이나 빠이는 適合한 施設 같이 생각된다. 우리 國民은 公開의 인 것을 싫어한다. 西歐人은 사람 보는 데서도 公然히 키-스를 한다. 또 우리는 社交的이 못된다. 自己防衛的이며 攻擊的이다. 이는 나의 생각으로는 劣等感과 欲求不滿과 外勢의 支配를 받아서 葛藤이 많은 것이 술에 취

再 建 論 壇

하면 攻勢的 行動으로 表現되는 것 같다. 하루 終日의

職場에서의 疲勞를 풀고 慰安을 받으려고 술마시러 빠이에 갔다가 같은 술親舊와 싸우지 않으면 女給하고 싸우기가 일수이다. 우리나라에 西歐의 制度를 輸入하기 前에 公衆道義에 關한 民主主義의 訓練段階가 必要한 것 같이 생각 된다. 假令 西歐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하고 축구 투구를 배우지 않으면 축구 競技하다가 負傷者를 많이 發生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빠이의 利用法을 몰라서 술마시다가 負傷者를 내는 것이다.

어떤 職場에서 點心時間에 甲이라는 사람이 乙丙丁이 點心을 먹고 있는데 구두를 신은 채 그들 앞의 冊床위에 다리를 올려 놓았다. 乙이 甲보고 다리를 좀 내려 놓으라고 付託하였다. 甲은 民主主義에서는 個人的 行動에 自由가 있으며 美國사람들은 冊床위에 다리를 올려 놓고 있지 않는다고 反問하며, 다리를 내려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事件으로 甲과 乙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그 事件이 그 職場의 長에게까지 알려졌다.

그 職場의 長은 美國을 비롯하여 歐羅巴를 다녔은 사람이었는데, 甲이 公衆道義를 지키지 않았다는 判定이 내려졌다. 以上の 例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美國의 風習이 잘못 傳해진 것이 많다. 民主主義에는 個人的 行動의 自由가 있지만 남에게 不愉快하지 않게 하는 範圍內에서만 個人的 行動의 自由가 許容되는 것이다. 우리는 自由와 방종을 혼돈하는 境遇가 많다.

우리는 共同生活을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不快感을 주는데 對하여서는 無關心한데 比하여 남의 純全한 私生活에 關心이 많다. 「남의 祭祠에 간 놓아라, 밤 놓아라」하는 格言과 같이 自己에게 아무 關聯이 없는 일에 干渉을 하

속사일을 밖에 모른다. 이것은 그들의 言行이 모두 正道가 아닐을 스스로 立證하는 것이다. 원래 속삭이는 말 가운데 正當한 말은 없고 도둑 길에 正道는 없는 법이니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國家再建에 國民의 總力量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러한 者를 十分警戒할 일이다.

三三, 밤말은 쥐가 들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말 없는 말이千里를 가니」 「鐵條網보다 防諜網」이 緊要하다. 세상에는 새가지의 무서운 골이 있다고 했다. 칼끝, 혀끝, 붓끝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도려골이 가장 무섭다. 말 한마디가 能히 自身을 亡칠 만뿐 아니라 天下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다.

三四, 절구가 깊으면 주둥이 긴 개가 듣는다

귀가 얇고 입이 가버운 사람에게 間諜은 接近한다. 술이 우겨지면 법이 들고 그릇이 더러우면 절음을 담는다. 우리의 日常生活에는 우리 스스로가 間諜을 불러들이는 言行이 적지 않다. 우리 俗談에

三五, 등치고 肝내 먹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間諜의 方法이 바로 이 俗談과 같다. 이 俗談은 사람을 속이는 手段이 非凡하다는 뜻이지마는 間諜은 그 手段과 技術이 더욱 巧妙하여 등을 치지 않고 肝을 내 먹는다. 등치고 肝내 먹는 것은 技術不足이요 傀儡 間諜은 우리 俗談 그대로 「세워놓고 노알 배 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三六, 물 다리도 두들겨 보고

진녀서야 하는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뜬 배 보인 물 다리 못밖에 무너지듯이 「설마 이 사람이……」 하던 者가 뜻밖에 間諜일 경우가 없다고 아무도 保障 못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實例를

서어비스精神과 社會生活

朴 術 音

서어비스란 말은 西洋文明의 輸入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서 처음에 奉仕라고 번역하였을 때는 몹시 서투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奉仕라는 漢文自體가 널리 쓰여지지 않았음에 基

因도 하였으려니와 서어비스라는 말에는 奉仕라는 比較的 새로운 말로 充分히 表現하기 어려운 뜻이 있음에도 한가지 까닭은 있었었다. 그러기에 아직도 注油所를 영어 그대로 서어비스스테인이니, 接待婦를 서어비스 걸이니 쓰고 있다. 이러한境遇에 注油所를 奉仕所, 接待婦를 奉仕婦라고 부르기도 어색하지 않겠는가? 마치 프로포우즈라는 말을 特

히 現代女性들이 흔히 쓰는 理由로 請婚이라는 露骨의 言辭 쓰기가 연구하기도 하려니와 어쩐지 예전 仲媒아비를 通하여서의 正式的 節次를 이 請婚이라는 말이 內包하고 있기 때문인 것까지도 같아.

여기에서 나는 서어비스라는 말의 뜻을 밝히 나가며 奉仕라고 번역하여 마땅한 境遇에 그 精神을 풀이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社會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엮어 보려 한다. 利他니시 중들이니, 심심이니, 等等的 奉仕의 類義語가 뜻하는 것으로서는 現社會의 傷處를 어루만져야 할 터이니 어렵겠고 오직 奉仕만이 우리가 때

어달려볼 最後의 柱인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어비스에는 일, 하인 노릇, 근무, 이인, 편인, 소용, 공갈, 공급, 시설, 음식, 제공, 제공된 음식, 점심, 개술린이나 오일이나 물 등을 자동차에 공급하는 곳, 기계 및 전기 시설 등의 부속품 등을 살수 있는 곳, 예배, 종교儀式, 정구 운동 시작때의 공 넣기 등의 뜻 이외에 「사람이나 시설이나 어떤 主義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奉仕라고 옮기고 싶은 내용이다.

한국의 국민은 너무나 가난하다. 李朝時代 封建制度 아래서는 官吏들에게 배웠었고, 日帝 때는 日人에게 財産은 勿論 말까지 배웠었고, 六·二五 事變에는 그나마 남았던 것마저 재때미로 되고 말았으니 이제 地主도 없고 財閥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恒産이라고는 없는 알 거지 신세가 되었다.

우리 不幸인 끝이 없어서 전쟁으로 또한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니 아버지 없는 어린이들과 남편 잃은 여성과 의지할 곳 없는 늙은 분들이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밥도 없어 지친 몸이 머리는 미칠듯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戰亂中 對共鬪爭에서 큰 傷處를 입은 傷痍軍警

적지 않게 보지 않았는가?

三七. 물은 건너 보아야 깊고 갈수록 맑고

깊고 짙음은 건너어 보아야 아는 것이며 사람은 겉어 보아야 그 人品을 알 수 있다. 銘心寶鑑에 萬壽海底는 알 길이 있어도 咫尺胸中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란만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오직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가슴 속인가 하노라, 그래서

三八. 아는 도끼에 발 찍히는

事例가 흔한 것이 間諜이란 어디 동떨어진 곳에서 숨어드는 것이 아니고 身邊에 있기가 일수이다. 그렇다고 中國의 戰亂時代처럼

三九. 사람을 보거든 도적으로 알라

는 것은 절코 아니다. 우리가 平素에 조금만 注意한다면 수상한 者는 곧 發見할 수가 있는 法이요 또 그렇게 조심성 있는 者에게는 좀처럼 間諜이 接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四〇. 바늘 끝도 자리가 있어야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 어느 산골에 美貌의 寡婦가 있었다. 밤이면 寡男子들이 담장가에서 으스스덕 거리는 바람에 寡婦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날 寡婦는 가까이 있는 절의 스님을 찾아가서 事情 얘기를 했더니 스님은 鐘을 치며 鐘소리까지 어떻게 들리는다고 하였다. 寡婦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딩·딩 개가(改嫁)하라 딩·딩 개가하라』 그래서 그렇게 들리노라 고 말한즉 스님은 그럴따면 개가 들하시오. 그릇男子들은 당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요, 말하자면 당시의 불려들이고 있는

들 조차 生活方途를 잃고 街頭에 방황하며 구원의 손을 기다려 보는 길 이외에 어찌할 바를 알 길이 없었으니 문제의 深刻함이 비할 데 없었다.

民衆의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政治人들은 말려진 權利를 이용하여 不正과 腐敗의 생활을 서슴지 않았고 어떤 機關의 運營責任을 진 많은 指導의 人物들은 事業體를 일으켜 보기는커녕 그것을 파먹어 대부분 결단을 내어 놓았으며 公務員들은 陰性收入에 눈이 어두워 일의 正當한 處理에 疎忽하였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牧者 없는 羊떼가 되어 버렸었다.

이에 따라 民心은 極度로 惡化하여 남의 돈 빚진 것 값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강패를 꾸며 남의 것 털어 먹기에 一部 壯丁들은 餘念이 없었으며 義理도 貞操도 信義도 廉恥도 體面도 모두 돈과 바꾸게 되었으니 흠이 나간 程度이 別로 없고 틀어지나난 機關이 보기 드물 程度이 別로 있다. 그리하여 이대로 나가다가는 스스로 아주 亡해 버릴 수 밖에 없던 때에 新生活을 強力히 推進하는 運動이 猛烈하게 일어났으니 이것이 革命이요 卽 奉仕精神 發揚 運動이다.

우리 韓國國民 個人이 一對一로 先進國 사람들과 겨루어 볼 때 遜色이 別로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머리가 남만 못한가? 體力이 남에게 떨어지나? 한 판 씨름을 堂堂히 해 볼만한 團體로서는 아주 貧弱하다. 卽 全體의 安全을 圖謀하여야 自己도 살 터인데 自己 혼자 安逸만 貪하다 보니 어느새 돌보는 사람 없는 배는 깨어져 모르는 사이에 自己도 水中孤魂의 運命을 免치

再建論壇

못하게 되는 現實이다.

내가 學校에 關係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번 입학 시험에 관계 하였었는바 成績 査定에 不正한 處事가 있을 때에는 處罰을 달게 받겠다는 뜻의 誓約書를 當局의 要請대로 내면서 限額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卽 教育者로서 왜 過去에 不正入學을 시킨 사람이 있었을까? 남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誓約書가 두려워서 不正을 억지로 犯하지 않도록 되었다면 寒心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社會가 發展해 나가는 原動力으로 生物學者나 文學者生存을 指稱했고, 亦是 生物學者인 크로포킨은 相扶相助를 들었다. 두가지가 다 옳은 말이나 오늘 같이 疲弊된 韓國社會에서는 後者인 서로 돕기를 勸獎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日帝末期와 避難時에 그 대도 목숨이 붙어난 것은 舊來의 家族制度, 이웃 四寸의 觀念, 韓國은 人情의 나라라는 寬容 및 美國 援助物資의 德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世界政策의 가장 무뎠한 目標은 窮乏을 막자는 것인데 이것을 實現하는 데는 서로 주먹질하여 빼앗아 먹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마음, 적은 分量으로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 주는 生活의 첫 걸음이다. 그러면 答案은 나왔다. 卽 健全한 社會生活는 窮乏除去에 있고, 窮乏除去에는 奉仕精神이 上策이라고. 이번 革命으로 奉仕精神을 忘却했던 責任者들의 罰받고 있는 實情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 어떤 社會에서나 모든 사람이 自己의 功의 것을 먹고 自己가 할 일을 하면 健全한 社會는 이루어진다. 누구나 이제는 깨었으므로 利用 當한 사람은 없다.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으로 되었으니 남을 위해 주어야 自己도 爲함을 받을 것임은 누구나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筆者: 徵文中高校長)

것이라고 말했다는 古談이 있다. 이는 그 寡婦의 心地가 단단치 않았음을 말해 주는 警告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間諜의 무리를 스스로 불러 들이는 言行이 없는가 항상 단단한 心地를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정말

四一, 옛말에 그를 말아 없다

俗談이 옛말이란면 俗談엔 그런 말이 없다.

四二, 아이 말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다

는 格으로 俗談이라고 해서 웃어 넘기거나 그야말로 俗談으로만 외칠 것이 못된다. 千萬字의 글을 한 句節로 멋있게 엮은 것이 俗談이요 人生의 살아 있는 哲學이다.

四三,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는 俗談은 衣食이 足해야 禮儀를 안다는 漢學의 分자보다도 더 切實하다. 衣食이 足해서 비로서 禮儀를 안다는 對句로는 「金剛山 구경도 食後」라는 俗談과 뜻이 通한다. 「먹는 것은 남이 몰라도 입는 것은 남이 안다」라는 俗談에 붙어 들게

四四, 衣服이 날개

라는 俗談이 한때 우리 社會에 文字 그대로 날개를 펼쳤던 것이다. 틀어지면 죽을 먹는 사람이 라도 나오면 巴里에 가져다 놓아도 遜色이 없는 流行의 尖端을 가는 옷차림이 있었으니까. 素朴한 相對性原理論을 빌린다면 그와 같은 奢侈한 옷차림이 아니코는 行勢를 할 수 없는 社會風潮라는 相對가 한층 더 衣服을 날개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行勢한 것이 아니요 衣服이란 날개가 行勢하는 世相이 있다. 이제 이 같은 頹廢한 思潮가 漸次 清算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現象이며 「漢江邊의 奇蹟」을 이복하는 一大 交響樂의 前奏門일 것이다.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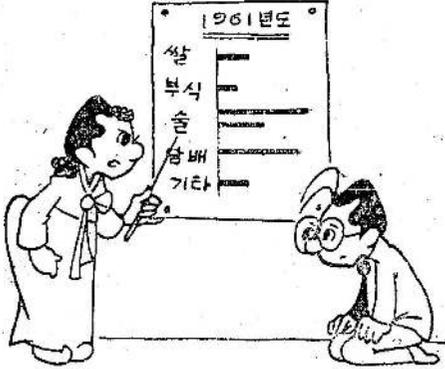
送白迎新



李相昊

자 - 그럼 지금부터 프리핑을 시작할테나 끝난후에 기탄없는 의견을 제출하기 바래요---

李先生! 事務引繼 하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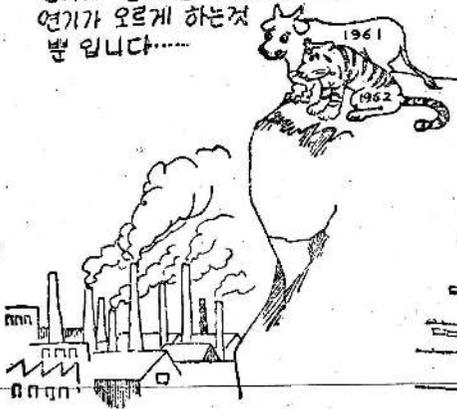


1961년도	
쌀	_____
부식	_____
술	_____
삼배	_____
기타	_____



미결 사항은 저기 연흥에서 아직 연기가 안오르는 공장에서 속히 연기가 오르게 하는것 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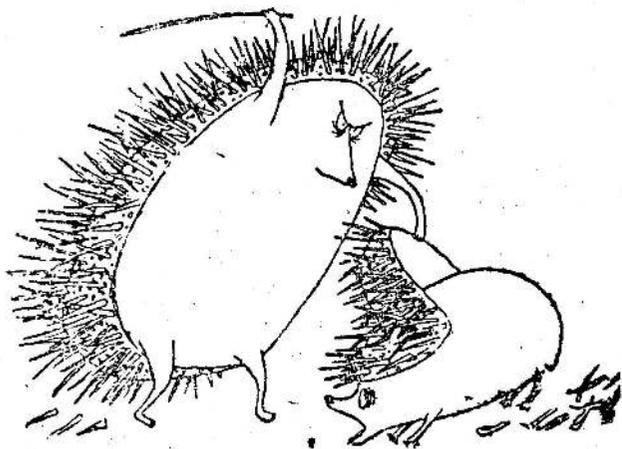
「저- 가두 녹음 방송반 입니다 이번 이 새해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건설적인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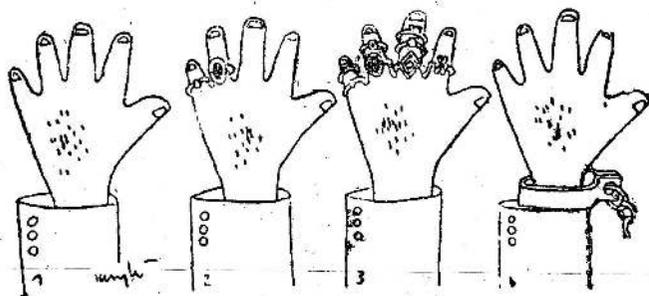
海外傑作漫畫

긴텔·칸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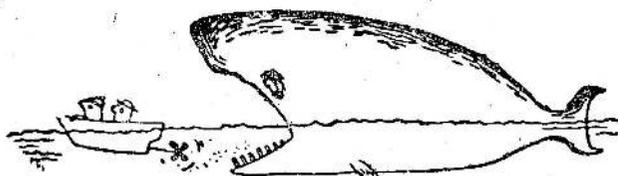
△고슴도치의 뿔楚▽



△아름다운가락지는
아름다운팔찌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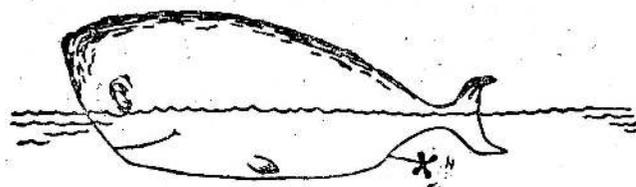


①



②

△無題▽



手術臺에 오른 四個舊惡

우리의 惡惡에는 몇가지의 根源의인 「病態思潮」가 있다. 이 病態思潮는 進行中에 있는 民族性 改造라는 手術臺에 올라서서 切斷手術을 받고 있는 中이다. 여기 一九二二年的 새아침을 맞아 「病態思潮」의 正確圖 解剖해서 逐出하는데 拍車를 加한다.

감투論 趙豐衍



序章 「감투」의 語源

楊子方言에는 箱子類라 하였고, 廣韻에는 버리를 덮는 것이라고 하였다. 古代 下(筆者註 망이를)에 發達된 것으로 紗帽의 變形이라고 볼 수 있다. 사오는 朝服의 儀式用으로 되었으나 감투는 일상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開詔漫錄에 보면 壬辰倭亂 이후 士族들이 裝束을 썼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감투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近者에는 버슬하는 자만 감투를 쓰

고 平民은 쓰지 못하였으므로 仕官하는 자를 「감투를 썼다」고 하는 말이 생겼다.

(學園社 大百科辭典)

第一章 僞裝用語 「감투」

과연 감투는 머리에 쓰는 것이요, 버슬아치가 쓰는 것인데 틀림없다. 士農工商의 序列에서 맨 끝대기가 仕官한 자라면 바로 그 끝대기에 걸린 것이 「감투」다. 말하자면 감투는 그것을 쓴 자의 階級을 나타내는 「유니폼」이다.

아다실이 유니폼은 自身的 資格을 誇示함과 同時에 明示하는 것이니, 着用한 이상에는 義務履行의 行이 따르게 原則이다. 일단 감투를 쓴 자가 行篤敬하고 言忠實하지 못하면 모름저기 감투와 함께 모가지가 날아가는 법이다.

그것을 無視하고 밀도 끝도 없이 解放후에 流行한 「감투」라는 用語는 「權力」이라는 無形物의 象徵語로 되었다. 正確히 말하면 「감투를 쓰면」 자들이 지니었던 權力을 가진 자의 通稱이다. 사실로, 그런 자들이 감투처럼 유니폼을 着用하고 그 유니폼에 沾하는 責任을 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말쑥한 紳士처럼은 하였으나, 民主主義社會의 「公僕」이라는 일을 맡았으면서 別로 責任感도 없는 部類의 通稱이 「감투」다. 一言而蔽之 「감투」는 貪官汚吏의 別稱처럼 되었다.

왜냐하면 버슬 안하면 사람이 버슬을 하면 「감투 썼다」하는 것은 事理에 相當하다. 그러나 「큰 감투」 「작은 감투」라는 말은 어디 당한 소리인가. 대관절 그 크고 작다라는 말은 무엇일 뜻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權力을 뜻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다.

모든 公僕이 貪官汚吏는 물론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仕官하는 사람을 우리 庶民은 두 階級로 區別해 對한다. 「저 사람은 큰 입을 말았군」 「한 단가, 「저 사람 重責을 졌는데」 「한 단다든가 하는 宜之當然의 버슬아치와, 「이르 큰 감투 썼군」하는 것과의 差異는 天壤之判이다.

그러니까, 「감투」는 百科辭典의 權力이라는 現實的으로 僞裝되어 通用되고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 없이 좋은 말은 아니다.

第二章 椅子의 威力

「감투」는 오늘날 버슬아치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士」를 빼고도 「農工商」이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權力만 行

使할 수 있는 터이면 모두 「감투」다. 銀行長이 되어도 「감투 썼다」 하고 심지어 國民學校師範會 理事를 되어도 「감투 썼다」한다. 물론 「組合長」도 「감투」요, 新聞倫理委員도 「감투」다. 이라고 보면, 어떠한 公職이나 報酬나 權力과는 상관없는 名譽職이나 「감투」는 通用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감투」라는 語義에서 흘러나온 愛稱에 不過하며 一種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므로 「감투」가 僞裝用語라는 本質이 이로써 變化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權力의 「심볼」들이 事實上 「감투나 帽子」는 쓰지 않아도 册床과 椅子만은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册床과 椅子는 職位에 따라大小와 良不良이 다르니, 굳이 말한다면 「감투가 아니라 「椅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어느 社會를 가든지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生存競爭의 하나로 「자리」가 「대물」이 매우 熾烈할진대, 자리가 即 現代語로 椅子의 威力이 現實的이 아닌가 한다.

왜 그러면 「큰 자리」 차지 했군」 하지 않고서 「큰 감투 썼군」하는 말이 더 實感이 있겠는가. 여기 대해서는 「감투」란 말이 고개를 들고 傳之傳唱된 時期가 八·一五解放 直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日本統治 아래서는 高等文官試驗이라고도 퍼트스안해 가지고는 仕官다운 仕官을 못하면 터인데, 解放이 되자 막대한 勳몰이 터지듯 仕官者가 續出하여 우선 「감투」가 切實感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자리 亦是 無形의 象徵語임엔 틀림없다. 앉을 자리도 없이 비록 삼배 조각에 大書한 福徳房임당정上

下的 자리가 分明하고 장래의 世界나 拘置人의 世界나 地下工作하는 共產黨의 世界에도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을 것이다 고야아 음을 짓는다. 다름이 없고 들면 자리는 有形으로 나타내는 椅子도 어찌 수상하지고 점차 「감수」와 性格이 남아간다.

第三章 자리를 지키는 威力

자리는 權力行使를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요, 權力의 階層에 좇아서 上下가 區別된 것은 아니다. 必要不可缺의 原則에 의해 마련된 자리는 階層이다.

그러니까, 原則적으로 그 자리에 그 人物이 앉아 있는 것은 必要不可缺할 뿐더러 가장 秩序가 잡힌 所以然이다. 다만 이 자리가 때의 흐름에 따라 變動하는 것은 사람의 살갓이 때의 흐름에 따라 脫皮하는 것처럼 自然스런 新陳代謝일 뿐이다.

사람의 살갓은 칼로 도려내기라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밀리지 않듯이 사람의 자리도 제멋대로 밀릴 수는 없다. 한편 때가 커지거나 強烈한 日射를 받고 한겨울 허물이 풀지에 벗겨지는 경우가 사람의 자리바닥에도 물론 있다. 또 惡菌이 들어 化膿하와 手術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整形手術을 하 자연이 健全狀態는 아닌데, 生命을 保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살갓 그것이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白血球와 對決하는 赤血球라는 頭腦라는 知性的인 作用하는 것뿐이다. 위에서 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몇 가지 를 탐내서 다룰질하다가 마침내 中

傷과 謀略에 消日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寒心한 일이다.

가장 빠르게 잊자리로 옮길 수 있는 捷徑은 그 말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자리를 지킨다는 일은 자리에 固定하는 일은 아니다. 벽을 하나 하나 뜯는 것이 아니고 快速히 쌓는 자만이 더 높게 담을 쌓을 수 있는 것과 후 같다. 자리를 잘 지키는 자는 멀지 않아 더 높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가장 참고 견디는 자는 가장 많은 일을 한다.」 (밀튼)

『德不孤, 必有隣』

『觀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論語)
(사람의 行爲에 그하는 바를 보고 그 動機를 觀察하고, 그 狀態를 살펴 볼 때 그 사람의 本性은 드러나고 理解된다.)
여기 적당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나 얼른 생각나는대로 어쨌든 引用하고 싶은 말이다. 또한 論語에서 끌어 내면

『德不孤, 必有隣』
(착한 行爲에는 반드시 理解者가 있다) 하는 가장 普遍인 敎訓이다.
革命課業 長期建設에 나는 『제 자리를 지키라』라는 口號가 어느 때이고 반드시 나오리라 고 믿는다.

第四章 제 자리와 남의 자리

제 자리에 充實하여 固守하는 것만 도 奇特한 일이라고 하겠다. 옆에 불꽃이 떨어져도 제 자리만 지키는 것은 馬車 立는 말이나 다름 없다. 어느 사람이 美國에 가서 野球구경을 한 이야기들 이렇게 말한다.
美國의 野球場은 座席이 꽤 길게 붙

어서 들들이 복도가 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니까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스크림 장수와는 너무나 距離가 멀다. 그러나 손을 번쩍 드니까 아이스크림 장수는 크림을 바로 제 앞의 사람에게 주고서 패스시켜 달라고 한다. 그 사람이 크림을 받아 다시 그 결의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결의 사람은 다시 그 결의 사람에게... 이런 하여 아이스크림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旅行을 해 到着되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값으로 돈이 또한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旅行을 한다. 그것이 萬若 거 서문은 要할 때는 마친가치로 다시 한번 橫斷旅行을 할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조금도 실은 낮을 안하고 입을 담은 채 넘겨주고 하는 것이 感銘의 일이었다고 한다.

나도 몇 차례 美國인과 더불어 食事を 함께 자란 일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도 그릇이 제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으면 팔을 펼쳐 집을만 해도 그렇게 안 하고 그 조금 그릇 앞에 앉은 사람에게 조금 그릇을 집어 달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네와 아주 다른 점이다. 바로 日前에 나는 어느 국수집에 들어갔었는데 파그릇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따라 그 앞에 앉은 손님에게 집어 달라고 할 수 없었다. 집자 내 옆의 사람 飲食위로 팔을 펼쳐야 하겠으므로 하는 수 없이 심부름꾼에게 파를 달라 한 적이 있다.

에다 보면 미국인들이 조금도 꺼리낌 없이 조금이나 후추가루 그릇을 집어 달라고 할 일이나 現實의 이요 友好의 인가 느낀 일이 있는데 美國의 野球場에서 아이스크림과 돈이 橫斷旅行

을 한다는 것은 꽤 神奇하게 들렸다. 그러나 눈을 흘이켜 野球하는 競技場을 보면 神奇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野球란 原來 제 자리를 지키면서 同時에 남의 失手를 깨닫게 하는 運動競技이다. 가령 內野飛球을 잘 던질 때, 投手가 손을 번쩍 든다. 그것은 제가 잡혔다는 信號이다. 그러나 그가 或 失手할까봐 소나나 세찬이 뒤쫓아 온다. 이때에 一壘수가 제 베이스를 밟고 投球을 기다리는가 하면, 어느 틈에 右翼手 아니면 捕手가 一壘手 뒤에 대서 있다. 野球의 참맛은 打擊戰에 있고, 投手戰에 그치고 마는 경우에도 아를 담고 재미있는 까닭은 바로 이 協同作戰의 아름다움을 無視 못하는 때문이다.

제 자리를 지키면서 남의 자리를 밟아 발질하는 것이 民主主義 思考方式이요, 아름다운 人生의 플레이이다.

總章 갈수록 연명.....

美國에서든 新入生은 프렛슈먼이라고 공갈 부르는가 보다. 여기로 말하면 때 때로 받고 氣合도 받는 모양이다. 한테라야치고 빼앗는 것은 아니고 寄宿舍 같은 데서 하지 심부름도 잘 걸리고 이따금 上級生에게 이데스크림게나 사 받쳐 주는 모양인데 一部 大學에서는 프렛슈먼의 표적이 나도록 一定期間 新入生만 쓰는 帽子를 着用하는 것이다. 「나는 新入生 이외의다」 표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勿論 一年만 있으면 이미 新入生은 아니요, 비정한 上級生이 될 것이 約束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苦難을 치루는 것뿐이다.
나는 그런 風習이 좋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구배어 우리나라에서도 「잡투」를 誇示하고 싶으면 「新入社

공자論



員 미스터李를 드러내는 어느 一定期間만 잡투着用을 許容하도록 할어의 몇가. 수치가 아니라 定당한 자량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
A 筆者 · 소년한글일보主幹

벌써 七、八年前的 일이지만 그 무렵에 나는 혼자서 地方旅行을 다니다가 偶然히 天安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일이 있었다. 旅館에서 저녁밥을 먹고 거리를 돌아다니니 客舍에서 기다지머지않은 곳에 假設劇場이 하나 있었다. 나는 저들이 가는 客地에서 劉曉한 트럼펫소리를 듣는 순간, 야릇한 鄉愁感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劇場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하여 劇場門前에 當面해 보니 이날밤의 上映物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國產映畫였었다. 나는 時間도 보내고 시골 觀覽客들의 觀覽風景도 살펴볼 겸 해서 서슴치 않고 觀覽券한 장을 사가지고 場內로 들어갔다.

場內에 들어서서 于先 놀란 것은 觀覽客이 超滿員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워낙 小規模의 假設劇場이어서 收容人員이 二百餘名이 될까 말까한 정도이기는 했지만, 如何든 收容人員의 多少는 莫論하고 그날은 超滿員이 무었다면 興行面으로 보아서 大成功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음) 地方 映畫館의 興行成績이 이만하다면 國產映畫의 將來는 크게 發展할 可能性이 濃厚하구나.....)
나는 地方人士들이 映畫에 그만큼 關心이 깊어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座席에 앉지도 못하고 신채로 求景하였다.
映畫의 內容이 그다지 神通하지 않아서 골짜기에서 求景할 價値는 없어 보이기에 나는 折半쯤 求景하고 劇場을 나오다가 門前의 祝賀의 뜻을 兼해서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오늘밤 興行成績이 大端하구나!」
그러자 門前에 成線인 사람이 쓰디쓴 表情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다음과 같이 對句하는 것이었다.
「취요... 사람이 많이 들었구나요.

구경꾼은 많아도 죄다 공자뿐이고 正작 票을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二十名도 채 못된단다.
나는 그소리를 듣고 大驚失色을 하였다. 有料觀覽客은 二十名도 채 못된다고 남어지 사람들은 죄다 공자라고 하니 나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理解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緣由를 仔細히 물어보았더니 그는 매우 親切하게 說明해 주었는데 그의 說明을 들어보면 모두가 그렇듯 하였다.
공자 觀覽客들을 種別로 따져보면 거의全體가 劇場經營과 直接間接으로 關係가 깊은 警察官, 消防署員, 青年團員, 傷疾軍人, 郡廳이나 邑事務所의 職員들로서, 劇場經營主로서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들을 發示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공자로 들어보내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 觀覽客 한 사람이 으레 家族과 親舊까지 列을 지어서 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그렇상 싶었다. 天安같은 작은 都市에 사는 사람으로서 上記 몇 개의 團體와 關聯이 全然없는 사람이 果然 몇사람이나 되지는가. 그러고 보면 二百餘名 觀覽客 중에서 有料觀覽客이 二十名도 채 못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劇場은 亡하는 수밖에 없고 따라서 國產映畫의 發展이라는 것도 絕對로 期待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어찌 天安邑에 限한 일이며, 그것이 어찌 映畫하나에만 限한 일이라. 專業家가 政府의 財物을 공자로

먹으려는 데서 經濟가 破產하였고, 公務員이 돈을 공자로 먹는 데서 國政이 腐敗하였고, 個人이 남의 호주머니 돈을 공자로 낚아 내리는데서 社會가 混亂해졌다. 그리고 보면 공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分明히 亡國의 行爲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都大體 이世上에는 공자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 商品을 製造하는 데는 生産費가 반드시 들기 때문에 그 商品을 入手한다면 그만큼 代價를 치루야 하는 것이 當然한 일이고, 映畫를 求景하려면 觀覽料을 支拂해야 하는 것은 常識以下의 常識이 아니고 무엇이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己것은 限死코 代價를 받아가면서 남의 것이든 代價를 치루려고 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의 心思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現象은 서울에도 相當하지만 서울보다는 釜山이나 大邱같은 二流都市가 더하고 二流都市보다는 三流都市가 더하다. 그리하여 天安같은 小都市에 이르러서는 二百餘名 觀覽客에 有料入場者가 二十名도 채 못된다는 悲劇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공자를 좋아하는 氣風이甚하다는 것은 그만큼 文化水準이 낮은 데서 오는 強食弱肉의 原始的인 遺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都大體 그러한 공자氣風이 盛行하는 原因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 原因은 物質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후자에 초점을 가만히 두어야 하는 것 같다. 生活이 豊足해져서 觀覽料이라고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면 누가 苟且스럽게 體通을 損傷해가면서 공자 求景을 하려고

덜리라. 映畫는 보고 싶은 데 돈은 없으니가 不可不 權力이나 職權을 등에 지고 공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觀覽料은 문제에서 단사할일수록 오히려 音樂會나 映畫求景을 공자로 하려고 애쓰는 氣風의濃厚한데, 그것은 物質의 이기 보다는 氣分과 心理의 면에서 오는 現象으로서, 그 心理야말로 官尊民卑思想에서 오는 睡藥할 特權意識의 發露인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내地方에서 興行하는 音樂會나 劇場에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게 할 것이 되느냐 하는 心理—그것이야말로 特權意識의 端的인 發露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參考삼아 그런 모임에 가서 實地風景을 한번 살펴 보라. 공자觀覽客일수록 優待席에 큰 일곱로 버티고 앉아서 光景을 目睹하게 되는데, 공자觀覽者가 堂堂한 有料觀覽客보다도 크게 도사리고 앉아서 큰 기침을 한다든 것은 經濟의 法則에도 벗어나는 일이지니와 道義의 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 아니겠는가. 그런 現象은 先進國家에서는 藥에 쓰려해도 찾아볼 수 없는 後進의 現象이라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萬若 그 方面의 監督者라고 해서 或은 그 地方의 有力者라고 해서 무슨 일이나 공자로 通해도 無妨하다고 한다면 遞信職員은 郵便物을 공자로 내는 것이 當然하고 稅務官吏는 税金一切을 納付하지 않아도 좋다는 理論이 成立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결단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意味에서 나는 鐵道局員이 公務執行以外의

私事旅行에도 無賃乘車가 容許되는 것을 反對하는 者의 한사람이다.

공자氣風이 盛行한다면 그 結果가 社會發展에 미치는 惡影響이 무척이나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공자氣風은 潛在的인 特權意識의 發露이기도 한만큼 공자가 盛行하면 그만큼 反民主的인 氣風이 助長된다. 그리고 마늘도둑이 절구에는 소도둑 된다는 俗談格으로 映畫求景이나 演劇求景을 공자로 한다는 意識은 거기에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心理가 바로 賂物을 바라는 心理와 連結되어서 社會紊亂의 原動力이 되기도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공자가 많다면 그 方面의 產業은 그만큼 經濟的 打擊을 받아서 萎縮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有料觀覽者없는 映畫製作이 어떻게 運營되리, 冊이 공자로만 메워진다면 出版業者가 어떻게 事業을 계속하며, 物品을 그냥 가져간다면 生産工場을 무슨 힘으로 維持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나 그뿐이랴. 공자를 바란다는 것은 換言하면 不勞所得을 바란다는 心理인만큼, 그것은 必然의 勤勞精神을 弱화시켜서 社會全體를 後退케 하는 可惡한 現象을 招來하게 되기까지 한다.

以上 말한 바와 같이 觀覽券一枚를 공자로 얻어내는 心理는 그것이 至權히 적은 일 같으면서도 結果의 으로는 權力을 남용하여 社會秩序를 紊亂케 하고 나아가서는 國家를 亡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正當한 報酬를 치르고 몇몇하게 얻는 새로운 氣風을養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氣風이야말로 참된 民主社會建設의 基本精神이라는

강패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強力히 主張하련다.
▲筆者·作家▼

成百義

한글 큰사전을 보면 「강패란 不良輩의 俗된 말」이라고 쓰여 있다. 不良輩란 不良한 무리(群)의 集團을 말하고 反社會의이며 社會의 適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非合理的인 團體를 意味하고 있다.

解放後 兪놀렀던 日政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 社會에는 潮水처럼 밀려온 自由와 民主主義의 副產物로 강패라는 不良輩가 생겼으며 그 數는 尠로 增加하여 五·一六直前까지 幾何級數의 增加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강패라는 말을 신체가 두터우거나 면저 쓰게 되었는데 그 語源이나 語意는 찾아내기 어려운 일이나 解放後 「가다」 「이제」 「장」 「장패」 「말도스죽」 이라는 순서로 變化되어 왔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다.

무나 슬픈지 등을 물어 볼 수 있는대로 어깨를 넓게 보이라고 애 쓴 所謂 「평가다」의 風潮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가다」라는 말로 表現되었으며 直接的인 暴力行보다 威脅으로서 相對方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컸었다. 그때 있었던 寓話가 생각난다. 電車 안에서 어느 女學生이 유난히 넓은 어깨를 가진 男學生을 發見하고 호기심이 나서 그 男學生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男學生은 女學生이 쳐다보는 視線에 호탕함을 느끼고 女學生이 電車에서 내려가 웃어서 내려가게 되었다. 女學生도 따라오는 것이 싫지 않았던지 같이 걷게 되었는데 좁은 길로 들어서자 어깨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그 바람에 男學生의 어깨에 끼어 있었던 내나무가 떨어져서 한쪽 어깨가 갈라지니 페르르더니 소대사이로 나무가 빠져 나오게 되자 男學生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때 女學生은 장롱이 었구나 하듯 한마디 하고 짐으로 가서 한바탕 웃었다고 하였다.

「가다」라는 말은 日本語로 「이제」를

뜻하고 있는 말이다. 寓話中에 女學生이 「장태」란 말은 속이 빈 것을 말한 것인데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하는 學生의 마릿속을 表現한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 「장태」란 말의 語源을 더더가서로 해석하려고 하나 그 正確한 것은 알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장」이라는 것은 無法的인 西部式 尙映畫에서 影響을 받은 無知하고 狂의인 醜惡의 模倣이고 非合理的인 行動을 뜻함은 否認할 수 없다고 보며 「태」란 말은 무리(群)의 俗된 뜻으로서 西部式인 「장」에서의 「장」과 韓國의인 「태」가 複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時代的 潮流는 우리 社會의 特色 있는 反社會的 癡으로서 根本的인 對策이 있어야 할 社會問題이다. 장태라고 하면 그 對象을 주로 젊은 사람으로 한다. 그 歷史的 發展過程이나 分類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研究하여야겠지만 이 장태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世界的 問題이다. 英美에 있어서는 「비트니」 獨逸에는 「가주잠파」 日本에는 「太陽族」이라는 靑少年들의 集團이 있어 成人들의 功績을 앞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四·一九以後 장태에서 進化한 一部의 靑少年들이 「람로스族」이라는 이름으로 비트니를 흉내 내고 있다. 비트니의 特色은 구름의 信條를 만들어 규율을 세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폭력을 禁止한다 犯罪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等等的 傳統이 있는 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람로스族은 無分別하고 狂暴의인 行動으로 原始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原始時代的 動物의 이들을 쓰고 있다. 그

들은 極히 反社會的인 행위를 함으로써 英雄心을 자극하여 여러가지 犯罪 할 수 없는 일이고 있다는 事實은 장태의 年齡分布는 十代부터 四〇代까지로 되어 있어 所謂 二世·三世·四世·五世까지의 非組織的 組織으로서 변장하고 있었다. 장태社會의 組織은 一律的인 것이 아니고 「로스」를 中心으로 하여 地域적으로 區分되어 있다. 五世는 派十代靑年들로서 退學生을 위시하여 學校에서의 버림받고 가정에서의 不滿을 채우려고 지리에 모여 善良한 學生들을 相對로 暴行과 金品을 탈취하고 신배(兄弟) 이 社會에서의 最高의 존칭은 兄님이다(들의 심부름을 하며 방 집이나 音樂감상실 등에서 노는 集團이다. 四世는 二十代靑年들로서 高校는 卒業하였으나 가정환경으로 또는 大學應試에 不合格이 되고 希望한 進學이나 취직도 못하여 無職者로서 한 일이 없고 보니 거리에 나가다가 장태社會에 흡수되어 신배들에게 認定받고 싸움에 이음때 先鋒에서 서며 賭博等을 하여 스릴을 不安에서 지내는 集團인데 十代靑年들이 계속 進級하는 경우도 많다.

三世·二世는 成年으로서 장태生活을 生計를 위한 수단과 方法으로 삼고 입찰을 할 때라든가 政治家들의 使賂를 받아 職業的 活動을 하며 민수입 賄去來等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暴力에 의존하여 후배들에게 맡기는 것이 物色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一世는 충지도자적인 位置에서 政治的 地位도가 되고 政治家들과의 結託으로 利

權을 不正選舉等의 指揮를 하여 왔기 때문에 장태政治라는 말도 쓰여졌던 것이다. 이렇게 社會의인 問題로 化한 장태는 왜 되는 것이며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의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非人間으로 輕蔑하고 멸시하기 전에 가져야 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행동이나 生活이 社會적으로 認定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尙상 不安과 갈등으로 그 社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社會는 너무도 차고 그들을 輕蔑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따뜻하게 理解해 주고 善導하여야 할 것이다.

장태가 되는 과정은 여러가지 原因과 理由가 있다. 첫째 그들은 따뜻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父母와의 關係 繼母 繼父 兄弟間的 시기 경쟁적인 不安과 情緒的 갈등에서 견디어 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뛰어나오며 學校에서 沒理解의인 先生과의 對立과 戰爭과 災害로 因한 社會的 不安이 靑少年들을 장태라는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된 그들을 社會에서는 소외시켜 천대하고 멸시하고 非人間의인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不幸을 더욱 惡化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과 학교 社會에서의 버림을 받아 自己들끼리 社會에서 이루고 反社會的 수단으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人生行路에 있어서의 思春期的 特性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지 모는 生活에 適應을 못한 것이다.

李君은 현재 市內에서 시밭에서 온 전수로 고된 생활을 하며 老母와 同生을 돌보아 주며 새로운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우연히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永登浦로 가고 있었을 때 그는 나에게 무척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 주었으며 料金도 절반 밖에 받지 않고 성실하게 해주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명칭히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그는 先生님 다음에도 제車を 利用해 주려고 한다고 하며 말을 남긴채 가버렸다. 그일이 있은후 시내에서 가끔 그를 만나 차를 타곤 하였었다. 그후 얼마 지나서였다. 내가 忠武路 某茶房에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말속하게 차를 탄 靑年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처음에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보지 못하였는데 그는 불속 자리에 앉으며 선생님 사발 때 시운전수 李○○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친척이나를 때 해준 택시 운전수 李君임을 알아내었다. 뚝딱히 李君을 만나 반가운 마음 그지 없었다. 나는 李君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장태의 두류 「장」이라는 사실과 그가 장태生活을 하려면 과정을 말하여 주었다. 李君은 當年二十八歲의 靑年으로 그의 故鄉은 서울이다. 父親은 李君이 國民學校 二年時부터 養育院에서 別居하였으며 母親을 돌보아 주지 않았고 가끔 學費를 타러가는 李君을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하여 물려보였었다. 李君은 하는 수 없이 그때

부러 新聞을 돌리며 苦學을 하여 국민 학교를 졸업하였다. 二後 進學하고 싶은 意欲은 컸으나 母親은 病으로 누어 있고 어린 同生도 돌보아야 할 李君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李君은 자포자기하듯 집에서 나와 거리로 다니면서 不良少年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市內 都心地에서 장패가 되어 暴力과 非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五年前 暴行事件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二年間 刑務所에서 보내게 되었다. 李君이 刑期를 마치고 나왔을 때 自己의 동료들처럼 李君을 냉대하게 되자 李君은 더욱 큰 反抗意識을 갖게 되어 타치는대로 싸움과 狂의인 狂僻행위로 주위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우연히 未亡人인 吳女史를 알게 되어 吳女史로부터 따뜻한 母性愛를 느끼게 되자 李君은 吳女史의 指導를 받게 되었다. 吳女史는 子女도 없는 獨身으로 商業을 하고 있어 經濟的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이 六·二五當時 戰死後 尙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면 아들과 같이 대하여 주었으며 社會의 비난을 받고 있는 장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함 吳女史의 따뜻한 同情과 理解性 있는 指導가 狂暴한 李君의 마음 을 움직여 어린 李君이 순진하게 만 들었고 昨年부터 自動車 운전을 배우게 하여 지금과 같이 택시 운전수로 만든 것이다. 李君은 感慨無量하게 말할었다. 李君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李君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不幸했던 과거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

을 만치 善良한 青年인을 發見하였다. 이와같이 李君의 경우는 特例의인 것으로서 不良輩의 善導의 可能性을 證明하여 준 것이다. 人間의 行動에는 아무리 저은 것이 라도 그 行動에 原因이 있으며 動機가 있다. 그러므로 장패들의 社會의 適應을 시도하기 위한 善導策을 調和된 社會的 對策이 必要함은 勿論이다. 우리 社會는 이를 反社會的 癡인 장패들을 친대와 멀지 않게 하기 전에 그들 을 먼저 理解하고 社會의 適應시

백 論



우리나라사 랑치고 「백」 이라는 낱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 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이런 말이 없다. 해방 후에 생겨 動亂이후에 流行을 본 外來語 「슬랭」이 기본이다. 外來語에는 원래 영웅한 것이 많다. 本來의 뜻이 訛轉 된 것,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저어진 것이 그

거진전한 人間으로서 社會에 받아들 이려는 國家全體的 시도가 하루 속히 준비 되어야 하며 응보적인 思想으로 처벌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다. 그리고 이들은 一種의 精神的 으로 진장치 못한 사람으로 마음의 병 을 가진 환자라 칭할하고 同情의이며 科學의이고 個別的인 保護政策으로서 治療하지 않으면 決코 善導될수 없다 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패도 우리와 같 이 같은 同族이며 大韓의 아들 말임 을 주장하는 것이다. 筆者 高大 心理學教授

李 寧 稿

대부분인 것이다. 「P. R」이란 말이 있다. 商業의 宣傳이나 廣告의 代名詞로 불리워지는 外來語이다. 그러나 「피이·아일」의 본뜻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企業과 企業간의 相互 連絡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뜻이 訛轉된 外來語의 一例 지만 「백」이란 말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外來語는 아니다. 外來品 販賣法이 施行된 후 外國產品은 一切 賣買를 못 하게 되었으나, 原料는 外産이라도 우리나라에서 加工한 商品은 何等 相關 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페이드·인·코리아」의 理致에 들어맞는 까닭

이다. 이런 方式으로 따진다면 「백」이란 말도 國產 原料로 만든 國產 말이라 할 수 있다.

「백」이란 英語에 백(Bag)에서 파운 말이다. 그러나 「백」과 「백」의 뜻은 전혀 다르다. 名詞의 경우 「백」은 등, 뒤, 後部, 嶺等의 뜻을 지 니나 「백」은 자기를 保護 내지 協助 해 주는 어떤 힘을 말한다.

무척 편리하고 고마운 힘은 바로 礦物性이나 植物性인 경우도 있으나 주로 動物性의 힘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 이것이 「백」의 觀念이다. 아마 「背後에서 보살피는 권력」이란 뜻으로 「백」이라고 불리워 진해졌을 것이다.

人間은 元來 기대고 싶어 하는 動物이다. 자기 자신보다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을 보면 무조건 敬畏感을 느낀다. 그리고는 곧 依賴하는 本能 이 고개 들고 일어난다. 獨立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手續節次가 隨伴되 고 수많은 稅費가 賦課 되지만, 依託 및 隸屬에는 까다로운 節次도 없고 稅費의 賦課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어 두는 것 외에는—아담 과 이브의 아들 카인은 嫉妬에 사로 잡혀 동생 아벨을 죽였다. 아벨의 피 를 씻은 땅을 떠나며 카인은 神에게 하소연 한다.

「저를 보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러나 神은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럴줄 같절이나 부수를 받을 것이라 豫言하며, 카인 지키기를 言約한다. 즉 神은 카인의 「백」이 되

진 自遇한 것이다. (舊約聖經 創世記 4: 16)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罪로 마땅히 死刑에 處해져야만 했을 罪에 創世의 法解釋은 그 基準이 달랐던 것, 이것은 카인은 寬大한 處分을 받았다.

이같이 太初에 「백」이 있었으니 타락하고 슬픈 카인의 後裔에선 더할나위 없다. 에덴의 동쪽을 떠난 카인은 뜻밖으로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創世記의 記載있는 것이란 바로 한류의 서율이 아니라 술까 하는 의심이 가리킨 우리 나라 사람에 한해 「백」에만 대발되 살았다. 自由黨 全盛時節의 일이다. 모든 行政은 「백」의 始終였다. 「되는 일도 없도 안되는 일도 없다.」고 일컬어진 腐敗一路의 세상에서 크고 작은 利害가 있는 자가 지기型態의 「백」이 横行하였다.

이 時節의 「백」은 동렬의 「백」. 미러式 「백」이라고 부른다. 「백」. 미러란 자동차 운전과 앞의 달린 기술이다. 사람이 正面으로 인물을 비쳐보기 위해 있는 기술이 아니라 뒤에 오는 차들을 비쳐보고 살펴보는 기술인 것이다. 즉 자유당 시절엔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는 것이 「백」의 문제점이었나. 어떤 職務에 있어자도 소위 巨物級의 줄로 들리는 사람과 中堅級의 주권으로 就職이 된 사람과는 스스로 待遇가 달랐다. 「백」. 미러로 「백」을 비쳐본 結果에 의한 것이다.

學生들의 의를 祭物로 하여 이루어진 民主黨 政府 時節에도 이 「백」은 그대로 부속을 維持했다. 다만 內容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백」을 命名

하여 「백」식 「백」이라 한다. 「백」식 「백」이라는 뜻이다. 다시 說明하면, 「백」은 주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나? 「財產」이 얼마나 되는나? 라는 것이 「백」의 財點이 되었던 것이다. 자유당 때의 舊惡의 主人公 不正當財의 元兇도 「백」의 事情에 따라 適當히 處理되었다. 職務의 타이. 오도 「백」도 「백」속에서 극장로 커내듯 커내어졌다. 이 참으로 오랜 暗黑時代를 거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백」을 지니지 못했던 사람은 못했던 사람대로, 「백」을 지닌 사람은 또 지닌 사람대로 지쳐 버리고 말았다.

이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백」을 간절히 求하고 다녔으나 結局은 成事를 위하의 신랄의 「백」을 내 찾아 巡行行脚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成事를 못본 群像 그리고 「백」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손이 영 닿지 못하니 하와 斷念하는 체 하고 있던 人物像. 이들은 세상이 다시금 改造되자 自己自身이 말로 가장 潔白無垢한 人生이었음을 主張하며 적지 아니 나셨다.

이 雨後竹筍은 엉뚱한 神話를 믿고 있다. 못내 渴求하다 못하면 「백」에 의 希願이다. 人間으로서만 가장 매력 이 없고 불효도 없는 그들의 社會에 있어서는 가장 위엄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提防에 스테디는 한방울의 물에도 비칠 수 있다. 한방울이 두방울이 되고, 두방울이 한방울이 되어 끝내 提防을 가르기도 하는 까닭이다. 우리들은 이른 새벽에 우리들의 물

복을 말뚝히 물어 내었다. 문전에 쌓였던 쓰레기, 앞마당에 널려 있던 종이 조각, 새끼 부스럭기 그리고 담장에 의뢰해 있던 지붕본 落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담이 내었다. 「백」도 이등 쓰레기의 한 가지다. 이제 비정한 정갈한 골목이 커져서 우리들이 쓰레기를 불에 깨끗이 사워야만 한다. 그러나 홀로 潔白을 主張하는 雨後竹筍族은 아니라고, 「백」으로 생을 扶持한 카인의 後裔에게 「백」을 向한 禮儀는 저바랄 수 없는 遺傳實이기도 하다.

優生學의 學으로 빠져 이 遺傳實을 改良 育成하는 데는 단 한 가지의 方途가 있다. 人間이 지닌 內面의 劣과 그 離離을 없게 하는 일이다. 「백」(Bald)이라는 낱말에는 동이나 後部等의 뜻 말고도 裏面이라는 語義도 包含되어 있다. 「裏面」이란 말이 주는 概念은 多分히 三次元的이다. 스스로 부피가 마려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부피속에 간직되는 이 「一面」은 人間의 경우 精神生活을 意味한다. 우리들 生活의 골목에서 一切의 舊惡을 「掃」하고 사워 버린 후 그레도 살이 남은 「백」의 魏닉스(不死鳥)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內面的인 것으로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命名하여 「實力式 「백」이라고 하는지,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無石 같은 「백」은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고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 자신의 實力 그것이다.

그러나 無盡한 神의 造化에는, 작극히 유모더스하고 善意에 넘친 點도 없지 않다. 세상은 아직도 미운 날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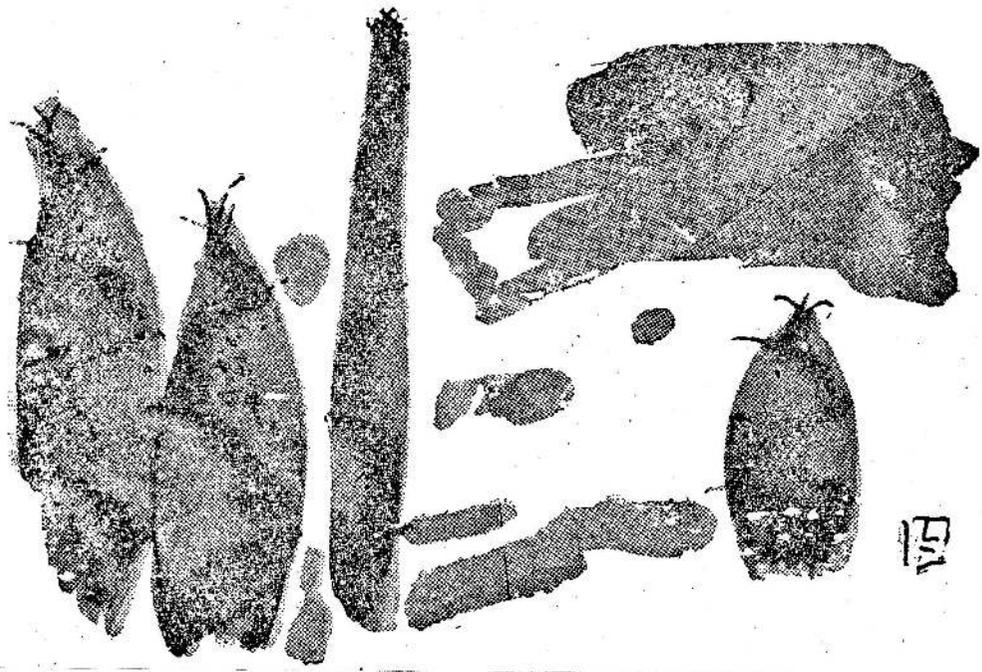
이 마르지 않고 있어서, 가끔 주를 살이 퍼지도록 반갑고 호문하고 꿈같은 「백」의 奇蹟이 일어나기도 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女流作家 지인. 셉스터는 키다리 아빠 (Daddy Long Legs)라는 小說에서, 이 꿈과 같은 「백」의 奇蹟을 몇몇이 그리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主人公인 少女 지루우샤는 교이원에서 자라났으나, 피할 재주가 있다 하여 어떤 篤志家의 援助로 都市의 大學에 入學하게 된다. 그 篤志家의 이름도 모르는 데로 화려한 大學의 寄宿舍生活을 하게 된 지루우샤는 한 달에 한번씩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일요일도 모르는 그 篤志家를 지루우샤는 「키다리 아빠」라고 부르며 편지를 쓰곤 하는데 이 作品은 이 지루우샤의 편지로 엮어진 소설이다.

어느날 부처님 탄일 친구 아저씨가 학교로 찾아온다. 그 靑年紳士를 알게 된 후로 交際가 계속된다. 三年이 지나, 지루우샤는 우샤는 成續으로 大學을 卒業하자 돈이 많은 그 靑年紳士에게서 求婚받는다. 靑年紳士를 사랑하게 된 지루우샤는 學費出資者의 양해를 얻고자 처음으로 篤志家를 만나러 간다. 만나고 보니親切한 「키다리 아빠」는 바로 그 靑年紳士였다. 대강이 이러한 스토리의 소설이다.

「백」치고 이렇게 몇몇이 氣分 좋고 신나는 「백」은 없다. 그리고 그 「백」을 이렇게 날선하게 吸收해 버린 본보기도 드물다. 역시 경우에 있어서도 「백」은 後部나 背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裏面 내지 內面으로 옮기는 편이 適譯인 듯하다.

▲筆者・兒童文學家



새 해

새해가 밝아질 때마다 舞臺의 幕이 오르고 내리는 演劇처럼.....

그 많은 번덕스런 줄거리, 그 가운데 몇개의 셀 이 머리에 떠오른다.

아직도 未完成에 남아 있는 내 繪畵처럼 새해도 아랑곳없이 캄파스 위에 허트러져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슬픈 印象派처럼 永遠히 계속되는, 잊을 수 없는 사랑도 새해를 맞이한다.

幕이 내리고 또다시 새해의 幕이 올라도 永遠性은 계속된다. 이 永遠속에서 살고 싶다.

한 발자욱이라도 헛디더 보라, 永遠속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 것이다.

글 · 그림

白 榮 洙

8 + 8 + 8 + 8 +

생각나눔대행



日時 十二月八日 下午二時
場所 空本政訓監室

參席者

- 趙相 振大尉 (三一戰隊)
 - 姜信 杓中尉 (空軍大學)
 - 李根 成中士 (人事局)
 - 吳正 植下士 (行政監室)
 - 黃基 淵文官 (行政監室)
 - 金順 玉文官 (七二通信大隊)
- 司會 閔載翼 大尉

(記錄·유기영)

司會 했다. 이맘때면 느끼는 일

이지만 특히 금년은 여러가지로 의
의가 있었던 해인만큼 이해가 가지
전에 무언가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
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싶은 해
를 꿈꾸어보고— 어디 趙대위님
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조대尉 글세요, 하고픈 말이 너무 많
기도 하구— 하지만 몇부더 말해
야 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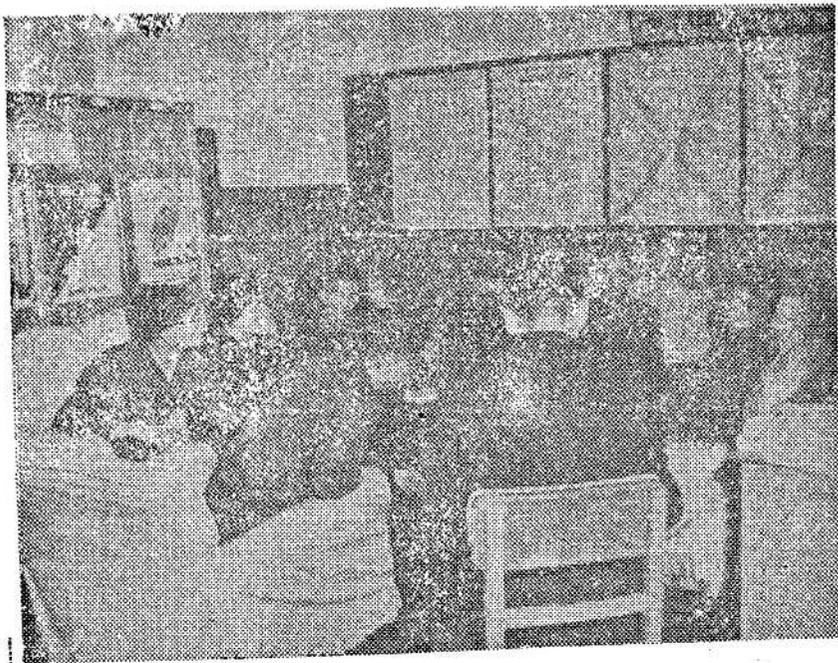
司會 主願을 설정하지 않는 파단
회원만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
이 나는 대로....
조대尉 話題의 실마리는 司會께서.

큰 말자국을 남긴 牛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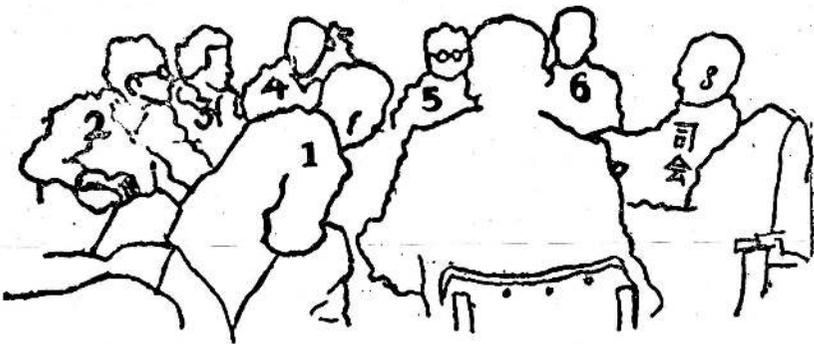
司會 올해는 牛公이 우리 歷史에
큰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 하겠조.
조대尉 그 소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저를 장식하고 이제 그 발본을 虎
公에게 넘겨려 하는데 個人의 입
장에서 볼 때에는 意慾에 비해 進
展이 적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
다. 소질을 처럼 늦으면서도 착실하
지도 못하고요. 막상 신축년을 보
내자니 나는 과연 이 한해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나? 이런 생각이 앞
서는군요.

司會 누구나 가지기 쉬운 생각이
랄까?
조대尉 三十에而立이라는 말이 있으
나 三十을 넘어서도 「立」에 들지 못
했으니 내년에야는 꼭 「立」에 들어가
겠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지난 한해

를 돌아볼때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



司會 특히 금년은 우리 軍人이 려
 10月 행사 때 말을 흘렸다는 걸 나
 다. 물론 江邊에서 구경한 일반 국
 민들이 많은 박수 갈채를 보내주시
 었지만 우리들은 공군의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
 과 훈련을 했습니다.



도 컸었습니다.



명의 주체였던
 만음 10月 행사
 도 다른데 보다
 더 큰 意義를
 가졌던 것이요
 또 그만큼 수고

- | | | | | | |
|-----|---|-----|-----|---|-----|
| 座 | 席 | (3) | 金 | 文 | 官 |
| 司會 | 閱 | 大尉 | (4) | 姜 | 中尉 |
| (1) | 趙 | 大尉 | (5) | 黃 | 中文官 |
| (2) | 李 | 中士 | (6) | 吳 | 下士 |



로 흠뻑거녔요.
 보다 外面의
 的인 人間陶治
 솔했어요. 內面
 금 지나치게 경
 구 학생들이 一
 四·一九

조대尉 허지만 10月 행사 때 百퍼센트
 로 위로를 해준 女人이 있어서 나 個
 人으로서 는 10月 年의 역사와 함께
 이 지를 장식 했죠 (笑聲)
 司會 심히 부러움을 금할 길 없습
 니다 (笑聲). 어디 李中士도 한 마
 더 없을 수 없겠는대?
 조中士 저는 中士로 진급된 해입니
 다. 이런일 저런일 무척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지난일이요 다 지
 는 일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賈文官 個人的인 周邊에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명인 가져온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면이
 있을을 압니다. 우리 생활 여러 부
 면에 비약이 많았음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올해의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명전까지 유행했던 비법
 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생활이 청산
 되어 각종의 부정의 꼬리를 감춘
 것도 반가운 일이었지만 부인들이
 누구는 무슨 무슨 재산을 부려서 돈
 벌이를 잘 하는데—— 하고 당치안
 은 바가지질 금년 버릇도 고쳐진 것
 이 한결 축하할 일입니다.
 姜中尉 타올려진 힘을 입기는 했으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구약
 이 맺어져 가는 것이 크게 인상적
 일입니다.

새로운社會秩序에

內面的 姿勢도 따라야

司會 강중위님은 아직 결혼을 안했으니 결혼한 사람과는 생각도 좀 다르겠는데? 피 알전도 하시고... (笑聲)

藥中尉 먼저 안정된 생활의 질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단계로서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입니다. 실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나 자신의 內面的 생활질서가 아직 완전을 못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自身의 내면생활의 있어서 어떠한 관념을 내린다는 것은 경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스스로가 만든 질서라기 보다는 外部로부터 주어진 規律이 강했기 때문이겠지요.

實文官 정말 이 內面的 生活姿勢의變化야말로 우리의 課業의 成敗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교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니까요.

司會 혁명적 외부질서에 정신혁명 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겠지요. 아디니스·金女性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화장품같은 外産은 禁止되었지만 생각은 아직 外産고급품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笑聲)



金文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獨斷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수상해요. (笑聲)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司會 당연한 생각이며 가벼운 생각— (笑聲)

金文官 새 생활에 부응하는 질서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의 요구나 남의 눈치에 구애치 말고 자발적인 실천성이 요청돼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겠어요.

李中士 화제가 자주 五·一六으로 초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천재 自身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출판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같은 생각이 非동적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좀 더 패기와 용기가 발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司會 혁명이란 아무래도 강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회변형에는 능동적인 사람과 非동적인 사람의 대응태도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요. 비판적으로 보는 아적 구대의 연관한 것이 있다면 정신혁명의 사학적 형태를 못따르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지요. 가령 교통정체 같은 것은 의관상으로는 신질서가 섰것 같으면서 감사가 해이되면 곧 옛날의 타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따위에서 볼 수 있잖을까요.



崔 要 安

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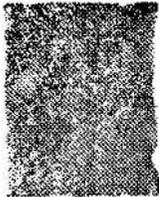
은자 五, 六년간의 일기장이 가즈런히 나의 서가 한 모퉁이에 꽂혀 있었다. 모조시에 양장한 두툼하고 볼품없는 일기장들인데 펴보면 빈칸이 태반이고 일기가 적혀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일기를 쓰리라고 마음을 먹고서 일기장을 사거나 연기나 하건만, 노상 그렇이었다.

하루는 목은 원고 중에서 무엇인가 참고할 것이 있어, 따로 써서 선반 위에 올려 두었던 한아름되는 원고 북다리를 꺼냈다. 세펜가루로 양보오양게 얹은 면지를 털고 이것저것 뒤적거리자니, 피난 二년 동안의 목은 일기 문치가 튀어나왔다. 그때는 제대로 일기장도 없었던지라 원고지니 시원지니 다 치는대로 써 놓은 것들인데, 상당한 부피였다. 시험지의 것은 글씨가 좋중 있다가 저서 모두 원고지로 환산한다면 五, 六백여는 실히 되어 보였다. 부산 시대에 비교적 일기를 계속해 쓴 기억은 있으나 그렇게 많은 분량이 될

줄은 나도 놀랐다. 그때는 내나 이가 서른 다섯이었던 난 아직 결혼 전이었고, 피난중의 모생과 무로감이 그처럼 일기의 붓을 들게 하였든양 싶다.

나는 찾던 일기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낫은 나의 필적과 더불어 그속에 적힌 하루의 사교(恩考)와 저년 일들이 옛머미 속에서 하나 하나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흠! 이관일도 있었지,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나했었구나...』 나는 일가에 풀기는 웃음을 짓겠으며 시간 가는 줄을 잊고 눈이 말리었다. 그런데, 일기의 二분의 一 가량은 그 당시 내 손으로 쓴 것이건만, 몹시 생소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기억의 살아 나지가 않았다. 만약 그 일기가 없었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기록들이었다. 그날 그날 머리를 스친 감상(感

妻中尉 국민들과 혁명지도자들의 눈
에 다같이 비추어진, 이것이 부패나
저것이 부패나
이런것 없애야
겠다는 등의 강
한 신념과 용기
가 혁명의 원동
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요. 우리가 그와같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면 내면적인 세계와
외면적인 요정의 거리를 단속 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디나 아쉬운 가능성
發見에의 努力

司會 좀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구
체적인 것으로 - 내년에는 실질
적으로 생활 합리화도 포함되어 본다
든가 어떤 특서의 방향을 세워 본
다든가 또는 저축을.....



李中士 젊은 사람이니 결혼문제도 있
겠고 - 허저
만 법학을 해서
사회의 질서를
디우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하고
싶어요.

司會 吳하사는?

吳下士 농촌개발에 이바지하고 싶습
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보았습니
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종사하
는 23歲나는 女子가 하는 일을 보
고 감동했습니다. 보람있는 일이라
고 느꼈습니다.

司會 그 사람이 女子니까 그런 생
각이 든것 아닐까? (笑聲)
吳下士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겠



다는 의무감
을 느꼈습니
다.
妻中尉 상당히
진실적인 의
견들입니다.

혁명과업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무장과 실천적 협력없이 이루어우
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일반의
로 검토해 봐야 할 사고방식이 있는
것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진실적
인의 전보다는 어떠한 현실적 의견
이나 있을때 이에 대해 안된다는
견이 많은가 하면 되된다 안된다에
대한 方向이 뚜렷하질 않아요.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努力을
가질 줄 알았어야겠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저극성을 민생
활체현이 적은 탓이 아닌가 해요.
이제 오하사가 애기한 농촌개발은
좋은 생각이나 방법이 뚜렷치 않
아는 -

司會 四十년의 식민적 생활양식
과 그것이 가져온 사고방식에 기
원 것이 아닐까요? 「적극적 생활
체현」이 피차적 정적 정적 문화동
환경속에서는 바람기가 곤란했을것
입니다. 예를들면 이스라엘은 八百
년의 학대 속에서 정신적인 조약대
가 생겨났지만 한국은 30년동안에
조약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할까?

妻中尉 八백년이란 학대속에서 자란
것인 자란수도 있었겠으나 우리 나라
의 30년은 세계사적 단적으로 보아
중요한 시기였다고 하겠지요. 꼭 주변
을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말살당
했고 시기적으로 보아 오늘날의 시대
를 담당해야 할 세대가 말살 당했

想)이다 어떤 사상思想같은 거라
면 일일이 거기에 남지 않는 것이 당
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
들이 즉, 누구하고 손을 마시고 또는
누구를 만났다는 이런 사실들이 도
무지 머리에 되살아 나지가 않았다.
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이었다.

一九五一年八月十三日(月)

十五일 방송할 동화 원고를 오늘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도무지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뒤위에 머리
가 짝 잡혀 있다. 아무리 애써 보아
도 머위를 이겨낼 도리가 없다. 할
수 없이 밤에 쓰기로 하고 영도로
해수욕을 가다. 방파제의 돌출대가
해빛에 달아서 영동이를 뿔수 없게
따랐다.

마음을 잡아 끄는 젊은 여성이
한 사람 내 앞에 나타났다. 몸차림
이나 표정과 말이 다 아깝게 든다.
八十퍼센트 마음에 든다. 이만큼 마
음에 안기는 여성은 부산에 와져 그
려구 많게 만난 여성들 중에서 처
음이다. 그러나 수 시간후에 안 사
실인데, 그에게는 R라는 이미가
가운 사람이 있었다. R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처자가 있는 몸이지
만 그 여자와 보통 이상으로 친밀
했다. 그들의 사이가 정삼적이라고
는 생각지 않았으나, R의 존재는
나로 하여금 회담을 포기케 했다.

그런 틀라귀에 부비고 들 생각은
나지 않았다. 단념해 놓기도 그 여성
의 얼굴이 자꾸 눈에 서린다. 파도
같이 고독같이 가슴을 찔러 내린다.
나는 안만 생각해도 八十퍼센트

말에 든다는 그 여성의 얼굴이 생각
나지 않았고, 잘 안다는 R도 누군
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부산서 만난 여성중에 제일 좋게 보
인 여자인 얼굴이라면 응당 추억이
상주머니 속에 한자리를 차지했을
상심인데, 어렴풋이도 생각이 안
났다.

이것을 보면 기억(記憶)이란 것은
반드시 강하게 감정에 애뮬한 것만
남는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세살 적에 네살 위인 작은
누님과 함께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오
동나무 열매를 장대로 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반면에 여중생이 八
十퍼센트 선명한 표정의 여인은 기억
에 남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나의 직장 주변과 다스라
도 교재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을 하
나 하나 머리에 보았는때, 五十五
프로 밖에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일
을까지도 생각나지만, 그 80프로
는 오히려중에 잠진채 도무지 묘연
하다.
이걸 볼때, 우리의 기억이란 옛
센스만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고 각종 중요한 것도 많이 빠뜨리고
있는 상심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十月一日(日) 晴

사무실에 불이 있기도 진력이 나
서 거꾸로 나온다. 잘못은 다 방에서
이 다방에서 한 시간, 저 다방에서
두 시간....., 어루 킁킁해서 다방은
나왔으나 또 잘못이 없다. 천막으
로 도라잔 생각은 없고, 어디론지
가야만 싶다. 뜬구름같이 마음이

다가 나왔으나 우리의 사회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힘을 못 갖게
했잖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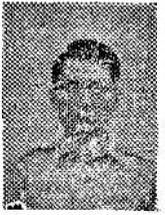
司 會 사람의 따라 逆境이 오히려
그 사람을偉大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두少年中에서 한
少年은 다리를 다쳐두고 할때 平凡했
年은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平凡했
던 自己素質에 보다 충실하고 힘을 기
울이게 된다는, 말하자면 역경을 비
약의 조약대로서——

姜中尉 비약보다는 말살당하는 예가
담담을까요? 日帝는 너무나 惡毒
해서……

司 會 어디 趙대위께서 한마디.
조대尉 나는 超人이라는 말을 쓰고
근대 規律에서 느끼는 억압감, 환
경적인 변화, 이런것에 맞서는 초인
적인 용기와 기상이 필요해요. 신
속년도 저물어가니 소설을 좀 호랑
이 걸음으로 전화해서 내년에 호
랑이 걸음으로 확고한 발디딤을 내
밀자. 마야 이런 생각이요.

黃文官 내년부터는 정말 생활을 제
회화해야겠
읍니다.

司 會 산야제
한 같은것은
로(笑聲)



가코시에 합격하자는 생각입니다.
司 會 미스 김께서는 보다 아름다
운 여성과, 빨간 코트 같은것?
——(笑聲)

金文官 그런 생각 안해요.(笑聲)
司 會 조대위님의 임인년 구상은?
조대尉 글세요. 지금은 구체적인 구
상이 없으나 元트이 되면 인스피레

이손이 있겠지요(笑聲) 이젠 장가
도 갔으니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잡
아야겠다는 생각에는 다름없죠. 차
근 차근 건실한 생활태도를 가져보
자는 생각이 듭니다.
司 會 그럼 추가인 강중위는 생각도
다르겠는데……
姜中尉 그간의 군대생활을 일단 정리
해 봐야겠읍니다. 물론 實용문제도
하나의 과제이고——(笑聲) 해보
고본것이 많죠. 실험해 보고본것중
생활실험을……

勸하고픈 「生活實驗」
司 會 生活實驗? 그것 참 매력있는
말입니다. 많이 듣지않는 用語같은
데 그 새로운 術語에 대해서 좀 자
세한 설명을 듣고보고요.

姜中尉 정석해제가 구과파를 다녀와
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새
로운것을 조금적인 의욕을 가지고
모색해본다는 뜻일 것 같아요. 가혹성
있는 생활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본
다는 뜻으로 미국사람들의 계획정
신이 이 사초의 淵源이 아닌가 싶
어요. 모험성이 있기도 하지만 가
혹성을 실험해 보는 거죠. 성공실험
패가 문제 아니고 성공하면 성공
의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實驗이
란 科學의 方法에서 分析해서
인는 體験에서 價値를 發見하는
것이요. 모험적인 생활의 테두리를
脫皮하고 보다 새로운 前進를 試圖
한다는 거죠.

司 會 그것을 우리 생활현에 적용
하게끔 박스화해서 새생활 운동에
응용한지 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司 會 그것을 남겨주고 소생시켜 주고,
알려주는 것은 그때 그때 피로우
면 피로운 대로 기렸으면 가쁜대
로 적어둔 일기뿐이라 하겠다. 일
단 시간적으로 커리가 생기면 우리
도 파기를 수식하는 버릇이 생긴다.
그러나 일기에는 그런 수식이 없다.
막상 파기를 이야기 하자면, 나
는 나의 생애에 있어서 피난때 보
다는 내가 이역(異域)에서 헤매던
二十代(代)의 卅年(卅)년의 정상이

△끝△

해냈다. T군과 담노 때문에 다
다. T군의 이기주의 보다 참을성
없는 내 자신의 성미에 더 울화가
치민다.

말중에 세락을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무케나 지나려다.
도 더러운 옷은 역시 빨아 입고
질다.

T군이 라는게 누군지 역시 생각이
안난다. 이같이 기억 할수 없는
조쪽이 일기 속에서 무수히 발견되
있었다. 그런데로 일기 자체는 내
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억 보다
는 강하게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지
난날의 나의 생활의 단편을 엿보여
주고 있었다.

물아보면 十년일석(一夕)이란 말
과같이 피난시의 일들도 이미 차츰
기억에서 흐미해 가고 있다. 지난
고생은 늘진다고, 가끔 슬펐기리 보
이던 이야기의 꽃이 된다. 그러나
화제에 오르는 추억의 조각들은 다
아 피상적(皮相的)인 것이고, 정말
우리의 혼(魂)의 기록은 아난 것이
다.

그것을 남겨주고 소생시켜 주고,
알려주는 것은 그때 그때 피로우
면 피로운 대로 기렸으면 가쁜대
로 적어둔 일기뿐이라 하겠다. 일
단 시간적으로 커리가 생기면 우리
도 파기를 수식하는 버릇이 생긴다.
그러나 일기에는 그런 수식이 없다.
막상 파기를 이야기 하자면, 나
는 나의 생애에 있어서 피난때 보
다는 내가 이역(異域)에서 헤매던
二十代(代)의 卅年(卅)년의 정상이

가장 고생한 시절이었다. 꿈과 현실
과 희망과 고뇌속에 몸부림치던 나
로서는 기나긴 十년이었다.

말과 그때 날이, 피난때의 일기
모양 일기도 남아 있었다. 누구
보다도 내 자신에게 흥미롭고, 고
뇌와 이상에 아로새겨진 내 청춘의
생생한 행로들 기록속에 비추어 보듯
포착할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
거야말로 흘러간 시간의 무늬를 확
실히 거짓 없이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가 잘
한 이야기나 되살리면 이야기를 할
고나 하듯이 되살리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무었 때문에
어떻게 고뇌(苦悶)했는가, 그 기록이
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를
을 읽을지 모르나 필경은 二十대의
젊은분들이 많이 읽을 줄로 믿는다
라, 당시의 젊은 시절의 꿈과 고뇌
를 일기에 적어 두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적어두지 못했던 한이 길
은 그 젊은 날의 일기를, 당신들은
드디어 흘러가 버릴 시간의 모래위
에 여전히 남겨두라고 일르고 싶다.

시간은 흘러가도 그 기록은 흘러
가지 않을 것이며, 잃어버리기 쉬운
자아(自我)를 그「혼」의 기록에서
되살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
는다.

슬픔에서 나오는 흘러간 이야기:
: 저기에는 혼(魂)이 빠져 있다.
혼이 깃든 흘러간 이야기는 오로
저 당신의 젊은 날의 일기만이 이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고생한 시절이었다. 꿈과 현실
과 희망과 고뇌속에 몸부림치던 나
로서는 기나긴 十년이었다.

말과 그때 날이, 피난때의 일기
모양 일기도 남아 있었다. 누구
보다도 내 자신에게 흥미롭고, 고
뇌와 이상에 아로새겨진 내 청춘의
생생한 행로들 기록속에 비추어 보듯
포착할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
거야말로 흘러간 시간의 무늬를 확
실히 거짓 없이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가 잘
한 이야기나 되살리면 이야기를 할
고나 하듯이 되살리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무었 때문에
어떻게 고뇌(苦悶)했는가, 그 기록이
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를
을 읽을지 모르나 필경은 二十대의
젊은분들이 많이 읽을 줄로 믿는다
라, 당시의 젊은 시절의 꿈과 고뇌
를 일기에 적어 두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적어두지 못했던 한이 길
은 그 젊은 날의 일기를, 당신들은
드디어 흘러가 버릴 시간의 모래위
에 여전히 남겨두라고 일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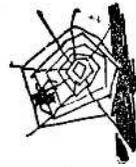
시간은 흘러가도 그 기록은 흘러
가지 않을 것이며, 잃어버리기 쉬운
자아(自我)를 그「혼」의 기록에서
되살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
는다.

슬픔에서 나오는 흘러간 이야기:
: 저기에는 혼(魂)이 빠져 있다.
혼이 깃든 흘러간 이야기는 오로
저 당신의 젊은 날의 일기만이 이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世界新聞 이야기 ④

〈東獨篇〉 (노이에스·도이취) 판트紙를 中心으로

金 基 漸



우리가 共產이나 社會主義國家의 新聞이라고 하면 멀리서 찾아 보기보다는 우선 北韓傀儡의 勞動新聞을 들 수 있으며 聯想하게 된다.

그리고 蘇聯의 「프라우다」紙나 「이즈베스티아」紙 또는 中共의 人民日報 등을 聯想케 되는 것이며 舉개의 사람들은 읽거나 본적이 거의 없대시며 하자다는 共產黨의 機關紙로서 一方的인 虛偽宣傳이나 煽動調의 記事로 매꾸어 있다가나 殺伐한 紙面으로編輯되어 있다는 것과 官製인 것이며 人間社會의 赤裸裸한 寫實的인 記事라든가 豊富한 人間味나 「이데이지」를 살려서 社會의 多角面을 다루고 있다는 生實키 이러한 것임을 알기 못하 아 볼 수 있을 程度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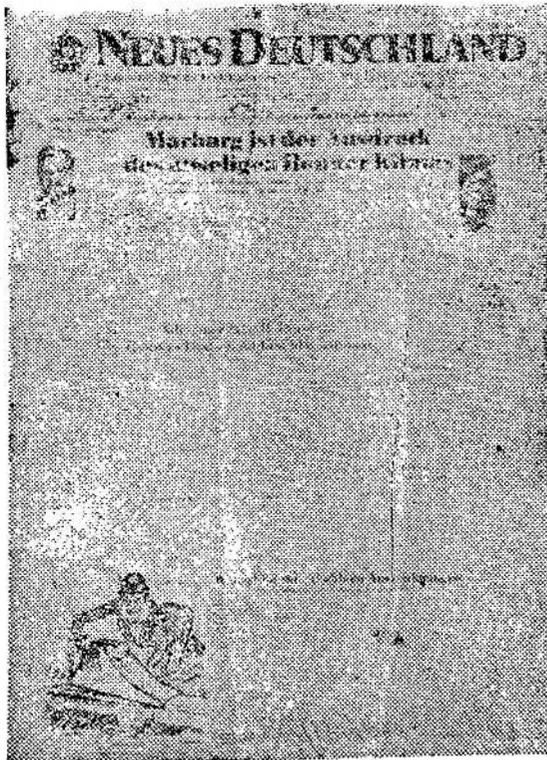
勿論 自由民主社會制度下에서 社會를 營爲하고 있는 사람치고 蘇聯과 中共을 爲始한 社會主義國家나 社會에서 發刊되는 新聞에 對한 關心이란 全然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斯

界研究者나 特殊部分의 人士에게 限한 關心인 程度인 것 같으며 그 밖에 사람들은 그 實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現實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 共產東獨의 代表的인 新聞 「노이에스·도이취판트」紙를 中心으로 하여 東獨에 있어서의 新聞에 對해 이야기 하고저 한다.

몇몇 新聞이 東獨에서 發行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共產黨을 背景하거나 이의 外廓團體의 操縱으로 그 實宣傳道具로서 存在할 뿐이지 民主言論場을 爲해 社會의 眞正한 公器로서 新聞本然의 姿勢를 다하고 있다고 生覺한다는 것은 到底히 바랄 수 없다고 보겠다.

然이나 共產·社會主義國家에서도 新聞이 發行되고 있다는 事實은 事實로서 남아 있기 에 共產東獨을 事實上 指導하고 있는 것은 東獨의 社會主義 統一黨의 中央委員會機關紙인 「노이에스·도이취판트」紙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東獨이라고 부르려고 있



는 나라인 「獨逸民主共和國」의 政治方向이거나 指導方針은 앞서 말한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의 中央委員會機關紙인 「노이에스·도이취판트」紙에 가장 端의 表現되어 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共產東獨의 代表的 機關紙인 同紙는 其發行部數에 있어 그 數字가 앞 先할 수 있다.

于先 그 數字를 찾아 보기에 앞서 말하여 들 것은 共產東獨의 人口는 現在 西獨人口의 三分之一에 不過한 千七百萬程度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特記한 事項은 東西伯林의 冷戰이 오랜 歲月을 두고 熱戰과 危機一髮의 긴을 걸어 오는 가운데 도 아직까지도 많은 東獨人民이 西獨으로 避難하여 오고 있다는 事實은 무

엇을 意味하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그 만 두고라도 共產東獨의 實情을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減少一路에 있는 東獨人口에다 東獨의 日刊新聞總數가 約四〇種이며 그 總發行部數는 七四〇萬部라고 東獨의 一九六〇年度 年鑑에 記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確實한 數字인지에는 異論이 있는 模樣이다.

東獨에서 그 發行部數에 關係 公表한 바 없거나와 自由西獨에서는 二百餘萬部라고 하고 있으며 너무나 엄청난 部數의 差異가 東西獨間에 推定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宣傳의 手段으로서의 政策上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局面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이數字에 對해서는 東獨에서는 確實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상 실이며 一九五九年 四月 「라이브리히」에서 열린 第三回新聞會議에서는 東獨의 主要新聞編輯責任者가 거의 參加했고 大學新聞學教授, 社會主義統一黨의 宣傳擔當政治局員이 參加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그數字에는 何等 言及치 않고 있다.

單只 新聞에 依한 大衆教育 啓蒙效果等을 討議의 議題로 다루었음을 본 것이다.

다만 共產東獨의 黨機關紙인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가 代表的인 것으로서 七四〇萬部라는 發行數字는 歐羅巴大陸의 新聞現況으로나 共產國國과의 比較로서 미루어 보아도 誇張된 數字로서 틀림이 없다는 것이 正論인 것이라는 것만은 常識을 넘지 않으리라고 보겠다.

共產主義國家나 社會主義 社會體制에 있어 眞正한 言論의 自由를 찾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精神鑑定을 要할 程度라고 해도 妄言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東獨의 新聞은 大部分이 日曜日은 休刊되고 있으나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만은 年中無休로서 每日 六頁乃至는 八頁의 紙面으로 되어 있으나

週末인 土曜에 가서는 四頁에 達하는 文學藝術에 關한 附錄이 더 添加되고 있다.

그리고 同紙의 外觀과 特徵을 본다면 新聞題號의 右肩側에는 반드시 「萬國의 無產大衆 「푸로레타리아」의 結核」라는 題字가 박혀 있고 左側에는 赤星가운데 「라스」의 顔

相이 畫刻되어 있다.

그런데 近來로서 共產國國家의 이 곳에서도 別로 「푸로레타리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데 反하여 이 곳에 적혀 있다는 것은 좀 색다른 手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古典的 共產用語의 使用과 新聞의 編輯方針 사이에는 어떤 關係가 介在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意圖하고 있는 印象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一面의 寫眞은 大膽한 手法으로 많은 紙面을 차지하고 있으며 政治漫畫가 每日連載되고 있어 일찍 華麗한 상 싼다.

이에 比較하면 北韓傀儡의 勞動新聞이라는가 蘇聯의 「프라우다」紙같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막대한 差가 아니라

宣傳官報調의 냄새를 몹시 強하게 풍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것이 못된다.

다른 共產國內의 新聞도 그러 하거나 亦是 共產東獨에 있어서도 自己黨이나 黨 政府에 對하여 단정치 않은 記事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의 常識밖의 일이 아니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東獨의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가 共產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이거나 或은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 달갑지 않고 좋지 못한 記事를 揭載하고 있는 것은 關心꺼리라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와 關聯해서 自由西獨에 對한 惡宣傳의 資料를 提供할만한 內容으로 編輯되고 있는 것도 別로 神奇스러운 일은 못될 것이다.

東獨의 新聞이 自由西獨의 不幸과 不健全함을 大書特筆함으로써 自己黨이나 東獨共產政府의 말을 매꾸어 보려는 努力이란 것이 果然 어느 程度 永續性이 있으며 一般大衆에게 어느 程度 宣傳의 公平한 效果를 가져올 것인가에 關하여는 너무나도 現實이 잘 證明해 주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다.

東獨으로서 가장 달갑지 않은 事實의 一例을 들면 共產東獨에서 繼續적으로 自由西獨으로 많은 人民이 避難해 오고 있으며 요즘에 와서는 그 무서무서하고도 慘忍하고도 嚴한 境界網을 뚫고 逃亡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이러한 自由西獨을 찾아 避難逃亡해 나오는 共產東獨의 人民의 數가 減少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부엌을 못하고 있으며 제아무리 東獨의 新聞들이 떠들석하게 西獨에 對한 惡宣傳을 하더라도 한낱 善良한 人民에게는 오히려 新開구심은 못하고 있으며 所謂 東獨의 新聞購讀率이 一世帶에 一部分이라는 것 自體도 우스꽝스럽지만 이러한 購讀率이란 무엇에 基據하고 있으며 이는 黨이나 黨政府의 官制回覽板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상 싼다.

東獨에서 出版되는 新聞外의 宣傳刊行物冊子를 通해 앞서 말한 것과는 反해서 共產東獨의 惡宣傳에 欺瞞되어 西獨으로부터 東獨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現象은 지난날의 遺物이 되고 一時的인 것으로서 至今에 와서는 그 數交란 그야말로 計定밖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東西獨間에 있어서의 言論出版의 眞正한 自由의 斷面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는 事例가 아닌가도 生覺된다. 이러한 共產東獨의 頭痛거리의 社會問題를 一切 開放하여 新聞이나 其他 發刊物을 通해 不名譽스러운 것을 다루고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가 가장 注力하고 있는 면에 對하여 다음에 보고자 한다.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의 機關紙인 同紙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自黨의 宣傳과 反西의 逆宣傳으로 一貫하고 있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지만 一見하여 同紙는 自由西獨에 對해 攻擊的인 記事가 甚한 것은 勿論이거니와 西獨의 首都 「본」을 가져다 戰爭政策에 對한 憎惡의 極上으로서 「나치」獨逸의 復活에 對한 憤怒의 焦點으로 注力하여 反復해서 「본」의 語를 들어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의 記事內容을 區分하여 본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四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두말할 나위도 없이 前述한 바와 같이 自由西獨을 攻擊할 目的을 갖고 있는 것과 西獨의 戰爭政策의 進行 「나치즘」의 復活을 暴露하면서 이와 同時에 共產東獨만은 平和愛護의 나라이고 人民의 自由인양 讀者에게 正反對의 印象을 주도록 해 나가는

點. 둘째로 國內의 社會主義建設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模樣인 虛實한 建設復興相을 捏造한 것으로서 「푸로」形式으로 誇張宣傳調로써 이러한 두가지 種類의 記事內容으로 紙面全體의 六

繪에 가까운 量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셋째로는 外信記事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特別히 內容으로는 勞動罷業이라든가 所謂 後進性國家에 있어서의 人民蜂起 및 國爭을 곧 對自由國爭으로 造作宣傳하는 것으로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로는 스포츠 競技이고 이밖에 天氣豫報 翌週의 라디오 T·V의 푸로라든가 若干의 廣告程度로서 紙面을 메우고 있다.

말하자면 美國이나 英國같이 「뉴스」 報道와 論說論評이라든가 解說같은 것을 明確히 區別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模樣이다.

아마 이것은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서는 그리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의 記事에 關해서도 亦是 그러한 것을 格別히 分類해 본넷자 兪手苦일 것이다.

非單 이러한 隱蔽의이고 煽動과 宣傳의 記事와 編輯內容은 東獨의 新聞들뿐만이 아닌 것이며 가가히 中央人民日報나 北韓傀儡의 勞動新聞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한낱 이러한 編輯手法와 記事內容은 大槪 社會主義國家나 共產黨內社會體制에 있어 共通의이고 統一의 現象이 아닌가 生覺된다.

東獨의 新聞으로써는 自國의 社會主義的 建設의 進行 그 過程에 있어서의 難關의 克服相等을 어떻게 해서라도 大書特筆하여 國民大衆에게 欺瞞的으로 이것을 理解시키고 大衆의 社會主義建設參與의 意慾을 더욱 북돋우기 爲해 갖은 努力과 力量으로써 最

진주부인과 자유부인

查在華



大限 限注하는 것이며 이點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는 隣接 自由西獨에 對한 記事를 自黨 自國의 政策遂行을 爲한 手法으로 紙面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다는 點은 늘 말한 事實은 不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一九六一年 正月 달에 있어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가 最

大의 紙面과 最大의 精力을 기울여 報道한 西獨의 大學村인 「달부르크」에 서 일어난 「디르크만」氏事件에 關한

(P 26으로)

防空救國二個月

(4)

— 第二次世界大戰時 英國空軍의 不屈의 鬪魂 —



그 다음날 부라이스·노튼에 來襲한 독일공군의 공격으로 地上에 墜 미하게 늘어서 있던 옥스포드練習機 四十六臺가 완전히 燬아 버렸다.

폭격기 二臺가 두개의 格納庫에 直擊彈을 퍼부어 그 안에 있던 四十六臺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비행기를 分散시키지 않은 危險性을 忖져서 證示한 것이었다.

비바부트크卿은 옥스포드機를 分散 退避시키지 않은 理由를 調査하였을 때 關係者들은 다음과 같이 答復하였다.

「옥스포드機는 木製機이기 때문에 濕氣가 차서 格納庫에 넣어서 乾燥作業中이었습니다」.

◇ 不吉한 싸이렌

八月二十四日 밤 런던市 西端 어둠 속에서 市民들은 不吉하고도 悲鳴과 같은 音響을 들었다. 音의 歷史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리만은 不快한 歷史의 한 페이지를 記錄에 남긴 것은 없었을 것이다.

런던市를 恐怖와 不安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은 것이 이 空襲警報의 싸이렌이었던 것이다.

런던空襲의 뉴스는 런던市民은 말 할 것도 없거나와 잊을려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왜냐하면, 잊을려는 불과 數日前 독일공군의 一部가 런던中心部에 가까운 두로이든에 폭탄을 投下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그 部隊指揮官을 譴責處分한 直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過誤』가 戰局의 轉捩를 크게 변동시킨 결과가 되었다. 영국이 다음날 八十一臺의 폭격기

로서 伯林夜間報復爆擊을 決定하였
기 때문이다. 이 영국공군의 報復爆
擊은 이 戰爭이 시작된 이래 폭격부
대에 의한 最大規模의 것이었다.

이때 出擊한 英國爆擊隊員들은 「만
약 目標가 發見되지 않으면 폭탄을 投
下하지 말고 歸還하도록 하라」는 命
令이 전해졌다. 말하자면 英國側의 조
시성기에는 配慮였으나 英들을 激怒
시키지 않는 忠實한 것이었다.

잇들러는 독일공군에게 즉시 報復
爆擊을 連日連夜 敢行할 것을 명령하
였다.

여기에는 이같은 보복폭격으로 영
국이 戰意를 잃고 독일측 平和交涉에
應하지 않을가 하는 心算도 作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報復爆擊은 오랜 서로
간의 폭격전의 端初가 된 것이었다.
여우기 英國이나 獨逸이나 처음부터
屈하고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는 많은 微妙한 假定
이 成立될 수 있는데 英國戰爭을 들
려낸 假定만을 取扱하기 힘들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
다.

단약 八月二十四일부터 二十五日
에 걸친 深夜에 이들 독일공군의 폭
격기가 런던上空에 날라 들어오지 않
고 따라서 또한 크릿틀·제이트에 있
는 기리스教會에 直擊彈이 던져지지
않았음을 대제 이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날 밤 런던市內에 폭격
한 數發의 폭탄 때문에 처칠首相은 爆
擊隊司令부에 命令해서 다음날 밤 伯
林上空에 폭격기를 投入한 契機가 되
었기 때문이다.
제소·제인의 爆擊試合 한편에서 두

일측으로서서는 타오르는 런던보다 훨씬
軍事的 價値가 있는 作戰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南海海岸과 런던市 사이에
散在하는 여러 基地는 그때 벌써 기
의 모든 것은 손해를 입고 있었다.

例컨대 八月十五日 西베링에 있는
基地를 襲擊한 독일폭격기 三十八臺
는 五日間에 걸친 이 基地를 使用不
可能하게 만들었다.

독일공군은 그때 파우크스少將이 指
揮하는 第十一戰團師團을 再不能直
前에까지 몰아 넣기 基地는 使用不能
狀態였다. 그러나 이 戰團機補給을
不可能하게 하고서 航空廠을 그 攻擊
目標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 奇跡

단약 독일공군이 이 작전을 계속하
였다면 그리고 만약 독일공군의 補給
이 끊어지지 않고 操縱士의 士氣가 維
持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인제
까지 진퇴야 했을지 모를 일이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에 當面한 다
우령大將은 指揮上에 있는 戰團部隊
를 不得已 分散配置시켰다. 그리고
리바루트스卿은 魔法의 힘으로
라도 빌린것 처럼 다음령大將앞으로
戰團機를 보내왔다.

戰團機隊司令부는 이 新銳戰團機들
을 영국각처에 있는 基地에 재치이
게 接配하였다.
이러한 速成補給을 받은 英國戰團
機隊가 저를 戰果는 「독수리의 날」이
지난 직후 파인大將이 말한 것처럼
「진짜 奇跡」이었다.

奇跡이라는 말이 回想됨에 따르는

달콤한 感傷을 除하고 適宜된다고 한
다면 독일공군이 런던防衛를 위해 戰
團機基地를 攻擊하는데 失敗한 점이
원천 진자매가 奇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전투기 기지는 공격을 받
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
었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부터 九月六일에 걸
쳐 英佛海峽을 건너來襲하는 독일공
군의 激甚한 攻擊에 내맡겨진 이들 基
地는 半身不隨에 가까운 打撃을 받아
基地戰團機隊의 後退도 不可避하다는
情況에까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독일공군은 九月七日 奇跡
의으로 그 攻擊의 中心을 이들 戰團
機隊基地로부터 非軍事的인 런던으
로 돌렸던 것이다.

독일공군의 制空權獲得에 對한 挑
戰에 영국공군이 戰術적으로 脆弱性
을 지닌 이들 基地에 應戰할 것을
決定하고 더구나 독일공군의 공격을
滿身에 받은 이들 여러基地의 운명
이 아슬아슬한 판국에 독일공군의 壓
力이 一轉하여 廣漠한 런던으로 向해
진 것은 그야말로 英國戰爭을 通해서
最大의 奇跡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戰團機基地에 대한 攻擊이 앞
으로 二週間만 더 계속되었다고 하면
第十一戰團師團은 숨이 끊어졌을 것
이다.

◇ 英國防空陣의 弱點

「독수리의 날」에서 六日째 되던날
독일의 피링空軍相은 空中戰團을 런던
에서 全英國本土로 掃蕩할 것을 명령하
였다.
피링은 슈파루大將에게 命해서 第

三空軍을 編成시키고 리버풀을 主目標
로 하는 夜間作戰을 擔當케 하였다.
八月二十八일부터 연속 사흘밤을
독일공군의 슈파루가 지휘하는 폭격
기 一五〇臺는 리버풀地區에 來襲하
여 高性能爆彈 四五〇톤以上 燒夷彈
千發以上을 投下하였다. 그 바람에 리
버풀은 四日間을 라나들이 이루어 왔다.
第三空軍團 아니라 第二空軍의 폭
격기들도 매일 밤 出擊하여 영국사
람들은 매일 밤 敵機로 뒤덮였다.
독일공군이 노린 것은 공습경보의
사이렌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영국사
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고 航空機工
場의 夜勤工員들로 하여금 緊張에
누르가 되도록 만들자는 데 있었다.

하리케인이나 스피드·화이어같은
晝間戰團機는 臺數도 많고 活潑相도
는부진 것이었기 때문에 잘 안되며 하
으나 夜間戰團機인 부리스틀·부렌하
임機대대가 페파인드機, 그라저에
타機 등이 독일 야간폭격을 맞이하여
서의 활약은 粗雜한 것이었다.

독일공군의 야간폭격은 영국국 防空組
織의 가장 큰 弱點을 露呈시켰다.
그것은 야간전투와 對空火力의 문
제였다. 야간전투의 활약에도不拘
하고 四日간의 전투에서 독일폭격기
의 擊墜는 불과 四臺의 지나지 않
았다.

이 時代의 高射砲라는 것이 차장한
소리에 비해서 性能은 형편없이 市民
들에게 어느程度의 安堵感을 준다
는 것이 主目的인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였다.
야간전투기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아
직 素敵用 砲이다設備가 없었기 그저
萬一의 幸運을 바라고 남아 다닐뿐

射砲가 그래도 믿을만한 편이었다.

第一次世界大戰 때는 야전 전투기용의 烽火로서 셋페린飛行船이나 고-트驅逐機에게 도음을 준 세-치라이 트도一九〇四年代에 와서는 거의 無用之物이었다.

독일공군은 세-치라이트의 光速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高度도 올라가거나 그 高速을 利用해서 급작스럽게 세-치라이트를 피하고 하였다. 이와같은 處地에서 英國本土는 야간 폭격에 대해서는 守備할만한 技術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無抵抗인 채 내버려졌다.

唯一의 抵抗만 한 길은 完全한 燈火管制과 英國의 氣象 그리고 야간 폭격에는 서론은 독일공군의 技術은이었다.

그러지만 영구공군이 독일공군의 레디오-비콘電波를 反射하는 新發明의 防害裝置를 完成함으로써 被害를 局限시킬 수 있었다.

독일공군의 非能率-技術拙劣에 因부처 英國의 科學 특히 電波兵器面에서의 優秀性을 아는 사람은 이 段階에서 戰局趨勢에 分明한 觀測을 갖게 되었다.

이와 反對로 독일공군의 목적기乘 務員들에게는 困難한 것이 날로 늘어난 편이었다.

◇ 밤의脅威

독일 야간 폭격기의 來襲이 새로운 그러나 當然히 올것으로서 英國의 聲譽를 떨어뜨려 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即時 戰術機關의 일이 閑暇해 졌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 第三空軍의 야간 폭격이 활발해진 것은 런던 周邊에 展開하고 있는 파-크少將 指揮下の 第十一師團을 危機로 몰아 넣었다.

독일공군 슈파르部隊의 릿사슈미트 一〇九 戰術機는 重爆部隊 활약으로 손이 늘게 되어 켓셀링크 隊下인 第二空軍 增援에 轉戰해 갔다. 켓셀링크가 그들을 크게 환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켓셀링크는 이제야말로 폭격기를 目的의 地까지 보내고 歸還하는 것은 물론 傷한 비행기가 있으면 海峽上空에 戰術機關을 퍼서 보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투기에 依한 세-비스는 이것으로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슈파르 指揮下에 있는 전투기들 손에 넣은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켓셀링크에게는 새로운 頭痛의 씨가 생겨난 것이다.

릿사슈미트 一〇九型 雙發 重戰術機 性能의 缺點이 그에게 可恐할만한 事實을 알린 것이다. 그것은 英國本土 上陸作戰을 敢行한다면 猛烈한 空中作戰을 이느期間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에스슈미트 一〇九은 貧弱해서 連續적으로 쓰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大作戰에 써 버기 위해서 第一線用 戰術機가 가운을將來에 補給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戰後 獨逸側의 戰史를 연구한 어느 전문가는 영국의 결정적인 空中戰에서 승리를 거둔 轉機를 어디에서 求할 것인가라는 命題에 對하여 참으로서 英國戰爭에 참가한 독일공군將校와 論議한다는 것은 當時 그들이 어떻게

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 德을 본심나라

오늘날 西獨空軍의 高級將校로 있는 前獨逸空軍 파이롯트 한 사람은 「英國은 地理的으로 空軍攻擊에 대해서 絶好的의 地利를 占하고 있었다」라고 前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으로 設想하기 難이 없는 海峽이었어! 그 뜻을 전하 않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不快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는 英國本土를 守備할 수 있었어도 다는 自然的條件을 例證해서 「밤은 날치라고는 불태야 볼 수 없는 惡天候는 말할 것도 없고 밤이 整然하게 區劃되어 있어 空中에서 인 듯 보기에는 꼭 비행장 같단 말이야 그야말로 그것은 自然的 僞裝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야.....」

自然的인 惡條件, 영구공군의 전투기, 英國本土에 흠어져 있는 레이더等等만 생각하더라도 制空權을 잡을려고 한 독일공군의 企圖는 처음부터 希望이 없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英國戰爭은 되풀이되는 話題가 되었다. 그리고 二十年이 지난 오늘날 英國戰爭은 公式調査記錄으로 整理되어 新 生 독일공군의 教科書로서 印刷되었다.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독일공군의 補給線은 最大限으로

延長되고 豫備비행기도, 파이로트도 不足한 것이었다. 여기에 比해 英國은 豫備機도 파이로트도 餘裕가 있어 한참 전쟁때에도 파이로트에게 休養을 갖게 할 수도 있었다」

「만약 이와 함께 英空軍의 다우딩大將이 이때 전쟁에 그 全戰術機兵力을 投入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도를지기 독일공군은 때를맞아 意氣阻喪해 가지고 八月에 舍命대로 몰려져 런던 폭격도 開始할 수 없었을 것이다」

西獨空軍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다우딩大將은 過誤를 犯하였다. 그는 海岸에 沿한, 그리고 독일공군 기지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南西잉그랜드의 諸基地防衛에 沒頭하였다. 여기서 비고져 안전한 런던後方的基地에서 大編隊로 런던上空을 지키지를 알았을까? 그렇게 하면 市民들에게 不安感을 덜어주었을 것이고 그런然後에 戰術機隊는 戰場에 나섰으면 좋을 것이 아닌가?」

또 다음과 같은 論評도 하였다. 「이들 後方공군기지는 독일공군으로부터 결코 獲不得인 打撃을 받을 염려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공군의 雙發爆擊機는 英國上空作戰에는 不適當한 것이었다. 더구나 單發戰術機는 航續距離가 짧으며 雙發戰術機는 性能이 나쁘다. 영구공군後方基地를 철저히게 매릴 수 있는 비행기는 그냥 시 독일공군에는 없었다」

◇ 英國民들의 자람

戰時中이나 戰後를 통해서 영구국

민들이 영구전쟁에서의 자량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劣勢의 位置에서敵을 包圍했다고 하는 말하자면 『巨人고리아즈와 다비드』의 神話의 인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英國空軍의 功을 強調하기 위해서 독일공군의 優秀性을 誇張하는 것이 士氣를 振作시키는 데도 필요하였다.

전쟁이 개시된 첫째에 영국국민은 독일이 영국정부에 필요한 兵器는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戰後에 이 傳説에 대해서 사실은 독일공군도 영국征服이라는 주어진課題에 대해서는 빈약한 裝備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예는 없다.

一九四〇年의 德 英 空 軍 間 戰 事 中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이 문제 때문에 영국군은 살아남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공군의 基地는 佛蘭西, 白義耳和 蘭 各 地 에 散 在 在 在 有 之 也. 且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그렇지만 獨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이와 같은 독일공군의 현실에서 볼 때 옛날부터 잘 整備된 비행장에서 출격하고 있던 영국공군은 그야말로 구석이 잘 맞은 것이었다.

急造한 基地에 불안을 느끼면서 독일공군사령관들은 未曾有의 大規模의 空 襲 을 개 시 하 도 록 命 令 이 下 列 了 也.

그들이 불안에 싸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急造한 목적기와 전투기가 독일본토의 옹카스, 멧사슈미트, 도르니에, 하인켈 등 各工場에서 속속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機 首 等 에 對 於 凶 暴 한 空 襲 的 圖 案 을 考 慮 必 須 有 之 也.

그러나 이들 비행기가 일단의 고장이 나면지하면 그 修理 材 料 等 亦 必 須 有 之 也.

영국에서 마바부트크로이 製 作 所 에 在 在 有 之 完 備 된 修 理 設 備 等 亦 必 須 有 之 也.

스텐은 도저히 독일공군이 용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占 領 地 域 에 在 在 有 之 急 造 機 庫 亦 必 須 有 之 也.

무엇보다도 當 時 的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보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後方基地에서 大編隊의 戰 闘 機 隊 等 集 中 的 的 投 入 有 之 也. 且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急造한 基地에 불안을 느끼면서 독일공군사령관들은 未曾有의 大規模의 空 襲 을 개 시 하 도 록 命 令 이 下 列 了 也.

그들이 불안에 싸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急造한 목적기와 전투기가 독일본토의 옹카스, 멧사슈미트, 도르니에, 하인켈 등 各工場에서 속속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機 首 等 에 對 於 凶 暴 한 空 襲 的 圖 案 을 考 慮 必 須 有 之 也.

그러나 이들 비행기가 일단의 고장이 나면지하면 그 修理 材 料 等 亦 必 須 有 之 也.

영국에서 마바부트크로이 製 作 所 에 在 在 有 之 完 備 된 修 理 設 備 等 亦 必 須 有 之 也.

스텐은 도저히 독일공군이 용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占 領 地 域 에 在 在 有 之 急 造 機 庫 亦 必 須 有 之 也.

무엇보다도 當 時 的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보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後方基地에서 大編隊의 戰 闘 機 隊 等 集 中 的 的 投 入 有 之 也. 且 獨 逸 公 軍 亦 深 刻 之 頹 喪 을 受 け 且 實 際 獨 逸 之 將 軍 等 亦 多 數 戰 上 之 敗 北 面 面 對 英 空 軍 也.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난 새해부터 젊어지고와 수영을 짚는데 넌 기쁘느냐?”
아들 “네! 이제 나이드 들었으니 어른이 되어야죠”

김 성 환

결쳐 전투기의 大編隊를 할 수는 없었
다.

이들 基地로 해서 大우딩大將이나
파이크少將이 할 수 있었던 最善의 方
法이라는 것은 二個中隊를 한데 합치
는 일이었다.

독일공군은 電戰으로 危機에處
한 祖國英國을 救하는데 全力을 다
한이 두사람의 용사는 戰後 戰團機
隊司令部에서 깨끗이 버림을 받았다.
파이크少將은 蘭타島의 司令官으로 되
고나갔으며 한편 戰團機隊創設者이
며 英國戰爭이 낮에 벌어지고 있을때
도 나가올 야간폭격의 對艦한 秘策을
짜낸 大우딩大將은 戰後 公군에서 물
러나서 穩居生活를 보내고 있다.

◆ 불바다 이틀 런던

九月七日 점심때쯤 독일공군은 첫
틀러가 부른 한 런던妻間爆擊의 준비
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午後 늦게 독일공군은
런던 상공에 殺到해 왔다.

목표는 테이트스江 沿岸에 들어서
있는 製油施設과 울. 릿치의 王立兵
器廠같은 軍事施設이었다.

이 런던공격에는 폭격기가 延六百
臺 戰團機가三百臺나 참가하였다.

런던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거의
抵抗없이 抵抗을 하지 않았다. 卽지
투기基地에 對한 공격과 그리고 그
공기공장에 대한 독일공군의 신비무
적이 행해진 위험이 豫測되었기 때문
에 第十一戰團機師團은 독일공군의 이
공격에 應戰할 수 있는 配置가 되어
있지는 못했다.

第十一戰團機師團의 殆半은 파이크

少將將當區域周邊에 一個中隊單位로
몰려져 있었다. 거기다 런던은 아직
한번도 주간폭격을 받은 일이 없었
다. 이제까지 一連의 陽動作戰에 끌
려서 전투기대는 位置를 떠러져 있었
던 것이다.

이제 런던에서 東쪽세크스까지 艦隊
展開하면서 독일공군은 海峽을 건너
용이하게 영국본토 상공에 侵入하여
런던을 노렸던 것이다. 독일공군이
설계 런던 상공에 도달하여 약간의 地
上砲火를 받았을뿐 폭격에 성공하고
歸還한 것은 독일본토에서는 대성공
이었고 피를 흘린 하였다.

확실히 이들의 장막이 내려짐에 따
라 세인트폴寺院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이지도 불바다 뜨는 런던의
地獄같은 光景이 뚜렷하게 肉迫해 왔
다.

이와같은 큰 火災는 그날밤 있었던
독일공군의 런던 야간폭격 때 絶好의
標의 이 되었다. 독일공군의 조종사들
은 이 火槍을 목표로 인텔이 달거 불
었다. 불발은 런던은 사람의 術數로
는 도저히 救濟할 진이 없을 것 같았
다. 그뿐 아니라 야간폭격에 대한 自衛
措置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 勇氣와 惡天候

그러한 가운데서도 九月의 하루하
루는 지나갔다.

九月七日以來 危機에 處한 런던을
救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전쟁初期에
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특한 惡天
候와 어떤 難境에서도 屈하지 않는
영국인들의 용기와 適應能力이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의

損失數는 各各 다음과 같다.

九月八日	二	英國	獨逸
九日	二十八	二	十五
十日	四	四	十九
十一日	二十五	一	一
十二日	四	四	二十九
十三日	四	一	〇
十四日	四	四	一

독일공군은 이 戰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영국공군을 압도하
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영국본토 侵犯에는
아직도 커다란 希望을 걸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上陸作戰에 가지 않은 때
저 압도라도 영구를 平和交涉을 통해
서 공복시키는 것도 可能한 것으로 믿
고 있었다.

一九四〇年 九月十五日(日曜日) 영
국공군은 第二次大戰中 가장 高價한
代價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英國議會뿐 아니라 영국국민 전체
의 時計라고도 할 수 있는 議會時計
塔의 時計가 正午의 時報를 打알렸을
때 런던 상공에서는 처절한 空中戰이
개시되었다. 폭탄은 순식간에 런던市
東南, 南西地區에 墜下하기 시작하
였다. 또한 박검감공殿이나 웨스트민
스터區에, 구름사이를 뚫고 폭탄이 落
下하기 시작하였다.

◆ 새로운 戰術

九月十一日 파이크少將은 第十一戰
團機師團 地上管制官에게 새로운 指
令을 내렸다.
『大學來襲에 對處하는 戰術에 關係
서』라는 題目下的 이 指令에는 다음

과 같이 記錄되어 있었다.
『다음 指令의 目的은 第十一師團의
戰團機中隊를 可能限 恒常 二個中
隊의 規模에 합쳐서 最大의 전투력을 발
휘코자 하는 데 있다.
一, 스티드와이아中隊는 敵戰團機
部隊에 對處한다.
二, 對處한 中隊는 其의 폭격기 내
지는 近接掩護機에 對處한다.』
아니나 다르게 九月十五日 아침 두
일공군은 海峽對岸에서 大編隊를 짜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평장
히 오래 걸렸다. 흡사히 遠足を 떠나
는 學校生徒들의 行列이 便所에 언제
까지나 떠나지 못할 듯하고 응실대는 것
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最後의 小編隊
가 갖추어지기까지 끈기있게 기다리
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간을 利用해서 영국 第十一師
團에 屬하는 地上管制官은 눈코를
새웠어. 師團隷下에 있는 各中隊의
合作編成을 서둘러 그것을 유리한 地
點에 配置하였다.

런던後方에서는 가장 시간적으로 여
유가 있었던 第十二戰團機師團의 司
令官 베이. 마로리가 인를 잃는 態勢
로 기다리고 있었다.

午前十一時 그동안 독일공군의 공
격을 空에서 『空中無敵艦隊』라고도
할만한 독일공군의 大編隊가 이루어
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영국 전투기 十七個中隊는 지체 없
이 떠올라 유리한 高度에 配置되었
다.

항공기공방防衛는 언제나 最優先
되어야 할 任務였다. (계속)



새해에 살려기 마음

趙敬姬

새해는 금년이 가고 내년이 금년이 되는 해다. 누구든지 금년인 새해를 맞게 되면 잔치가 크다.

아무리 절망속에서 나날을 보내자 람이라도 새해에는 환가닥의 희망을 부치게 된다. 이것이 새해라는 새로 운말이 주는 「프렌센트」인지도 모른다.

금년에는 다음되는 일흔륙 정공식 커 보겠다고 다시 한번 두주먹을 쥐는 날이기도 하다. 해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되풀이하는 수사로 되어있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맞게 되기를 바란다.

금년은 이제의 잘못된 정현을 되풀이 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 삶의 생활이란 이제의 생활이 오를까냐는 것이 아니고 이제의 연장이 때론의 원만함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잘못은 잘못대로 타성같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진실하면 생활은 오를 한결 쉬운 생활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제까지 고독속에서 해피엔 생활의 오를 비관한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것은 시발점으로 떠나서 무척 지치지 말려는 여마차가 도중의 말의 계를 부르고 있는 마차마차 손질한 새해가 되리라 「자아」를 한 번

다시 되풀이해 보자.

도약자는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용게 살아가는 무장용 새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새해이기도 하다.

달리는 마차의 갈길에 때로는 멀고 험한 것처럼 인간이 용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란 수월치가 않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자신을 재검열하지 않으면 옳다는 길에서 탈선하기가 쉽다. 이 탈선을 방지해 보자는 것이 자기반성이요 새로운 자도가 되겠다.

새해 아침을 당해서 지난해 새해 아침의 것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하였는 때 오늘 아침에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처럼 거들거리는 것이 하고 할만하게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는다면 새해 아침이 고독이다.

인간의 고통이란 인류가 시작할 때 전해오는 유산처럼 죽을 때 까지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모른다. 생각하면 하루속히 이 고통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요 또한 인간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 나려면 단숨에 그것을 알고 버리기 사관들은 때로 고통을 잊어 버리기 위해 현실에서도 되풀이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발목을 꼭 디디고서 새 고통을 구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아 한다.

새해 문턱에까지 따라올라는 고통의 보따리에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덜어 버려야겠다는 것이 인간의 열원이기도 하다.

새해 아침이 되었다고 우리의 생활이 비관한 말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달라지고 싶은 것이다.

풍속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빛의 이제와 다음에 새해의 동이 떠오른 의명이 모두 이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같은 날을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새날처럼 뜻깊게 받아 드리는 것이다.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때 새날의 미한 감동은 더 큰 바가 있다. 다시는 말하지 못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과 같이 새날을 생각하고 싶다. 다시는 못할 사랑을 만났을 때 울어나오는 자제와 기쁨과 관용속에서 다짐되는 문은 각오가 새날에도 필요하다.

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세월은 아무 말도 없이 흐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가까운 벗을 무심한 사람이 라고 하고 마냥 흐르기로만 하는 세월을 부정하고도 한다. 그러나 세월이 일일이 있어서 말을 할 때면 세월처럼 말없이 인간을 지킨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월이라는 색깔도 중량도 없는 흐름이다. 인간의 우주의 처절한 역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월이란 자기 고집대로만 흐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겨져 보면 세월처럼 단련되어 있는 것이 없어도 새겨진다. 세월은 인간의 의욕의 따라 고부름같이 살아 느낄 수도 있고 오부릴 수도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새해 문턱에까지 따라올라는 고통의 보따리에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덜어 버려야겠다는 것이 인간의 열원이기도 하다.

무인도에도 바라는 불교 세월은 울려갈 것이다. 그리고 새해는 울 것이다. 인간이 세월을 어떻게 잡아 다루느냐에 달려서 무인도에서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 상쾌는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실인 나 새해가 마치 무인도의 고도에서 맞이하는 기분이다. 외롭다든가 狐獨하다든가 하는 그런 감은 아니다. 정말 의롭고 狐獨한 사람은 없다. 새해의 불교를 부치지 않을 것이다. 狐獨이라든가 무척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인데 흔히 마음은 두르고 고통을 말한다. 그러나 말없이 흐르는 세월과 표정없는 사색의 흐름이란 마음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나 교육하게 살 수 있었느냐는 평가는 얼마나 혼자서 사색하느냐와도 같다. 사색의 결과와 불은 두울 구상하게 마련인데 불은 돈이란 항상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외롭다는 것은 정말 불은 뜻을 떠돌아 이야기할 것이 없을 때 임습하는 바람이다.

불은 돈 앞에는 불로움이란 계절 불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오게 마련이다. 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계절 불을 막아내려면 문센의 지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나간 이제와 오늘 또 앞으로 오는 날이란 이런 의지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묘한 정수의 처하더라도 불이 있었으면 한다. 새해에 관한 이런 생활태도의 의의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다.

다짐하고 싶다. (筆者·주산재나라 권진영)

<수필>

詩

希望에 대하여

李永純

그 분이 열리던 날

눈시울에 젖어드는 것이 있었다

부명 속에 黃金色 指標를 본다

어둠과 迷路의 벽이 무너지면서

나의 마음은 푸름을 날린다

살을 즐기라 限없이 살을 즐기라

그것만이 빛나는 未來를 創造한다

실사 未來가 고난의 連鎖反應의 旅路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증오하며 거부하지 말라

「하늘」



깊이도 넓이도 헤아릴수 없는 하늘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살아 갑니다.

그 무변대한 하늘에는, 우리를 땅을 밟고 사는 인간들은 근절할 도리가 없는 길고 아름다운 說話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萬能의 權威와 公明한 正義를 가지고 宇宙에 君臨하는 太陽과, 行旅病에 걸린 낭만적인 詩人과도 같은 구름과, 太陽아래 잃어버린 眞실함이 들추어서야 비로소 비 빛나는, 수줍고 영동한 별들과.....

페로는 다정하다가도 사나워지는 요술마법처럼 번덕스러운 바람, 그리고 행려병에 걸린 낭만적인 시인과도 같은 구름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대개는 무시시며 혹은 쪼르른 상으로 대하여 살아 갑니다.

좁은 땅 위에서, 부딪고 싸우고 울며 소리치면서 점점 그 정직한 自然과 멀어 가는 것 같습니다.

鄭然喜

슬픔에 몸부림치고 괴로움에 떨던 서도어제 하늘을 바라볼 눈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火山과도 같은 憎惡心도 옛 어주런만, 대단치도 많은 人生에 한 숨짓고 울면서 도어제 하늘을 바라보다 마음울 깃어볼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 하면 神을 그려 보는 것이 人間의 常情이 되어 있습니다. 犯할 수 없는 위엄과 慈悲를 함께 지니고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을 두고 우리는 대개가 무심히 살아 가고 있습니다. 日氣를 닦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門을 활짝 열기 위하여 하늘을 보는 때가 하루에 몇번이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神의 公明한 손길과 자비로운 視線을 하늘은 저니고 있습니다.

하늘의 神秘를 科學은 점차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비를 두러워 해야하고, 童話와도 같은 눈도 반가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速力은 하늘이라는 空間을 두고 점자로 눈부셔 잡니다.

水面이나 地上이 아닌 空間은 無限의 速力까지도 包容할 여유가 있는

우렁찬 國造의 진동

고된 어제가 미소 짓는

오늘, 맑은 바람은 추사인다

世襲의 하늘 높이 우러러 들어라

죽음도 아닌

아아 너는, 몇번이고 몇번이고 삼을 거부했지

별도 없는 허공 밑 迷路를 헤메이다 헤메이다가

땅을 치며, 몇번이고 죽음과 자리를 같이 했지

것입니다.

그것은 水面이나 地面이 지니고 있는 여유가 아닌 것입니다.

神秘를 지바리는 文明은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都會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그리움의 눈동자와도 같이 영롱하고 선명하게 빛나는 별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으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어둠이 없어진 채입니다.

네은으로 붉게 짓은 都會의 밤하늘은 「最後의 審判」의 징조와도 같은 不安을 풍고 울부짖습니다.

燈火點이 따로 없이는 世上이 한

꺼번에 불바다가 될것만 같은 그런 빛으로, 都會의 밤하늘은 응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인 落葉만도 못한 人間——. 불의 다사로운 해빛에 울이 터져

차츰 자란뒤, 한여름의 灼熱하는 태양아래에서, 왕성하게 푸르렀다가 태양의 손길이 멀어질때 슬픔을 그대로

들어내며 땅위에 가만히 누는 落葉의 正直성을 人間은 闇을 몰르나 봅니다.

하늘은 人間의 어떠한 착난에도 변모할리 없습니다.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천지 업수

해지고나 自身의 착고 浮沈것 없음을 일깨워 주며 위축을 당하게 만드는데는 하늘입니다.

그러나 「絕對」로서 存在하며, 우리의 머리위에 펼쳐진 자비의 지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면 自身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罪나 惡이 짓들리 없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착하고 위대하고 너그러운 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해빛에 銀翼을 반짝이며 하늘로 하늘로 치솟아 달리는 飛行機.

그 유쾌한 속력과 高度의 통제감을 맛보는,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들. 한마디로 아래로 地球를 두르고, 현

란한 햇빛과 神秘한 구름속을 비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雜多한 地上의 俗事라든가 번거로운 눈물도 슬픔도, 그리고 조그맣고 가벼운 기쁨까지도 털어버릴 수 있는 時間이 바로 비행시간입니다.

昇華, 바로 승화의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蒼空을 나르면서... 하늘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罪를 생각할 리 없고 惡을 더듬어 붙들다가 나겠습니까?

滑走路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더욱 넓고 더욱 푸르리라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은익을 창공에 접하며 하늘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도 넓고 푸를것 같습니다.

新作路上서만난 제트機



朴 洪 根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 여를, 빛나는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銀翼의 아름다움을 지금도 나는 잊지를 않고 있다.

大同江 물줄기를 따라 유유히 平壤 상공에 나타난 爆擊機 編隊의 偉容, 一九五〇年 七月初旬의 空軍의 空

中攻擊의 첫날의 記憶이다.

所謂 敵機가 來襲 한다는데, 平壤

거리와 골목에는 하얗게 사람들이 나와서 爆擊機의 求景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興味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해마다 漢江에서 열리는 航空機의 「求景」을 求景하듯, 사람들은 그러한 心情으로 눈

은 곳을 찾았다.

나는 그때, 平壤 飛行場을 마주 바

라다 보는 大同江 이쪽 기슭에 살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爆擊機들이 大同江위에 나타났던 그때 나는 집에 있었다.

아마 점심을 먹으려고 왔었던 것 같

다. 유엔 空軍의 첫 爆擊은 그야말로 平壤市民들의 열렬한 歡迎을 받으며 敢行 되었다.

참으로 奇現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피뢰정권의 붕괴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엔 空軍의 攻擊開始는 자라들의 所願을 이루어주는 것 같은 希望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꺼어서, 大同江기슭에서 平壤飛行場 爆擊을 바라다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목격하는 爆擊이라, 흥興味는 있었는데 그것이 爆擊인 줄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爆擊機들이 飛行場 上空을 낮게 울고 있었다. 그러자 地上에서 검은 煙氣가 동글 동글 올라왔다. 爆音도 별로 요란하지 않았다.

나는 피뢰군들이 煙幕 같은 것을 퍼뜨리는 줄로만 알았다. 『저 이상한데, 왜 목격은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내 옆에 있었는데 피뢰군 將屋의 아내가, <조선出身이며 조선에서 派遣되었던 韓國人이었다> 말하기를 所謂 南韓 軍隊들은 南韓政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命令이라 攻擊은 왔었지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內容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러자 우리와 함께 구경하고 있었던 나의 中學時代의 恩師인 金先生이 『히, 폭탄이 부겨워서 두 그냥 안 같

은 연기가 뵈네요. 한 번 거른 하해 치운 거요?』

이렇게 말하고 또 절절했다. 우리들의 바로 옆에는 防空壕가 큰 것이 있었다. 그러나 防空壕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공산당은 美軍의 폭격이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선전을 반대로 해석하는 습성을 지녀왔던 나는 그것은, 爆擊機는 美國것이나 타고 있는 사람은 韓國 사람들일 것이라고 斷定을 했다.

물론 『유엔』들도 있을 것이나 그중에는 韓國인도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大韓民國과 그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저래의 優位性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北韓에서는 平壤 飛行場에 있던 날개가 두개 있는 舊式 飛行機만 보지 못했다.

그후부터 폭격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갔다. 그럼에도 따라 人命被害도 自然히 생기게 되었다. 폭격이 처음된 첫날처럼 『소』를 구경하는 기분으로 바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해 八月 어느날 굉장한 폭격이 있었다.

그날 아침, 煙幕을 받으며, 무른 하늘에 유유히 떠 있는 B-29의 빛나는 銀翼의 아름다운에 한동안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나는 出版社 屋上에서 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防空壕도 자주 드나들었다. 人民軍徵發을 避해 故郷으로 도망칠

했다. 威北까지 밤낮, 꼬박 열나흘을 걸

었다. 高原의 어떤 집에서 자고 아침에 한참 걸어가는데, 바로앞에서 爆擊이 展

開되고 있었다. 한계 가고있었던 사람들과 나는 참깨밭에 들어가 숨었다. 『그라만』 전투기 몇대가 빙빙 돌다가는 地上으로 내려오면서 요란스럽게 『로켓트』砲를 쏘아대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이었다. 어떤 사람이 뛰가 있기다가 같이 야단하게 爆擊을 하는 것일가 하고 생각 하였다. 고요해졌다.

참깨밭을 나와서 큰 길에 나섰다. 불과 백메터의 거리에서 『유리』이 한데 불이 불고 있었다. 운전수는 어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다.

길바닥에는 탄피가 무수히 덩굴고 있었다. 그때, 낮에는 기차는 물론 『유리』같은 것도 다 지를 못 할 때였는데, 평양을 떠나 高原까지 오는 며칠 동안 낮은 물은이거니와 밤에도 『유리』이나 또 다른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이제다 한번 밤에 원산쪽으로 나가는 『추리』한대를 보았다. 우리들이 앞서 가는 것을 본 『추리』은 우리들의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선, 『인민군』 장교가 『한양이 없어요?』

라고 물었다. 비행기가 뜨져 앉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유엔』 공군에 묻게 혼란도양이라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이야기가 좀 험하거나 했는데, 불이 불고 있는 『추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가벼운 줄로만 알았던 『그라만』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만 우리들은,

물없는 도랑에 뛰어돌아서 었드렸다. 조종사의 머리가 보일 정도로 낮게 뜨고 있었다.

몇번인가 그곳을 돌고서는 사라졌다. 다지 절었다. 좀 앞서 가면 동행인은 그때까지도 일몰이 새파랗게 되어 산기슭에 었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다

같이 도랑에 었드렸기는 했으나, 그 친구의 모양이 어찌나 웃으웠던지 모르겠다. 그러나 농민들은 유유히 그 절에서 버거움을 하고 있지 않을 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우리들 자신을 또 한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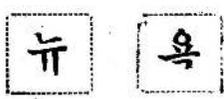
다음은 吉州를 지나서였다. 그때도 아침이었다. 하안 新作路를 걸어 북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나는 벌렁방 바닥을 눈고 밟았다.

마치 자동차가 新作路를 가듯, 『젯트』機 두대가 電信柱의 줄이만큼 떠서 新作路위를 따라 내 앞의 소리도 없이나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겨울에 눈길에서 미끌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일어난 때와 같은 氣分이었다. 누가 그 모습을 목격했으면 얼마나 웃으웠을 가 하는는.....

北韓 사람들은 『젯트』機를 『색계기』라고 불렀다. 몸씨 낮게 뜨고 소리 없이나 나타났지만 살아가곤 하였다. 처음 마릴을 지나가면서 『피난을 안가도 좋다』고 조종사가 어떤 집안에 앉았는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는 웃은운이야기도 떠들곤 하였다.

그 『젯트』機의 조종사들도 나는 韓國사람들이라고 믿었다. 지금은 우리 空軍이 『젯트』機도 保有하고있으며 어떤 新銳機도 조종할 수 있게 成長이 되었지만.....(끝)

<世界驚異巡禮> ⑥



—世界最大の都市—

하리바른

만약 어느 遊星의 한 住民이 우리들을 방문코자 이 地球를 찾아 왔다고 하면 어느 都市가 그에게 가장 놀랍고 興味로운 對象이 될 수 있을까? 이점에 대해서 나는 서슴치 않고 뉴욕이라고 말하겠다.

그는 파리의 優美함과 사랑스러움을 賞識하고, 런던의 잘 정돈되고 무게있는 풍경은 존경하며, 이스탄불이나 리오데자네이로港에 관해서 자기나라인 遊星에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뉴욕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감명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都市를 보아도 도돌라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무슨 對備가 必要할 것이다.

도대체 이 都市를 除하고 어디서 그와 같이 높은 建物이나 塔이 구름위로 솟아 있고 또한 近千萬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울 짓고 살고 있으며 街路에는 자동차가 洪水를 이루고 無數한 船舶이 세계 各處에서 運搬해 온 荷物을 放出하는지가 있겠는가 말이다.

뉴욕의 聲音, 光彩, 實, 確實하고도 날카로운 아름다움, 廣大한 것, 이러한 分野에서 볼 때 다른 處 그 類例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실로 驚異中の 驚異라고 할 것이다.

이 巨大한 都市가 사람들을 멍하게 만드는 魅力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는 언젠가 聖파이어·스페이트·벨링의 그들이 깃드는 집에 몇 개월 동안 살아 본 적이 있다. 비옥이 좁은 十字路에서 전혀 豫期치도 않게 아침 햇살을 담뿍 받으며 솟아 있는 이 尖塔 光景에 마주치면 언제나 道路위에서 거닐게 되고 一直線으로 세워져 변칙 변칙 빛나는 鋼鐵建物을 아래층에서부터 三百六十미터나 되는 꼭대기까지 눈으로 훑어 올라가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

나는 세인트랄·파이크로 부터 五番街에 걸쳐 슬피하게 늘어서 있는 高層 建物에서 밤하늘에 비치는 불빛 洪水를 여러번 目擊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도처에 보았을 때나 똑같은 感動을 받았다.

언젠가 나는 뉴욕港이 내리다 보이는 집을 한 채 얻어 글을 쓰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나는 일하는 시간에 暇下에 出入하고 있는 大洋航路에 就航하고 있는 船舶의 行列을窓 너머로 볼 곳, 바라다 보는 것으로 정신을 다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번이 뉴욕에서 마음에 드는 景致에 익숙해 질라치면 그러한 경치는 더더욱 사라져 버리고 다시 머크코 할 줄한 것이 나타나게 마련이

다. 뉴욕 구경을 온 런던市民을 비롯코 파이크街를 案内한 市民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뉴욕 구경을 온 런던市民은 그랜드·セント랄驛의 規模가 큰데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여 낮을 잊었다고 하는데 안내하면 뉴욕市民이 「당신은 지금이 것이 가장 驚異의인 구경거리라고 해도 좋소! 그러나 두번 다시 이곳을 찾아 왔을 때는 가장 훌륭하고 감명 깊었던 곳이 여기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러모로 부러운 뉴욕市를 찾아 온다.

우리들은 먼저 大西洋에서 뉴욕港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하드슨江과 이스트江 사이에 건 만항만地區가 흩사히 환속처럼 우리들을 向해서 突出되어 있다. 이 突出部는 저 巨大한 高層 建物들로 해서 하늘 높이 벨링의 장군을 이루고 그 하나 하나가 꼭 제쳐저마다 키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 塔은 피라밋들을 만든 키오프스도 그 광경을 무척 하하였다.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



나사진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自由의女神像」이 있다.

또한 유명한 브루크린 橋가 이스트江에서 통아일랜드에 걸쳐 그 優美한 아치형을 자랑하고 있다. 하드슨江을 數마일 거슬러 올라가면 조지·워싱턴 橋의 靑灰色 빛깔이 視野에 들어 온다. 이 다리는 샌프랜시스코의 金門 橋가 架設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吊橋였다.

저쪽에서 놀란다 號가 들어오고 있다. 아마도 曳船에 끌려서 船艙에 向해 있는 런·메디號나, 웨스號, 유름號 같은 배들과 마주칠지도 모르겠다. 섬의 先端을 통과하면 하드슨地區로 들어선다. 만항만에서는 비교적 낮은 高層 建物들이 서 있고 울·워스塔도 그 근처에 있다. 이塔은 한때 世界最 高建築物로 指目되었을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보다도 높은 塔이 얼마든지 있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唯獨 뛰어난게 솟아 있는 摩天樓가 있다. 그 꼭대기에서는 모두 유무뿐 아니라 數마일 퍼러진 곳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실로 그곳에서의 展望範圍內에는 거의 千萬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배에서 陸地에 올라면 저 자동차의 洪水를 보게된다. 모든 街路에는 三十平方센치미터 間隔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로 뒤덮여 있는것 같다. 여기저기 다시 혼잡하기 이를테없 는 오란나 地下道를 지나가면 두개의 巨大한 管子 하드슨江의 물속에 묻혀 있어 管子에는 浦인사이 없는 自動 車 洪水가 時速八十키로의 속도로 뉴욕에서 뉴욕까지 州를 향해서 강물 밑 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자동차로 이 디를 갈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交通量이 輻輳하고 차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地下鐵 을 利用해서 混雜한 街路의 妨礙을 달 려가는 것이 上策이다.

地下鐵道の 驛은 그야말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수많은 列車가 달리는 驛音으로 귀청이 멎어지는 것 같다. 여기서는 개미집을 밟았을때 개 미들이 미친듯이 어리 뒤고 저리 뒤고 하는 모양을 본경험이 있을 것이다.

뉴욕의 地下鐵은 몹사히 이렇게 발차 뒤질진 개미집같이 몇천 몇萬이나 되 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리게 右往左 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광경이 저녁 다섯시쯤 되면 그 복잡대는 물이 絶頂에 達한다. 急行電車が 열달아 들 어와 분이 열릴때 마다 수많은 사람 들이 噴水門을 열이놓았을때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數의 사람들이 電車에 또한 올라타면 원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달린다. 이 電車에 타고 있을때는 그것없이 찬바람이 車內로 들어온다. 이스트江 밑을 電車가 달리

고 있는 것이다. 그런지 얼마가져 전 차가 停車한다. 우리들은 五分間에 四·八키로나 달린 셈이 된다. 그리고 도착한데는 부듯크린이다.

이 電車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 고 있으면 장엄한 陣營에서 連綿 不斷 에 빠져 나온다. 電車는 巨大한 吊 橋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窓밖으 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변함없이 솟 아 있는 摩天樓가 보이며 아래를 내 리다 보면 四十五미터나 되는 밑에 보 트가 떠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자 다시 어둠속으로 들어간다. 다음에는 어디에 닿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나는 뉴욕이 다만 驪音과 車 輻과 雜踏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印象 을 주기는 싫다. 數百萬의 사람이 이 곳에서 생활을 즐기고 있는 다른 곳으 로 옮겨가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을 사랑하는 理由의 하나로 이 곳은 국민문화의 中心地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音樂이나 美術이나 演劇이 繁榮하고 세계 제일의 交響樂이나 오페라를 들을 수 있다. 冬季에는 하루에 四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劇場에 가는 아니고는 찾아 든다. 또 박물관 에는 모든 나라에서 蒐集한 貴重한 美術品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願 하는 바를 能히 充足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리 고 絶好의 機會를 줄 것이 틀림없다. 이 뉴욕에서는 온갖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밤의 뉴욕! 초겨울 日沒後 港口에서 아련한 불빛속에 바라다 보 이는 만화탄의 摩天樓는 밑을 수 없 으리만치 아름다운 광경이다. 밤하늘 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여기의 모

1961年

世界時事日誌

- | | |
|-----------|----------|
| 1 유엔關係 | 7 宇宙競争 |
| 2 라오스問題 | 8 시로와 나토 |
| 3 콩고事變 | 9 國際會議 |
| 4 伯林危機 | 10 韓國關係 |
| 5 核實驗中止問題 | 11 共產國動態 |
| 6 달레리아問題 | 12 各國別事件 |

◇ 유엔關係

△安保理事會 몽고의 平和를 위한 亞阿三國 國공립 平和案을 承認(二月二十一日) △政治委員會 유엔 第十五次 延長總會再開(三月八日) △政治委員會 韓國問題 月末上程을 發表(三月八日) △政治委員會 유엔의 權能을 認識하는 條件下에 北韓 代表를 韓國問題 討議에 參照시키자는 美國案을 五九對十四로 可決(四月十一日) △政治委員會 韓國國에 關한 日本案(韓國代表 參席)을 四四對一五 棄權(一八票)로 可決(四月十四日) △總會 유바의 爆發問題 둘러싸고 論難(四月十六日)

△政治委員會 中南美七國의 美 干 涉問題의 平和를 위한 美洲機構의 協調 案을 要請(四月十九日) △政治委員會 韓國問題 討議을 九月까지 延期키로 決定(四月二十二日) △第十五次總會 閉幕(四月二十二日) △安保理事會 쿠웨이트問題로 緊急召集(七月一日) △特

別總會 유바에서 아問題(八月二十一日) △特別總會 亞阿三國의 協商을 要請(八月二十一日) △第十六次總會 開幕(九月十九日) △第十六次總會 議長 몽기·슬립氏를 選出(九月二十日) △시리아加入을 承認(十月十三日) △모리타니아 및 外蒙古加入을 承認(十月二十四日) △總會 버마代表 우·란트氏를 事務總長으로 承認(十一月三日) △總會(阿洲非核地帶化) 決議案採擇(十一月二十四日) △總會 中國代表權問題 討議을 開始(十二月一日)

◇ 라오스問題

△공에 대尉분·움首相의 辭任을 條件으로 平和會議開催用意이라고 表明(一月十三日) △케네디 美大統領 라오스의 中立支持聲明(一月二十三日) △매일런 英國首相 라오스問題 討議 코자 美國을 訪問(三月二十六日) △蘇

→ 伯林封鎖 일

여겨서 하늘 높이 솟은 數百의 塔頂
上으로부터 느린 無數한 雲들로 짜
진 것 처럼 보인다.

어들의 장막이 내려져서 七十層이
되는 데다 오·씨티의 빌딩의 屋上에 올
라가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下
界는 음사히 위장찬란한 寶石이 깔려
있는 듯이 보인다.

타임스·스페어의 上部는 네온사인
으로 해서 밤이 낮으로 바뀌어 간다.
그랜드·센트랄驛 근처의 鋼鐵이나 돌
로 이루어진 森林은 수많은 불빛이 명
滅하고 아득히 北方으로 뻗어있는 부
로드·웨이는 白色의 光線의 化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바다 한복판
에 센트랄公園이 비로드와도 같은 그
늘을 만들고 있다. 또한 江下流나 港
口 저쪽에는 水塔과 같은 불빛을 지
니 曳船들이 검은 물결 위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歐羅巴에서 언제나 外國人
(그 사람은 한번도 자기나라 말을 나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이 미국을 경
멸하는 듯이 嘲笑하면서 미국이 만들
어낸 것들을 업수히 여기는 이야기 나
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나
는 電光이 가장 위장찬란한 때 적은 뉴
욕의 夜景寫眞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서있는 데와 같
은 높이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눈이 뜨고 그대저서 그것을 보자면 다음
「나는 이 地球上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미국을 嘲笑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
게 되었다.

△譯者註——뉴욕市는 人口八百萬으로
世界第一의 大都市다. 이 都市는

主로 길이 二十키로 幅三·二키로 되
는 만학탄島上에 形成되어 있다. 이
섬은 一六〇九年 九月 和蘭政府가 하
이 發見한 것으로서 그후 一六二六年
當時 二十四弗 정도 의 값이 치 밖에만
되는 유리구슬, 단추等屬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인디안으로부터
사들이 뉴암스텔담이라고 命名하였는
데 그때의 人口는 불과 二百名쯤이고
三十棟가량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
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뉴욕의 始
初연된 것이다.

摩天樓는 百二層이며 높이는 四四一
·六미터로 世界最高의 建物이고 조오
지·위싱턴橋는 길이 가 一、五〇〇미
터로서 金門橋 다음으로 世界第二의
긴 吊橋이며 록펠러·센타는 높이 三
十미터에서 二百五十미터의 高層建物
十五個가 한곳에 密集되어 있는 곳으
로서 유명한 유엔本部 建物도 이곳에
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自由
와 安全을 象徵하는 自由의 女神像은
佛蘭西의 彫刻家 후레데릭크·바솔더
(一八三一—一九〇四年)가 佛蘭西人
들(한데 거느 零細한 寄付金 二十五
萬弗로 製作하여 美國에 寄贈한 것으
로서 總重量은 二二五톤이며 안에 있
는 階段으로 올라가면 頂上에 이를 수
있으며 女神像 머리 들레에는 十二名
의 사람이 설 수가 있다. 海上 九十미
터 높이로 優雅하고도 超然하게 서 있
는 이 女神은 밤이 되면 電氣로 照明
된 烽火를 높이 쳐올리고 있는 모습
이 (끝)

△譯者註——뉴욕市는 人口八百萬으로
世界第一의 大都市다. 이 都市는

라오스問題에 관한 英案受諾(四月一
日) △ 케네디 美大統領과 맥밀란 英
國首相 키·웨스트에서 라오스問題
討議(四月五日) △ 美、라오스△ 蘇
顧問團派遣을 決定(四月十九日) △ 蘇
라오스 休戰共同呼訴에 條件附로 受
諾(四月二十日) △ 全戰線에 休戰命令
(五月三日) △ 兩軍休戰代表 처음으로
會合(五月五日) △ 라오스問題의
解決을 위한 東西十四國의 國際會
議 제네바에서 開幕(五月十六日) △ 라
오스問題 제네바 國際會議 美、英、佛
代表가 라오스休戰協定에 대한 違反
事實을 들고 會議의 無期延期를 通告
(六月八日) △ 英蘇兩國外相 라오스의
戰鬪中 呼訴하는 共同聲明을 發
表하고 十四國 國際會議을 十二日에
再開하기로 合意(六月十一日) △ 라오
스三派代表 平和方案을 摸索하는 會
合開催(六月十九日) △ 라오스三派代
表三軍을 統合하고 國民聯合政府樹立
에 合意하였다고 共同聲明(六月二十
二日)

△ 카타가 政府 부름바首相의 被殺을
發表(二月十三日) △ 蘇、부름바被殺
問題를 들고 한마슬드 유엔 事務總長
의 不信任案을 安保에 提起(二月十四
日) △ 콩고 政治指導者 國軍會議가
사부부름 聯邦大統領으로 推戴할 것을
決定(三月十二日) △ 콩고 各派間에
統一政府樹立에 合意(七月十日) △ 콩
고 上下 兩院 아틀라氏를 統一政府首
相으로 選任(八月六日) △ 람마슬드
유엔 事務總長 兼바 카타가 大統領과
會談(九月八日) △ 카타가 州政府와 中央政府間
에 暫定的 休戰成立(九月二十日) △ 카

타가 政府와 中央政府間에 休戰協定
成立(十月十四日)

△ 케네디 美大統領과 브렌타노 西獨
外相會談에서 伯林守護를 再確認(二
月十七日) △ 美、英、佛 西伯林權利
固守를 宣言(七月十九日) △ 美、伯
林危機에 對處하여 陸軍百萬增強(七
月二十五日) △ 蘇、伯林問題에 協商
을 通한 解決提議書를 西方側에 傳達(八
月四日) △ 美、英、佛 三國外相
에서 伯林危機에 대한 戰略會談(八月
五日) △ 蘇、二個師團을 東伯林에
投入. 美軍 警戒令宣布(八月十四日)
△ 美、英、佛 三國國 伯林境界線封鎖
措置에 蘇에 抗議提出(八月十七日)
△ 伯林에 美戰鬪團 千五百名 進駐命
令(八月八日) △ 존슨 美副統領 西獨
訪問(西伯林守護를 確約(八月十
九日) △ 케네디 美大統領 伯林戰略
問題로 美、英、佛 西獨外相 外상은
會談 開催할 것을 發表(八月十日) △ 케
네디 美大統領 蘇外相 그로미코와 伯
林危機를 討議(十月六日) △ 맥밀란
그로미코會談에서 伯林危機 平和의 으로
解決할 것에 合意하였다고 聲明(十月
十日)

△ 케네디 核實驗中止 會談을 六週
間延長하는 美提案을 蘇受諾(二月
六日) △ 美、英、蘇 三國 核實驗禁止
會談 제네바에서 再開(三月二十一日)
△ 核實驗禁止 問題로 케네디·맥밀
란 會談(四月八日) △ 蘇 核實驗再
開을 發表(八月三十一日) △ 美、蘇
의 TNT 十萬乃至五十萬是級の 空

△ 콩고 事態
△ 카타가 政府 부름바首相의 被殺을
發表(二月十三日) △ 蘇、부름바被殺
問題를 들고 한마슬드 유엔 事務總長
의 不信任案을 安保에 提起(二月十四
日) △ 콩고 政治指導者 國軍會議가
사부부름 聯邦大統領으로 推戴할 것을
決定(三月十二日) △ 콩고 各派間에
統一政府樹立에 合意(七月十日) △ 콩
고 上下 兩院 아틀라氏를 統一政府首
相으로 選任(八月六日) △ 람마슬드
유엔 事務總長 兼바 카타가 大統領과
會談(九月八日) △ 카타가 州政府와 中央政府間
에 暫定的 休戰成立(九月二十日) △ 카

核實驗 中止問題
△ 케네디 核實驗中止 會談을 六週
間延長하는 美提案을 蘇受諾(二月
六日) △ 美、英、蘇 三國 核實驗禁止
會談 제네바에서 再開(三月二十一日)
△ 核實驗禁止 問題로 케네디·맥밀
란 會談(四月八日) △ 蘇 核實驗再
開을 發表(八月三十一日) △ 美、蘇
의 TNT 十萬乃至五十萬是級の 空

核實驗 中止問題
△ 케네디 核實驗中止 會談을 六週
間延長하는 美提案을 蘇受諾(二月
六日) △ 美、英、蘇 三國 核實驗禁止
會談 제네바에서 再開(三月二十一日)
△ 核實驗禁止 問題로 케네디·맥밀
란 會談(四月八日) △ 蘇 核實驗再
開을 發表(八月三十一日) △ 美、蘇
의 TNT 十萬乃至五十萬是級の 空

中核實驗을 探知(九月一日) △蘇의 核實驗再開에 대한 케네디·맥밀란 共同聲明發表(九月三日) △二十五個國 中立國 首腦會議 蘇에 核實驗中止 呼 訴(九月四日) △케네디大統領 美의 核實驗再開을 宣言(九月五日) △印 尼스카르노大統領 蘇의 核實驗再開을 美蘇項上會談開催를 呼訴(九月十二 日) △美·英·蘇·三國核實驗中止 會談再開(十一月二十八日)

◇ 알제리아 문제

△알제리아 國民投票 實施(一月 六日) △드·골의 알제리아政策 國 民投票서 四分之三을 獲得(一月九日) △알제리아 駐屯佛軍叛亂(四月二十 二日) △알제리아 佛軍叛亂降服(四月 二十六日) △알제리아 解放政府와 佛 政府에 비양에서 協商開始(五月二十 日) △알제리아 全域에 걸쳐 反佛暴 動發生(七月五日) △드·골, 알제리 아의 獨立을 無條件受諾했다고 發表 (七月十二日)

◇ 宇宙競争

△美、(침판치)실은 로켓트 發射 回收에 成功(一月三十一日) △蘇一 四〇五파운드 遊星間宇宙船發射(二月 十二日) △蘇, 개 실은 宇宙船 地球 旋回코를 陸(三月九日) △蘇, 가가린 少領실은 五星衛星發射 一時間四十八 分만에 生還(四月十一日) △美, 세파 드 中領실은 宇宙船 十五分간의 宇宙 旅行에 成功(五月五日) △美, 그리 송大尉실은 第二宇宙船 發射에 成功

(七月二十一日) △美、(침판치)아를 라스·로켓트 二回旋回에 成功(十一 月二十九日)

◇ 시토와 나토

△라오스會議 라오스에 있어서의 共產侵을 糾彈(三月二十四日) △시 토關係理事會 라오스事態 더욱 惡化 한면 行動化할 것을 決定(三月二十九 日) △나토 理事會關係會議 오슬로에서 開 催(五月八日)

◇ 國際會議

△亞細亞民族反共聯盟 마닐라에서 第七次大會開催(五月二日) △地域社 會開發 第四次 國際會議 서울 昌德宮 에서 開催(五月六日) 하에 十二日閉 會 △벨그라드에서 中立國 四十二個 國頂上會談開催(八月三十一日)

◇ 韓美關係

△美國務省 對韓增援額 千五百萬 弗發表(四月十八日) △美國務省 韓 國軍事革命에 대해 韓美間의 傳統의 인友好關係繼續을 確信한다는 聲明 發表(五月二十六日) △케네디大統領 朴議長 訪美招請(九月十二日) △朴 議長 十三名의 隨行員帶同코 訪美登 程(十一月十一日) △朴議長 外상은 到着 케네디大統領과 第一次會談(十 一月十四日) △朴議長 케네디大統領 國防、農務、商務長官과도 會談△朴議 長 訪美旅程서 歸國(十一月二十五日)

◇ 共產國動態

△北傀, 유엔政委案의 條件附 參席 에 대해 確答없이 參席만을 示唆(四 月十七日) △蘇, 北韓 相互援助條約 締結(七月六日) △中共, 蘇相互援助 協定調印(七月十一日) △蘇聯共產黨 第二十二次大會 모스크바서 開催(十 月十七日)

◇ 各國別事件

△美, 유마와 斷交(一月三日) △南 阿聯邦 英聯邦서 脫退聲明(五月三十 一日) △유마反政府軍 유마內陸에 上陸(四月十八日) △시에라·네오네 獨立(四月二十七日) △케네디美大統 領과 후루시초프 비엔나에서 會談(六 月三日) △이락·쿠웨이트 合併을 發 表(六月二十六日) △도미니카서 反政 府暴動發生(七月七日) △西獨, 蘇의

△ 편집후기

民族史의 方向을 決定지은 歷史 的인 신축년을 보내고 壬寅 새해를 맞는다.
생각하면 '進軍하는 革命精神'의 을마른 구원을 위해서 東奔西走하 던 일들이 꿈만 같다. (민)

세계에는 姉妹誌 '코메트'가 休 刊됨에 따라 '미사일'을 九十面으 로 增面키로 했다. 두툼해지는 '미 사일'에 더 많은 聲援을 바란다. (文)
감실에서 인쇄소에 이르기까지 부

대해 對獨講和는 統一政府를 相對한 것을 要求(七月十二日) △튀니시아 비제르트問題로 佛과 斷交(七月二十 一日) △브라질大統領 突然辭任코마 지리下院議長에 權限引越(八月二十五 日) △ 브라질의 굴라르 副統領大統 領에 就任(九月七日) △土耳其, 메 데이스 前首相 조우루前外相 포타를 前財務相의 死刑確定(九月十六日) △西獨總選(九月十七日) △美, 越南 派兵檢討次 메일리將軍派遣을 決定(十 月十一日) △土耳其總選(十月二十一 日) △土耳其政黨, 구르셀將軍을 大 統領으로 추대하는 데 合意(十月二十 四日) △西獨議會 마테나워氏를 다 시 首相으로 選任(十一月七日) △比 律賓總選 野黨의 아카파칼氏 大統領 에 當選(十一月十六日) △도미니카 의 토루히요 政權봉괴(十一月二十日) △케네디美大統領 蘇의즈베스차編輯 人 아주베이와會見(十一月二十五日)

수한 발자국을 남긴 끝에 또한나의 미사일을 내놓는다. 정신코장을 강 화하는 식물성 △미사일'은 전투 력을 강화하는 광물성 △미사일' 에 못지않게 귀중한 것이라 생각하 더 보람을 느껴 본다. (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軍人으로서 교양이 되고. 이런 내용이 月刊 △미사일'에게 주어진 命題 임을 알면서도 꾸미고 보되면 아저 지리가 먼 것만 같다. 다음에는 이 지리를 좀더 단속시켜야겠다.
신년을 맞아 삼가 정병 여러분이 행운과 건투를 빈다. (유)



↑
自由中國 陸戰隊司令 鄭爲元中將은 지난 12月 12日 來
韓 人事次 本部長 金參謀總長을 禮訪하였다.

이날 金參謀總長은 鄭中將에게 空軍記念牌를 贈呈하
였다.



그동안 基地 擴張工事に 功勞가 컸던 美 8軍
第2 工兵團長 스미스(Smith)大領에 對한 金
參謀總長의 感謝狀 및 記念品이 지난 12月
20日 張參謀次長에 依하여 授與되었다. ↓





1. 반공을 국사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전파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침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미사일

月刊 9號

發行處·空軍本部 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朱貞鎭
 印刷處·空軍教材廠
 印刷人·空軍大領 金石桓

공군본부 정훈감실

—F-104의 성능—

최대속도	2.2	Mach
순항속도	550	MPH
최대항속거리	800	Mile
실용상승한도	65,000	Ft
순항고도	35,000	Ft